

광릉한샘기숙학원 사관파이널 자습교재

필수고전시가 작품정리



공무도하가/황조가/정읍사

작품 감상 **공무도하가/ 황조가**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 : 고조선 ▶ 종류 : 한역가 서정시 ▶ 분류 : 4언 4구의 한역가(漢譯歌) ▶ 주제 : 입과 사별한 슬픔 (애도) ▶ 의의 : 가장 오래된 서정시 ('슬픔' 의 정한을 표출) ① 원시적 서사시에서 서정시로 옮겨가는 과도기의 작품이다. ② 우리 나라의 시가로 보았을 때 문헌 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이다.
임은 마침내 물을 건너시네.	公竟渡河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墮河而死	
가신 입을 어이할꼬.	當奈何	
- 「공무도하가」		
펼 펼 나는 저 피꼬리	翩翩黃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 : 유리왕 3년 ▶ 종류 : 개인적 서정시 ▶ 분류 : 4언 4구의 한역가(漢譯歌) ▶ 주제 : 짝을 잃은 슬픔(외로움) ▶ 표현 : 자연물을 빌려 우의적(寓意的)으로 표현, 대조, 의태, 선경후정(先景後情) ▶ 의의 : ① 현전(現傳)하는 고구려(高句麗) 최고(最古)의 서정시 ②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요이다. 유리왕, 황조가, 가는 단계의 가요이다.
암수 서로 정답구나.	雌雄相依	
외로워라, 이 내 몸은	念我之獨	
누와 함께 돌아갈꼬.	誰其與歸	

Related Links

- 물을 경계로 하는 것 : 삶|죽음 이승|저승 차안|피안 공준리 부리
- 시적 자아가 임하는 태도가 비슷한 작품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들> -<정읍사>, <가시리>, <진달래꽃>
- '장끼전'에서 장끼가 죽자 까투리의 심정과 유사함.

■ 공무도하가 배경 설화

공후인은 조선 진졸사람인 괘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었다. 괘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짓고 있었는데 머리가 센 미친 사람 하나가 머리를 풀고 술병을 긴 채 물살을 헤치며 건너가려 했다. 그의 아내가 뒤따르며 막아보려 했으나 막지 못하고 결국 미친 이는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를 타며 공무도하(公無渡河)의 노래를 지었는데 소리가 매우 구슬랐는데 노래를 마치고는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괘리자고가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그 노래소리를 들려주며 이야기를 하였더니, 여옥은 이를 슬퍼하여 공후를 타며 그 소리를 그대로 내었는데 듣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여옥은 그 소리를 이웃에 사는 이낙인 여옥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를 이름하여 공후인이라 불렀다. [고금주 권 중. 음악 제3]

■ 황조가 배경 설화

(유리왕) 3년 7월에 골천에 머무는 별궁을 지었다. 10월에는 왕비 송씨가 죽었다. 왕은 다시 두 여자를 후실로 얻었는데 한 사람은 화희라는 골천 사람의 딸이고, 또 한 사람은 치희라는 한나라 사람의 딸이었다. 두 여자가 사랑 다툼으로 서로 화목하지 못하므로 왕은 양곡(涼谷)에 동궁과 서궁을 짓고 따로이 머물게 했다. 그 후 왕이 기산에 사냥을 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두 여자가 싸웠다. 화희가 치희에게 "너는 한나라 집안의 종으로 첩이 된 사람인데 왜 이리 무례한가?" 하면서 꾸짖어 말했다. 치희는 부끄럽고 분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말을 채찍질하며 쫓아갔으나 치희는 성을 내며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어느날 나무 밑에서 쉬며 피꼬리들이 날아 모여들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노래하였다.

Related Links

우의(寓意), 우화(寓話)

☞ 우의(寓意)는 인간이 아닌 사물에 빗대어 인간에 대한 어떤 일을 비추는 일을 말한다.

예) 까마귀 겁다하고 백로야 웃지마라./같이 검은들 속조차 검은쫄나./갈회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 우화(寓話)는 인간의 정황을 인간 이외의 사물들 사이에서 생기는 일로 사물들 사이에서 생기는 일로 꾸며 말하는 짧은 이야기로, 비교적 쉽게 파악되며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다. 한편, 우화(寓話)소설은 인격화된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드러내는 소설을 말한다.)안국선의 신소설 <금수회의록>

- 설총의 <화왕계>
- 김평섭의 <성북동 비둘기>
- 유리왕의 <황조가>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두터비 파리를 물고>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녀러신고요.
 어귀야 큰 디를 드디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내 가는 디 점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연대 : 미상(백제로 추정)
 ▶종류 : 3장 6구의 시가
 ▶작자 : 어느 행상인의 처
 ▶주제 :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
 ▶의의 :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의 가요.
 국문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노래.
 시조 형식의 원형을 가진 노래

▶시적 화자의 태도 : 이 작품과 유사한 주제를 가진 작품으로 기한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부역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인 백제의 부친가요 '선운산가'와 박제상의 아내가 치술령에 오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인 신라의 부친가요 '치술령곡'을 들 수 있다. 특히, '치술령곡'은 정읍사와 마찬가지로 배경 설화에 망부석(望夫石)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티프는 김소월의 '초혼(招魂)에 이어지고 있다.

전문해석 달이여 높이 좀 뜰오시어/ 아! 멀리 좀 비치옵소서 /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아! 진 곳을 디달까 두려워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 곳에든 놓고 오십시오
 아! 내 님 가는 그 길 저물까 두려워라 /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Related Links

■ 황조가, 찬기파랑가, 정읍사와의 공통점 - 자연물을 끌어들이어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 문학 제재로서의 달의 이미지

1. 기원의 대상 : <정읍사>, <원왕생가>
 - 남편의 안위를 '달'에 기원
 - 애뜻한 기원의 대상
2. 애상의 대상 : 이조년의 시조
 - 봄 밤의 애상적 정서를 표현
3. 우러림의 대상 : '찬기파랑가'
 - 기파랑의 인품을 '달'에 비유하여 추모
4. 서정적 분위기 조성 : 이호우의 달밤

● 달과 관련한 작품들

- ① 현대시, 장만영의 '달 포도 잎사귀' ② 현대시조, 이호우의 '달밤'
- ③ 고시조, 이조년의 '이화에 월백하고~'

● 정읍사의 '달'과 장만영의 달 포도 잎사귀의 '달'의 비교

▶ 『정읍사』의 '달'은 기다림과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 시의 '달'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정서를 계승하면서 더 참신한 감각과 결합해 있다. 포도와 그 잎사귀들에 스미고 쫓는 싱그럽고 호젓한 달빛은 생명력과 미적인 생성력을 함축하며, 고요하고 애수 어린 느낌을 준다.

순이 벌레 우는 고풍(古風)한 뜰에/달빛이 조수처럼 밀려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 바다 물처럼/푸른 /가을/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 넝쿨 아래 어린 잎새들이/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제망매가/찬기파랑가/안민가

작품 감상 제망매가

생사(生死) 길흔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느다 말스도
 묻다 니르고 가느덧고.
 어느 ㄴ술 이른 브르매
 이에 더에 뿌러딜 님근,
 흐든 가지라 나고
 가논 곧 모드론더.
 아야 미타찰(彌陀刹)아 맛보올 나
 도(道) 닷가 기드리고다.

- ▶ 연대 : 신라 경덕왕
- ▶ 종류 : 10구체 향가
- ▶ 성격 : 추도가
- ▶ 표현 : 비유법, 상징법
- ▶ 사상적 배경 : 불교 야미타 사상
- ▶ 주제 :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
- ▶ 의의 : 뛰어난 비유를 통해 인간고의 종교적 승화를 노래함

Related Links

■ 죽음을 소재로 한 작품들

- 고전문학 ①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② 월명사의 <제망매가> ③ 황현 <절명시> ④ 민요, '만가-애소리'
- 현대시

고은 <문의(文義)마을에 가서>	김남조 <목숨>	김소월의 <접동새>, <초혼>
김광균의 <은수저>	김현승 <눈물>	박목월의 <하관>, <이별가>
백석 <여승>	도종환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접시꽃 당신>	
신동집 <목숨>	이용악 <달 있는 계사>	정지용의 <유리창>

천상병의 <귀천(歸天)>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인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발견할 수 있는 시이다. 이 세상의 삶을 한 차례의 소풍으로 받아 들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돌아가야 하는 집, 하늘 나라에 대해 담담한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황동규의 <풍장(風葬)>1>-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죽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시신을 속세의 때와 얼룩이 묻어 있는, 정화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더러운 육신을 시간의 풍화작용에 맡겨 정화되기를 바란다. 화자는 죽음을 일상적인 생각처럼 공포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세속의 때를 벗기는 '정화(淨化)'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 현대소설 안수길 소설 <제3인간형>
 오상원 소설 <유예(猶豫)> 결말부('흰 눈위를 걷는 포로 아군 소대장')

■ 혈육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작품들

- 고전문학 월명사의 <제망매가>-누이의 죽음
- 현대시 김광균-은수저-아기의 죽음
 김현승-눈물-아들을 잃은 슬픔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품
 박목월의 '하관', '이별가' -아우를 잃은 슬픔
 이용악의 '벌레 소리로 가득차 있었다'-아버지의 죽음
 정지용의 '유리창'-자식을 잃은 슬픔
 송수권의 '산문에 기대어 서서'-누이의 죽음
 이성교의 시 '밤비1'-자식을 잃은 슬픔

작품 감상 | **찬기파랑가**

열치매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 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나리에
 기랑(耜郎)의 모습이 있어라.
 일로 나리 조약에
 낭(郎)의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누아져.
 아아, 잣가지 높아
 서리 모르시올 화반(花判)이여.

- ▶ 연대 : 신라 경덕왕
- ▶ 종류 : 10구체 향가
- ▶ 성격 : 추모시, 서정시, 추모가
- ▶ 주제 :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추모함
- ▶ 의의 :
 - ① 제망매가와 함께 표현 기교 및 서정성이 돋보이는 향가의 백미
 - ② 사뇌가(詞腦歌)라는 명칭이 붙어 '찬기파랑 사뇌가'라고도 불림

열치매 / 나타난 달이/흰구름 좇아 떠감이 아니야?
 새파란 내(川)에/ 기랑의 모양이 있어라!
 이로 냇가 조약에/ 낭의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과져.
 아오, 잣(栝)가지 드높아 /서리를 모르올 화랑장이여!

-양주동 해석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울시 수풀이여.
 일오(逸鳥)내 자갈 벌에서/ 낭의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김완진 해석

Related Links

■ 찬기파랑가와 시조와 연관성

찬기파랑가의 논리구조는 3단 구성으로, 시조의 3장 체계와 대응되며, 낙구의 감탄사에 의한 종결방식은 시조의 종장 첫 음보가 3음절의 감탄사로 시상을 끝맺는다는 점과 일치한다.

● 유사한 작품으로는 **향가** **득오곡**의 <모죽지랑가>와 **현대시** **신동엽**의 <산에 언덕에>가 있다.

작품 감상 | **안민가**

군(君)은 어비여,
 신(臣)은 득스살 어시여,
 민(民)은 얼흔 아히고 흐살디
 민(民)이 득을 알고다.
 구물스다히 살손 물생(物生)
 이홀 머기 다스라.
 이 싸홀 브리곡 어디 갈더 홀디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아오, 군(君)다이 신(臣)다이 민(民)다이 흐늘든
 나라악 태평(太平)흐니있다.

- ▶ 연대 : 신라 경덕왕 24년(765)
- ▶ 종류 : 10구체 향가
- ▶ 성격 : 유교적, 교훈적
- ▶ 표현 : 논리적, 직설적 어법
- ▶ 주제 :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길
- ▶ 의의 :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유일한 향가

- ▶ 갈래 : 고려 속요
- ▶ 형식 : 전 4연의 분연체
- ▶ 운율 : 3.3.2조의 3음보
- ▶ 별칭 : 귀호곡
- ▶ 주제 : 이별의 정한
- ▶ 출전: <악장가사> <악학편고> <시용향악보>
- ▶ 의의 : 이별의 애달픔을 소박한 정조로 노래한 이별가의 결조

작품 해제 |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글가 太平盛代(대평성덕)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글가 太平盛代(대평성덕)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선호면 아니 올세라.
 위 증글가 太平盛代(대평성덕)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요쇼셔 나는.
 위 증글가 太平盛代(대평성덕)

Related Links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은 고구려의 '황조가'에서 고려 속요인 '가시리', '서경별곡', 한시(漢詩)인 정지상의 송인(送人), 황진이 시조, 민요의 아리랑,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의 서정적 자아의 정서는 조금씩 다르다. '가시리'의 경우 자기 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통해 재회를 기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의 표출이 자연스럽게 소박하게 표현되어 있다.

● 가시리와 서경별곡의 비교

	가시리	서경별곡
공통점	-이별을 다룬 고려 속요 -형식 : 3음보, 3.3.2조, 여음구, 분절체 -화자 : 여성(인종의 여심)	
차이점	극기된 자기 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통한 재회 기약 (감정 절제하는 여인)	이별을 거부하는 현세지향적, 자기 중심적 이별가 (저돌적이고 직선적 여인)

● 가시리와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비교

	가시리	진달래꽃
표현 방법	직서적	반어적
태도	절망하지 않는 긍정적 자세	체념적, 소극적 자세

西京(서경)이 아즐가 西京(서경)이 서울히 마르느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닷곤딤 아즐가 닷곤딤 쇼성경 고외마르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괴시란딤 아즐가 괴시란딤 우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이하 후렴 생략>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츠리잇가 나는

즈믄 희를 아즐가 즘흔 희를 외오곰 녀신들

信(신)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는

大同江(대동강) 아즐가 大同江(대동강) 너븐디 몰라셔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흔다 샤공아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립난디 몰라셔

널빅예 아즐가 널빅예 연즌다 샤공아

大同江(대동강) 아즐가 大同江(대동강) 건넌편 고즐여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 ▶갈래 : 고려가요
- ▶운율 : 3음보
- ▶기타 : 2연이 정석가의 6연과 유사하다.
- ▶주제 : 이별의 슬픔(=恨)⇒전통적 정서

▶표현 :

- ① 각 구절 앞의 동일한 반복은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 ② "동동"이 시간구조로 짜여져 있다면 이 작품은 공간구조로 짜여져 있다.
 - ③ "남여상열지사"라 하여 삭제되기도 하였
- <정산별곡>과 함께 문학성이 뛰어난
-흔히 <가시리>와 함께 언급

Related Links

■ 이별의 정한

- 고대가요 <황조가>-피꼬리라는 매개체로 부각
- 고려가요 <가시리>의 정한-소극적이고 직선적이지만, 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통한 기다림의 정서
- 고려가요 <서경별곡>의 정한-저돌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여성의 어조로 이별을 거부하며 함께 하는 행복과 애정을 강조한다.
-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정한-가시리처럼 다시 돌아와 달라는 원망을 토로하지 않고 감정의 절제 및 자기 희생적 자세를 역설적으로 보인다.

- ▶ 갈래 : 향가계 가요
- ▶ 형식 : 3단 구성
- ▶ 주제 : 충절, 연군지사
- ▶ 의의
- 1. 10구제 향가의 전통을 있는 3단 구성의 가요
- 2. 충신연주지사(忠臣戀君之辭)
- 3. 유배 문학의 원류

- 1. 국문으로 기록된 고려가요 중 작자와 연대가 소상한 유일한 가요.
- 2. 소위 충신연주지사(忠臣戀君之辭)라 함.
- 3. 확실한 연대는 불분명하나 의종 즉위 10년 전후의 작품으로 추정.
- 4. 송강 정철(松江)의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 등은 이 정과정에서 원류하는 연주지사(戀主之辭)라 할 수 있다.

작품 해제 정과정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흐디 녀져라 아으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헛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Related Links

■ 유배문학.유배가사(流配文學)

신병, 노부모 봉양, 삭직, 당쟁에서의 패배 등으로 벼슬을 사양하고 향리나 전원예 돌아가 쓴 작품을 말한다. 원류 작품으로는 '정과정'을 들 수 있다. 우리 시가 사상 최초의 작품 <정과정>

- 명칭 : 귀양살이가 유형(流刑)인데 본래 귀양은 歸鄉(귀향)으로,
 - 1) 벼슬을 사양하고 향리나 전원예 돌아가거나
 - 2) 벼슬을 사양한 이유(신병, 노부모 봉양, 삭직, 당쟁에서 패배 등)

- 특징
 - 1) 온갖 고초와 고독감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함
 - 2) 당쟁의 산물로서 사대부들의 가장 쓰라린 생활감정의 표출
 - 3) 대개가 단순한 귀향이 아닌 형벌의 형식으로 유배지에서 지음
 - 4) 우리 시가사상 최초의 유배형식의 시가는 정서의 <정과정>
 - 5) 유배를 소재로 한 시조(율선도 시조)도 있음
 - 6) 대개 유배자 자신이 지은 것, 배행자(陪行者)가 지은 작품도 있음(북관곡)

● 계보 : 조위 -- 송강 -- 김춘택 -- 이진유 -- 안조원

●정과정의 창작 배경

정서가 역모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귀양을 가게 되자 의중은 "오늘은 어쩔 수 없으나, 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으므로, 정서는 의중에게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정서가 스스로 호를 과경(瓜亭)이라 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 노래를 '정과정'이라 이름했다. 또 곡조의 이름을 따서 삼진작(三眞夕)이라고도 한다.

작품 해제 | 정석가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샨이다. /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샨이다.
 선왕성덕(先王聖代)에 노니으와지이다.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눈 / 삭삭기 세물애 별헤 나눈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물 여히으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회 접두(接柱)흐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꿩거시아 / 그 고지 삼동(三同)이 꿩거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눈
 털스(鐵絲)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흐신 님 여히으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헛든 그즈리잇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즈리잇가.

- ▶형식 : 고려 속요
- ▶성격 : 축도가
- ▶주제 : 입파의 변함없는 사랑, <태평 성대의 기원>
- ▶의의
 - 영원 무궁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으로 가장 뛰어나다
 - 불가능한 사실을 전제로 한 완곡한 표현법을 살린 작품

Related Links

- ★규원가와의 공통점 :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의지 표현

▲김구의 시조<올해 다른 다리~>

올해 다른 다리 학기 다리 되도록애/ 거른 가마괴 해오라비 되도록애
 향복무강(享福無疆) 하샤 억만세(億萬歲)를 누리소서

▲작자 미상의 시조 <천세를 누리소서~>

천 세(千歲)를 누리소서, 만 세(萬歲)를 누리소서/ 무쇠 기둥에 꽃 피어 열음 열어 따들이도록 누리소서.
 그 밖에, 억만 세(億萬歲) 외에 또 만 세를 누리소서.

▲작자 미상의 시조 <바람 부르소서~>

바람 부르소서 비 올 바람 부르소서/ 가랑비 굿치고 굴근 비 드르소서
 한길이 바다히 되어 님 못가게 하소서

▲한용운의 <관송>

님이여, 당신은 백 번이나 단련한 금(金)결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별의 첫결음이어!

- 1.갈래 : 고려 속요, 서정시
- 2.형식 : 전8연의 분절체
- 3.운율 : 3.3.2조, 3음보
- 4.성격 : 현실도피적, 애상적
- 5.의의 : 고려인들의 삶의 애환을 반영한 작품
- 6.출전 : 약장가사, 약학편고, 시용향약보
- 7.제목 : 청산과 바다
- 8.주제 : 생의 고뇌와 비애

● 서정적 자아에 대해 이설(異說)

- ① 유랑민(流浪民)이라는 견해 : 청산에 들어가 머루나 다래를 따먹고 살아야 하는 민중의 괴로운 삶. 특히 유랑민의 처지를 나타낸 민요이다.
- ② 실연한 사람이라는 견해 : 실연의 슬픔을 잊기 위해 청산으로 도피하고 싶어하는 노래이다.
- ③ 지식인(知識人)이라는 견해 : 속세의 번뇌를 해소하기 위해 청산을 찾았고, 기적과 위안을 구하면서도 삶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지식인의 슬 노래이다. 이 경우라면 민요였으리라는 가정은 부정되고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표현으로 보아 창작 가요의 성격을 띤다

작품 해제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렁공 더렁공 흥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르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값대에 올라서 히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Related Links

■ AABA구조

노래하기 유형의 문학은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을 노래의 틀에 맞추어 표현한다. 이러한 틀로는 동한 음운의 반복, 음수나 음보의 반복, 유사한 어구의 반복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고려가요, 가시리처럼

가시리 가시리잇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A A B A 구조라 한다.

이는 반복 반복 변화 반복의 구조이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 ▲노세 노세 짚어서 노세<민요>
-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잇고<고려가요 가시리>
-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작자미상의 청산별곡>
- ▲형님온다 형님온다 보고싶은 형님온다<시집살이 노래>
-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년으 가난이야,
- ▲돈 봐라, 돈 봐라, 열씨고나 돈 봐라. <홍보가>
-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홍사용, 나는 왕이로소이다.>
-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김소월의 산유화>
-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갯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박두진의 해>

■ 감정이입(感情移入, empathy)

대상(곧, 자연계)과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감정을 저도 모르게 다시 그 대상과 인간에게 옮겨 놓고 마치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이 느끼는 것을 감정이입이라 한다. 예를 들어, 흐르는 시냇물은 소리를 늘 내며 흘러가지만, 감정을 느끼는 주체자가 슬플 때는 냇물 소리가 슬프게 느껴져 처량한 소리를 낸다고 하고, 주체자가 기쁠 때는 명랑한 소리를 내며 흘러간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 독자가 소설의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同一視)하여 그 주인공이 웃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자기도 같은 마음에서 따라 웃었다는 것, 또는 무섭게 쨍그린 배우의 얼굴을 보면서 관객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쨍그리는 것 등은 다 감정이입의 결과이다.

● 왕방언 시조

천만리(千萬里) 떠나면 길에 고운 님 여회옵고 / 내 마음 들 디 없어 냇가의 안자이다. / 저 물도 내 안 같도다 우러 밤길 네눗다.

- ▶연대 : 고려시대
- ▶갈래 : 고려속요
- ▶형식 : 비연시(非聯詩), 단연시(單聯詩)
- ▶운율 : 3음보
- ▶주제 : 어머니 사랑 예찬

작품 해제 | **사모곡**

호미도 늘히언마르논
 날궂티 들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
 위 덩더동성
 어마님궂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마님궂티 괴시리 업세라

호미도 날이지마는 / 닛같이 잘 들 리도 업습니다
 아바님도 어버이시지마는/ 위 덩더동성/ 어머니같이 아껴 주실 리 없어라
 아! 님이어 어머니같이 아껴 주실 리 없어라

Related Links

■ 다른 문학작품과의 관련

- 1) 목주가(木州歌) : 신라 부진가요. 사모곡과 내용에 있어 유사점이 있음
 . 유래 : 목주의 효녀가 계모에게 쫓겨난 후 어느 노파의 머느리가 되었는데, 친정 부모를 모셔다 봉양하고자 했으나 부모가 이를 만기지 않으므로 원망의 노래를 지음
- 2) 향가 : 감탄사의 위치로 보아 4구체 향가에 직접 落句가 결합된 형태
- 3) 고려가요 : 낙구 첫머리에 '아소 님하'가 쓰인 고려가요
 <정과정>, <사모곡>, <만진춘>, <이상곡> 등
- 4) 시조 : 기, 서, 결의 3장 배열형태와 시상전개법이 평시조의 형성과 관련

- ▶연대 : 고려시대
- ▶갈래 : 고려 속요
- ▶형식 : 전13연의 달거리 노래
- ▶구성 : 서사(연)의 본사(2~13연)
- ▶표현 : 영탄법, 직유법, 은유법
- ▶의의 : 최초의 달거리 노래 (월령체(月令體))
- ▶주제 : 임에 대한 송도(頌辭)와 연모(戀慕)

작품 해제 | **동동**

德(덕)으란 곶비에 받죽고, 福(복)으란 림비에 받죽고,
 德(덕)이어 福(복)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이하 후렴구 생략>

正月(정월)스 나릿뜨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흥올로 녀셔.

二月(이월)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스불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三月(삼월) 나며 開(개)흔 아으 滿春(만춘) 들릿고지여.
 닛미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四月(사월) 아나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녹사)니문 넷 나를 닛고신더.

五月(오월) 五日(오일)애 아으 수릿날 아츰 藥(약)은
 즈른 힐 長存(장존)흐살 藥(약)이라 받죽노이다.

六月(유월)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적곰 좃니노이다.

七月(칠월)스 보로매 아으 百種(백종) 排(배)하야 두고,
니물 혼 디 녀가져 願(원)을 비습노이다.

八月(팔월)스 보로몬 아으 嘉俳(가배) 나리마룬,
니물 피셔 녀곤 오늘낫 嘉俳(가배)샷다.

九月(구월) 九日(구일)애 아으 藥(약)이라 먹논 黃花(황화)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하애라.

十月(시월)애 아으 저미연 브룻 다호라.
것거 브리신 後(후)에 디니실 혼 부니 업스샷다.

十一月(십일월)스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한삼) 두퍼 누워
슬홀스라운더 고우닐 스괴옴 녀셔.

十二月(십이월)스 분디남궤로 갓곤, 아으 나슬 盤(반)잇 저 다호라.
니미 알픽 드러 열이노니, 소니 가재다 므르습노이다.

- ▶갈래 : 경기체가
- ▶짜임 : 전 8장, 매장은 전대절과 후소절로 된 6구체 율격은 3.3.4조
- ▶성격 : 귀족적, 향락적, 풍류적, 과시적
- ▶내용 : 전 8장은 각각 1-시부, 2-서적, 3-명필, 4-명주(名酒), 5-화제, 6-음악, 7-누각, 8-추천등의 팔경(八景)을 노래함
- ▶주제 : 귀족들의 사치스런 생활상과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기풍, 신진사류(新進士類)들의 의욕적 기개 경탄
- ▶의의 : 최초의 경기체가로 귀족의 생활 감정을 표현, 가사 문학에 영향을 줌
- ▶표현상의 특징 : 열거법, 영탄법, 설의법, 반복법

① 元淳文(원순문) 仁老詩(인노시) 公老四六(공노소육)
 李正言(니정언) 陳翰林(딘한림) 雙韻走筆(쌍운주필)
 沖基對策(통기대척) 光鈞經義(광균경의) 良鏡詩賦(량경시부)
 위 試場(시당) 八景(경) 이 엮더하니잇고.
 葉(엽) 琴學士(금혹스)의 玉笋門生(옥순문싱) 琴學士(금혹스)의 玉笋文生(옥순문싱)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제1장>

② 唐漢書(당한서) 莊老子(장로즈) 韓柳文集(한류문집)
 李杜集(니두집) 蘭臺集(난대집) 白樂天集(백락던집)
 毛詩尚書(모시상서) 周易春秋(주역춘추) 周戴禮記(주대례기)
 위 註(주)조쳐 내 외음(경) 이 엮더하니잇고.
 葉(엽) 太平廣記(대평광기) 四百餘券(스백여권) 太平廣記(대평광기) 四百餘卷(스백여권)
 위 歷覽(력남) 八景(경) 이 엮더하니잇고. <제2장>

③ 黃金酒(황금주) 栢子酒(빅즈주) 松酒醴酒(송주례주)
 竹葉酒(독엽주) 梨花酒(리화주) 五加皮酒(오가피주)
 鸚鵡盞(잉무잔) 琥珀盃(호박배)에 ㄱ득 브어
 위 勸上(권상) 八景(경) 이 엮더하니잇고.
 葉(엽) 劉伶陶潛(류령도잠) 兩仙翁(량선옹)의 劉伶陶潛(류령도잠) 兩仙翁(량선옹)의
 위 醉(취)혼 八景(경) 이 엮더하니잇고. <제4장>

④ 紅牡丹(홍모단) 白牡丹(빅모단) 丁紅牡丹(딩홍모단)
 紅芍藥(홍작약) 白芍藥(빅작약) 丁紅芍藥(딩홍작약)
 御柳玉梅(어류옥미) 黃紫薔薇(황즈장미) 芷芝冬柏(지지동빅)
 위 間發(간발) 八景(경) 이 엮더하니잇고.
 葉(엽) 合竹桃花(합독도화) 고온 두 분 合竹桃花(합독도화) 고온 두 분
 위 相映(상영) 八景(경) 이 엮더하니잇고. <제5장>

수 唐唐唐(당당당) 唐楸子(당추즈) 皂莢(조협) 남피
 紅(홍)실로 紅(홍)글워 톨요이다.
 혀고시라 밀오시라 鄭少年(딩소년)하
 위 내 가는 디 늬 갈세라.
 葉(엽)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쌍수) 八길헤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쌍수) 八길헤
 위 携手同遊(휴슈동유) 八景(경) 이 엮더하니잇고. <제8장>

① 유원순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륙병려문. /이규보와 진화의 쌍운을 맞추어 내려간 글./유충기의 대책문, 민광균의 경서 해의(解義), 김양경의 시와 부/아아, 과거 시험장의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참으로 굉장합니다.)/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많은 제자들./아아, 나를 위시하여 몇분입니까?(참으로 많습니다.)
 ② 당서와 한서, 장자와 노자, 한유와 유충권의 문집, 이백과 두보의 시집, 난대영사(令使)들의 시문집, 백락천의 문집, 시경과 서경, 주역과 가 춘추, 대대례와 소대례./아 이러한 책들의 주석까지 포함하여 내쳐 외는 광경이 그 어떠합니까?/대평광기 400여 권을, 대평광기 400여 권을 /아, 열람하는 광경이 그 어떠합니까?
 ③ 황금빛 도는 술-갓으로 빛은 술-술입으로 빛은 술-그리고 단술./갓입으로 빛은 술-배꽃 필 무렵 빛은 술-오갈피로 담근 술./앵무새 부리 모양의 자개껍질로 된 앵무잔과, 호박빛 도는 호박배에 술을 가득 부어./권하여 올리는 광경, 그것이아말로 어떻습니까?/진나라 죽림실현의 한 분인 유령과 도점이야 두 분 신신같은 늬은이로./아! 거나하게 취한 광경, 그것이아말로 어떻습니까?
 ④ 붉은 모란-흰 모란-질퍽은 모란/붉은 작약-흰 작약-질퍽은 작약/늬수버들과 옥매, 노랑과 자주의 정미꽃-지란과 영지와 동백./아! 어우러져 핀 광경 그것이아말로 어떻습니까?/합죽과 복숭아꽃 고온 두 允에 담긴 자태가./아! 서로 어리버리는 광경, 그것이아말로 어떻습니까?
 ⑤ 호두나무, 취엄나무에다/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매었습니다/그네를 당기시라 밀어시라 월자패인 정소년이여./아! 내가 가는 곳에 남이 갈까 두렵구려./마치 옥을 깎은 듯이 가려낸 아리따운 두 손길에, /아! 옥같은 손길 마주 잡고 노니는 광경, 그것이아말로 어떻습니까?

도이장가 -예 종

니물 오을오슬븐
 무수든 굶하늘 밋곤
 녀시 가사디
 사막산 벼슬마 쏘흔져
 바라며 아리아
 그 뻑 두 功臣어
 오라나 고든
 자취는 나토산더

 임을 완전하게 하신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치고
 낮은 갔지만
 내려 주신 벼슬이야 또 대단했구나
 바라다 보면 알 것이다
 그 때의 두 功臣이여
 이미 오래 되었으나
 그 자취는 지금까지 나타나는구나

도이장가(悼二將歌) : 1120년(예종 15년)에 고려 예종이 지은 향찰식 표기의 가요. 신승겸(申崇謙)의 행적을 기록한 문헌 <평산신씨장절공유사(平山申氏壯節公遺事)>에 그 제작 동기에 관한 소상한 기록과 함께 작품이 전한다. 창작 경위에 관해서는 그 밖에도 <고려사> 권 14, <명신행적(名臣行蹟)>,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등에 간략하게나마 보인다. 예종이 서경의 팔관회(八關會)에 참관했을 때 허수아비 둘이 관복을 갖추어 입고 말에 앉아 뜰을 뛰어다녔다. 이상히 여겨 물으니, 좌우에서 다음과 같이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 둘은 신승겸과 김락으로, 태조 왕건이 견훤과 싸우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왕건을 대신해서 죽은 공신이다. 그래서 그 공을 높이고자 태조 때부터 팔관회에서 추모하는 행사를 벌였다. 태조는 그 자리에 두 공신이 없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풀로 드 공신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복식을 갖추고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랬더니 두 공신은 술을 받아 마시기도 하고 생사와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예종이 감격해서 한시와 함께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이 작품의 현대어 풀이는 다음과 같다. "님을 온전하게 하온 /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치니 / 낮이 가셨오되 / 몸 세우시고 하신 말씀 / 직분 맡으려 할 잡는 이 마음 새로워지기를 / 좋다. 두 공신이여 / 오래 오래 곧은 자취는 나타내신져."

이 작품에 대한 주요 쟁점은 장르적 성격과 형식에 관한 것이었다. 장르에 관한 문제는 이 작품을 향가로 볼 것인가 고려 가요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향가로 보는 근거는 표기법이 향찰식이라는 점과, 형식이 향가의 8구체와 같다는 데 있다. 고려가요로 보는 근거는 창작 연대가 신라의 향가와 너무 떨어져 있고, 형식을 향가의 8구체와 동질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향가는 3음절 중심임에 비하여 이 작품은 2음절 중심이라는 데 두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장르적 성격 판단의 기준으로 걸로 드러난 형태에 둔 점이다. 종래에 2연시로 보아 왔던 이 작품이 앞의 해독에 따르면 단연시로 파악된다. 뒷부분의 "좋다. 두 공신이여"는 사뇌가(詞腦歌)에서 차사(嗟辭)로 시작되는 이른바 후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적 유형에 따라 이 작품은 사뇌가에 맥락에 닿으므로 향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작품에 표출된 미의식은 숭고(崇高)이다. 오로지 임(태조 왕건)을 온전하게 하겠다는 충성심이 하늘 끝까지 미쳤기에 두 공신의 장렬한 죽음은 값진 것이며, 죽음의 비극을 초월하여 숭고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죽음은 순간적인 것이나, 곧은 자취 곧 충절은 영원한 것으로 하여 완전히 극복될 수 있다. 제작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팔관회와의 관련이나 주술제의적 측면, 제5행에 드러난 가상(假像)의 주술적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 작품은 특히 주술적 숭고미를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영웅적인 인물이 현실과 죽음을 초극하는 장엄한 행위는 인격적

송고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이 작품은 현전하는 것 중에서 임금이 지은 가장 오래된 향가로, 제작 연대와 제작 경위가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

상저가

들귀둥 방해나 디히 히애
 게우즌 바비나 지서 히애
 아버님 어머니의 받잡고 히야해
 남거시든 내 머고리 히야해 히야해
 - 時用鄉樂譜

덜커덩 방아나 짚어 히에/거친 밥이나 지어 히애/아버님 어머니께 바치
 읍고 히야해/남거든 내 먹으리 히야해 히야해

고려 시대 속요의 하나.<시용향아보>에 가사와 악보가 전한다. 이 노래는 사설의 내용으로 보아 방아타령의 일종으로 추정되며 시설의 뜻은 '들커덩 소리나는 방아지만, 하찮은 밥이라도 지을 수 있음이 다행이로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먼저 밥상을 차려드리고 남는 것이 있거든 내가 먹으리다.'로 되어 있다.

이 사설은 민요의 선소리와 뒷소리를 연상시켜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같은 사설은 평조의 악조로써 16정간보 16행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1976년 김기수에 의해 편곡, 재현되었는데 김기수는 <시용향악보> 등에 전하는 <상저가>를 고악보의 내용에 근거하고, 나름대로의 재해석을 통하여 관현악 반주를 수반하는 중창 형식으로 재구해 내었던 것이다. 이 음악이 <한국음악> 제 7집에 전한다.

쌍화점

雙花店에 雙花 사라 가고신던
 回回 아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슴미 이 店뵈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갓 샷기 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 거디러 다로러
 기 잔 디?티 덤스거츨니 업다

三藏寺에 브를 허라 가고신던
 그 덜 社主 |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덜뵈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갓 샷기 上座 |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잔 디?티 덤스거츨니 업다

드레 우므레 므를 길라 가고신던
 우뵈 龍이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우뵈뵈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갓 드레바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곡 잔 디 7티 덤스거츠니 업다

술폴 지브 수를 사라 가고신던
그 짓 아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집밖의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조고맛간 식구비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곡 잔 디 7티 덤스거츠니 업다

□ 전문해석

만두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만/회회(몽고인) 아버 내 손목을 쥐었어요/이 소문이 가게 밖에 나며 들며 하면/다로러거디러 조그마한 새기 광대 네 말이라 하리라/더러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위 위 다로러 거디러 다로러/그 잔 데 같이 답답한 곳 없다

삼장사에 불을 켜러 갔더니만/그 절 지주 내 손목을 쥐었어요/이 소문이 이 절 밖에 나며 들며 하면/다로러거디러 조그마한 새기 상좌 네 말이라 하리라/더러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그 잔 데 같이 답답한 곳 없다

두레 우물에 물을 길러 갔더니만/우물 용이 내 손목을 쥐었어요/이 소문이 우물 밖에 나며 들며 하면/다로러거디러 조그마한 두레박아 네 말이라 하리라/더러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그 잔 데 같이 답답한 곳 없다

술 파는 집에 술을 사러 갔더니만/그 집 아버 내 손목을 쥐었어요/이 소문이 이 집 밖에 나며 들며 하면/다로러거디러 조그마한 시궁 박아지야 네 말이라 하리라/더러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그 잔 데 같이 답답한 곳 없다 [악장가사. 가사 상] [시용향약보]

작품해설 고려 가요의 하나. 충렬왕 때의 작품으로 작자와 연대 미상으로 알아 왔으나 <고려사> 악지(樂志)에 한역(漢譯)된 <삼장(三藏)>이라는 노래의 내용과 꼭 같아 그 제작 연대가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왕이 연악(宴樂)을 좋아하여 오잠(吳潛).김원상(金元祥).석천보(石天輔) 등을 시켜 자주 노래를 짓게 했다는 점으로 보아 이 <삼장>, 즉 <쌍화점>도 그들의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노래를 고려 시대의 속요(俗謠)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전 4절로 된 이 노래는 퇴폐한 당시의 성(性) 윤리를 잘 나타냈으며 나아가 그것을 풍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현면에 있어서도 유창한 운율과 아울러 봉건시대의 금기(禁忌)이던 왕궁을 우물로, 제왕을 용(龍)으로 은유(隱喻)한 것은 뛰어난 표현이다. 이조 성종 때 음사(淫辭)라 하여 가사를 약간 고쳐 <악장가사(樂章歌詞)>에 전하고 있고, 어떤 문헌에는 <쌍화점(霜花店)>이라한 곳도 있는데 쌍화점(혹은 상화)는 만두라는 뜻이다.

쌍화점 노래는 고려 충렬왕 때 궁중악의 하나로 상연되었던 가극의 대본이었다. 지은 사람은 충렬왕 5년에 승지였던 吳潛이었다. 이 노래를 불러야 했던 사람은 궁중에 적을 둔 男粧別隊였다. 남장별대는 노래기생, 춤기생, 얼굴기생으로 편성된 여자배우단 무대 이름은 香閣이었다....(중략)...무대가 뒤로 물러났으며, 장막을 지니고 있는 것

고려 사회의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어지럽게 된 것은 충렬왕조부터였으며, 충렬왕조에 두드러진 것은 몽고풍이 들어온 것이다. 쌍화점 가극도 몽고풍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쌍화점>노래 연구, 여중동, 고려시대의 가요 문학, 새문사, 1982.

이상곡

비오다가 개야 아 눈하 디신나래
 서린 석석사리 조본 굽도신 길헤
 다롱디우셔 마득사리 마두너즈세 너우지
 잠짜간 내니물 너겨
 깃든 열명길헤 자라오리잇가
 종종벽력싱함타무간(霹靂 生陷墮無間)
 고대서 식여딜 내모미
 종(벽력)霹靂 아 싱함타무간(生陷墮無間)
 고대서 식여딜 내모미
 내님 두습고 년뉘를 거로리
 이러쳐 더러쳐
 이러쳐 더러쳐 기약(期約)이잇가
 아소 님하 훈디 녀젓 기약(期約)이이다

비 오다가 개어 아! 눈이 많이 내린 날에/영킨 수풀 휘돌아 가는 좁은 길에
 다롱디우셔 마득사리 마두너즈세 너우지/깊은 잠을 따 간 아속한 님을 그리어
 그런 무서운 길에 자러오(가)리까/때때로 벼락 소리 나는데 아! 무간 지옥에 떨어져
 즉시로 죽어 없어질 내 몸이/때때로 벼락 소리 나는데 아! 무간 지옥에 떨어져
 즉시로 죽어 없어질 내 몸이/내 님 두고 다른 산길을 걸으리오
 이리할까 저리할까/이리할까 저리할까 (어떤 것이 우리들의) 기약인가요
 아소 님이여 함께 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약입니다

작품해설 고려 가요의 하나. 작자.창작연대 미상이나 일설에는 충숙왕 때(14세기)의 채홍철(蔡洪哲)이 지은 노래라고도 한다. <악장가사(樂章歌詞)>에 가사가 <대악후보(大樂後譜)>에 음악이 전한다.

전 39행으로 된 음악은 종지와 여음(17행, 28행과 29, 34, 38, 39행)에 의하여 4장(鼓型:鼓, 鞭, 雙)은 진작(眞勺)과 같다고 전한다. 조선조에 이르러 <자하동(紫霞洞)>, <동동(動動)>과 더불어 향악을 연주할 악공 취재(樂工取才)의 시험곡으로 사용되었으나, 성종 때에 가사가 남녀 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 하여 음사(淫辭)로 취급되어, 1493년(성종 24) 8월까지의 곡조만 남았다가 그 시기에 완성된 <악학궤범>에는 '이상(履霜)'이라는 노래의 이름마저 삭제하였다. 이 노래의 가사는 여자가 묻고 남자가 답하고, 마지막으로 여자가 다짐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어, 여자와 남자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비오다가 개고 눈이 펄펄 휘날리는 날에 /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고불고불 돌아나는 좁다란 길에 / 잠을 앗아간 내 님을 생각할 사이이거늘 / 그처럼 무시무시한 길에 자려고 오겠나이까.", "때때로 천벌을 받아 영락없이 지옥에 떨어져 그곳에서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이내 몸이 / 내 님 두고서 다른 산에 올라가겠느냐 / 이 모두가 하늘이 낳은 연분의 기약인 데 님이시여, 함께 지내고자 하는 기약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아소 님이시여, 함께 지내고자고 했던 기약이 있을 뿐이외다."

이 노래에서 뜻을 잡기가 어려운 곳이 '깃든 열명길'이라는 말이다. 이 노래의 어울림 소리(和聲二有聲無詞)는 '다롱디우셔 마득사리 마두너즈세 너우지'이다. '다롱디우셔'는 '다롱' 계열의 어울림 소리로 흥겨운 가락을 담은 것이고, '마득사리 마두너즈세 너우지'는 바삭바삭 소리를 내면서 서로 엮이락뒤치락하는 움직임 느끼게 한다. 서리를 밟는다는 뜻인 '이상'이라는 말은 '서리를 밟게 되면 장차 단단한 얼음의 계절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경계의 교훈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말의 출처는 <주역> 곤괘초육(坤卦初六)에서 나온 것이다. 곤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어서 땅의 바탕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를 두고 말할 때 여자 쪽이 되는 것이다. 부드럽고 순하면서도 정조를 굳세게 지키는 것이 땅의 이치요, 여자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일깨우는 것이어서 고려 궁중악이 되기도 하였으나, 표현이 음란하여 조선 궁중악에서는 배척을 당하였다.

만전춘별사

어름 우희 댓납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려 주글만덩
 어름 우희 댓납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려 주글만덩
 情둔 오눓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耿耿孤枕上애
 어느 즘미 오리오
 西窓을 여러흐니
 桃花 | 發흐두다
 桃花은 시름업서 笑春風흐는다 笑春風흐는다

넉시라도 님을 훈디
 녀넛景 너기다니
 넉시라도 님을 훈디
 녀넛景 너기다니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곳 열면 여흘도 도흐니 여흘도 도흐니

南山애 자리 보와
 玉山을 베퍼 누어
 錦繡山 니블 안해
 麝香 각시를 아나 누어
 藥든 가슴을 맛초읍사이다 맛초읍사이다

아소 님하 遠代平生애 여힐 슬 모르읍새

□ 다른 전문

어름우희 댓납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려주글만덩
 어름우희 댓납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려주글만덩
 情둔 오눓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耿耿孤枕上애 어느 즘미 오리오
 西窓을 여러흐니 桃花 | 發흐두다
 桃花은 시름업서 笑春風흐는다 笑春風흐는다

넉시라도 님을 훈디 녀넛景 너기다니
 넉시라도 님을 훈디 녀넛景 너기다니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 온다
 소곳 열면 여흘도 도흐니 여흘도 도흐니

南山애 자리 보와 玉山을 베퍼 누어

錦繡山 나불 안해 麝香각시를 아나 누어
南山에 자리 보와 玉山을 머여 누어
錦繡山 나불 안해 麝香각시를 아나 누어
藥든 가슴을 맞초읍사이다 맞초읍사이다

아소 님하
遠代平生애 여힐슬 모르읍새

- 樂章歌詞

□ 해석

얼음 위에 맺잎 자리 만들어/님과 내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잎 자리 만들어/님과 내가 얼어 죽을망정 /정 나눈
오늘 밤 더디 새시라 더디 새시라

뒤척 뒤척 외로운 침상에/어찌 잠이 오리오/서창을 열어보니/복사꽃 피었도다/복사꽃은 시름 없이 봄바람 비웃네 봄바람
비웃네/

넋이라도 님과 함께/지내는 모습 그리더니/넋이라도 님과 함께/지내는 모습 그리더니/우기시던 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
까

오리아 오리아/어린 비오리아/여울일랑 어디 두고/못(沼)에 자리 오느냐/못이 얼면 여울도 좋거니 여울도 좋거니

남산에 자리 보아/옥산을 베고 누워/금수산 이불 안에/사향 각시를 안고 누워/약 든 가슴을 맞추옵시다 맞추옵시다

아! 님이여 평생토록 여윌 줄 모르고 자넵시다

작품해설 작자.연대 미상의 고려 속요. 모두 5연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을 아우르면서 종결짓는
결사(結詞)가 마지막에 추가되고 있어 이것을 독립된 연으로 볼 경우 6연이 된다.각 연은 형식
상으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시어도 이질적이며 의미론적으로도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이 작품의 형성이 여러 이질적이고 독립적인 당대의 유행 노래를 궁중의 속악 가사로 합성,
편사(編詞)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한편 이와는 달리 이 작품이 전강(前腔).후강(後腔).대
엽(大葉)의 3부분으로 가창됨을 주목하여 전체 작품을 초.중.종장의 3장 형태로 재편함으로써
형태적 통일성을 찾아 한 편의 정제(整齊)된 작품으로 보기도 하나 그것은 연간(聯間)의 의미
론적 긴밀설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내용은 남녀간의 애정을 적나라하게
노래한 것으로 노골적이고 퇴폐적이 표현 때문에 조선시대 사대부에 의하여 음사(淫辭)로 규
정되어 배척되고 새로운 만전춘사로서의 <봉황음(鳳凰吟)>을 짓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
다. 남녀 사이의 강렬한 사랑을 비유와 상징, 반어와 역설, 감각적인 언어로 적절히 구사하고
있음이 돋보인다. 그리고 이 노래의 2연과 5연이 시조 양식에 접근하는 형태를 보여준다고
하여 시조 장르의 기원을 찾는 자료로서 주목되었고 이 노래가 민요.속요.시조.한시.경기체가.
향가 등 당시대의 기존 장르를 다양하게 수용하여 양식적으로 변용한 장르 복합체의 양상을
보이는 가요로 규명된 바도 있다. 또한 이 노래는 광의의 시조 양식이 속요(속악가사)에 개
입된 것으로 보아 쇠퇴기의 속요 작품일 것이라 추정하기도 라하고, 혹은 여러 이질적인 가요
의 잡연한 편사라는 점에서 초창기의 속요로 보기도 한다. 이 작품에 별사(別詞)라는 명칭이
붙어 <약장가사>와 <시용향악보>에 그 가사가 전하는데, 이는 조선의 사대부에 의해 한문 악
장으로 지어진 <만전춘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별도의 우리말로 된 노래 가사임을 명시하기 위
한 지칭으로 보인다.

유구곡

비두로기 새는
비두로기 새는
우루믈 우루디
버곡당이사
난 도해
버곡당이사
난 도해

비두로기 새는
비두로기 새는
우루믈 우루디
버곡당이사 난 도해
버곡당이사 난 도해

비둘기 새는/비둘기 새는/울음을 울지만/삐죽이랴아/난 좋아/삐죽이랴아/난 좋아
[시용향악보 (속칭 비두로기)]

관동별곡

■ 안축(安軸 : 1287-1348)이 충숙왕 15년(1328)부터 그 다음 해까지 강원도 존무사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원도의 절경을 보고 지은 노래이다. 전체 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변, 통천, 고성, 간성, 양양, 강릉, 삼척, 정선의 고을들, 즉 관동팔경을 묘사했다.

▷전8장중

제1장

해천중(海千重) 산만첩(山萬疊) 관동별경(關東別景)
벽유당(碧油幢) 홍련막(紅蓮幕) 병마영주(兵馬營主)
옥대경개(玉帶傾蓋) 흑삭홍기(黑朔+木紅旗) 명사로(鳴沙路)
위 순찰사경(巡察人景) 그 엇더하니잇고(幾何如)
삭방민물(朔方民物) 모의기풍(慕義起風)
위 왕화중흥사경(王化中興人景) 그 엇더하니잇고(幾何如)

■ 이 노래에서 지은이는 금강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관동팔경의 우아한 풍치를 찬양하고 절승경개를 이룬 자연 속에 노니는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관동별곡과 죽계별곡은 양반들의 한가한 생활 풍경과 현실도피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부정적 요소를 지니지만 아름다운 자연풍치에 대한 긍지와 사랑의 감정을 노래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죽계별곡

안축(安軸 : 1287-1348)이 자신의 고향 순흥의 경치를 노래한 작품이다. 창작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순흥이 순흥부로 승격하고 충숙왕의 태가 안장되었던 충숙왕 4년(1348)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순흥은 풍류의 고장임을 자랑하고, 누각 정자의 흥취, 향교에서 글 배우는 선비들의 모습, 기생들과의 취흥 등을 노래하며 좋은 세상에 즐겁게 지내자는 다분히 풍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문학적 경향은 관동별곡과 비슷하다.

▷전8장중

■ 제1장

죽령남(竹嶺南) 영가북(永嘉北) 소백산전(小白山前)
천재흥망(千載興亡) 일양풍류(一樣風流) 순정성리(順政城裏)
타대무은(他代無隱) 취화봉(翠華峰) 천자장태(天子藏胎)
위(爲) 양작중흥사경(釀作中興景) 그 엇더하니잇고(幾何如)
청풍두각(淸風杜閣) 양국두함(兩國頭銜)
위(爲) 산수고사경(山水高事景) 그 엇더하니잇고(幾何如)

이 작품은 전장 79구로 된 가사로, 작자가 태인에 돌아와 자연에 묻혀 살 때 지은 것으로,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하여 봄을 완상하고 인생을 즐기는 지극히 낙천적인 성격의 노래이다. 이 작품은 자연을 기리는 송가(頌歌)이면서 자연을 소재로 하여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즉, 은일지사(隱逸之士)의 한정(閑情)이 '벽계수', '녹양방초', '세우' 등의 자연적 배경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으며,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와 취락을 즐기는 작자의 유유자적한 생활이 효과적으로 그려져 있다.

- 갈래 : 서정가사, 정경가사, 양반가사
- 연대 : 성종
- 성격 : 주정적, 서정적
- 주제 : 봄의 완상과 안빈낙도
- 의의 :
 - ① 조선 시대 사대부 가사의 첫 작품
 - ② 산림 처사로서의 생활을 다루는 은일 가사의 첫 작품으로 사림과 문학의 계기를 마련한 작품
- 구성
 - * 제1단락: 서사, 풍류 생활을 즐기는 은일 지사의기상
 - * 제2단락: 봄 경치와 이에 몰입
 - * 제3단락: 봄 경치를 즐기는 상춘취락
 - * 제4단락: 결사, 안빈낙도
- 표현상의 특징
 1. 설의법, 의인법, 대구법, 직유법 등의 여러 표현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
 2. 고사를 많이 인용하면서 작품 전체를 유려하게 이끌고 있다.
 3. 표기법은 창작 당대(15세기)의 그것이 아니고, 후손에 의해 <불우헌집>이 간행된 18세기의 음운과 어법에 따르고 있다.

Related Links

■ 안빈낙도를 노래한 작품들

안빈낙도(安貧樂道)란, 소극적으로는 수신 지분(修身持分)하는 경지요,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긍지(矜持) 속에서 도(道)를 즐기는 경지를 뜻한다. 이 가치관(價値觀)은 같은 유학적(儒學的) 관점이라도 실학적(實學的) 경제체민(經世濟民)의 관점에서 보면 안빈낙도관(安貧樂道觀)은 소극적 인생관이 되고, 도문적(道文的) 유학관(儒學觀)에 볼 때에는 구도자(求道者)의 적극적인 낙도관(樂道觀)이라 할 수 있다.

● 고전작품

정국인의 <상춘곡> 송순의 <변양정가> 박인로의 <누항사>

● 시조

성혼의 시조 <말 업슨 청산이요~/ 송순의 <십년을 경영하여~/>
 신희의 <산촌에 눈이 오니~/ 윤선도의 <만홍>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이정신의 시조 <메암이 뻗다 울고~/>
 한호의 시조 <짚방석 내지마라~/>

● 한시 : 두보의 <강촌>

● 현대시 : 김상용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

서사 | 소주제 | 풍월주인(風月主人)이 되어 지락(至樂)을 누리

① 紅塵(홍진)에 뭇친 분네 이 내 生涯(생애) 엇더흔고, 넷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 男子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에 뭇쳐 이서 至樂(지락)을 므를 것가. 數間茅屋(수간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얹피 두고, 松竹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¹⁾ 되어서라.

[지문해석] 세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고? 옛 사람의 풍류를 따를 것인가 못 따를 것인가? 천지간 남자의 몸이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다는 말인가? 초가삼간을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와 대나무 울창한 속에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본사 1 | 소주제 | 한중진미의 생활

②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꺾여 있고, 綠楊芳草(녹양방초)는 細雨中(세우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럽다.

[지문해석] 엇그제 겨울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저녁 햇살 속에 피어 있고, 푸르른 버들과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프르도다. 칼로 오려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조물주의 신비한 공덕이 사물마다 아단스럽다. ■ 본사 ① : 봄의 아름다운 경치

③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뭇내 게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일체)어니 興(흥)이이 다룰소냐.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에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음영)²⁾ 하야, 山日이 寂寂(적적)흔디, 閒中眞味(한중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지문해석]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뭇이기에 소리마다 아양떠는 모습이로다.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흥이 이와 다르겠는가? 사립문 앞을 이리저리 걸어도 보고, 정자에 안자도 보니,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려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한 가운데 맛보는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없이 혼자로다. ■ 본사 ② : 봄의 흥취

④ 이바 니웃드라 山水 求景(구경) 가자스라. 踏青(답청)³⁾으란 오늘 흥고, 浴沂(욕기)⁴⁾란 來日(하루) 흥새. 아침에 採山(채산)하고, 나조히 釣水(조수) 흥세. 窞 괴여 닉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밧타 노코, 窞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1) 속세를 떠나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초가삼간(數間茅屋)과 의미가 통한다.
 2) 중국의 莊周(장주)가 지은 『莊子』의 '逍遙遊(소요유)' 편과 관련된 말로 속된 세상을 초월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에 마음을 노닐게 하는 췌인(지인)의 경지를 말한다.
 3) 삼월 삼짇날의 한 행사로 보리밭기를 말한다.
 4) 論語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하루는 가까운 제자들을 앉혀 놓고 평소의 포부를 물었더니, 자로를 비롯한 좌중의 제자들이 모여 정치적 야심을 토로하였는데 비하여, 증점이라는 제자는 "늦은 봄에 봄옷을 갈아입고 젊은 사람 66인(제자들)과 沂水(기수)에서 沐浴(목욕)하고, 기우제(祈雨祭) 터에 올라 바람을 쐬고, 시를 읊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였더니 孔子가 "나는 점(증점)에게 편들마." 하였다.

지문해석 여보시오.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풀 밟기는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하세. 아침에 산나물 캐고, 낮에는 낚시질 하세. 막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따뜻한 바람이 문득 불어 푸르른 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잔에 지고, 떨어지는 꽃잎은 옷에 진다. | 본사 ③ : 산수구경 권유

수 樽中(준중)이 뒤엎거든 날드려 알외어라. 小童(소동) 아히드려 酒家(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완보) 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청류)를 굽어보니 셔오느니 桃花(도화) | 로다. 武陵(무릉)¹⁾이 갓갓도다, 저 락이 낀 거인고.

지문해석 본사 ④ : 술과 풍류 | 술독이 비엎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어린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나직이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소 시냇가에 혼자 앉아, 깨끗한 모래 위를 흐르는 맑은 물에 잔 씻어 (술) 부어 들고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내려 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아마도 저 락이 그것인 것인고.

⑥ 松間細路(송간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속기 앉아 보니, 千村萬落(천촌만락)이 곳곳이 버려 잇너. 煙霞日輝(연하일휘)는 錦繡(금수)를 재팠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 할샤.

지문해석 본사 ⑤ : 산봉우리에서의 조망 | 소나무숲으로 난 가느다란 길에 진달래꽃을 붙들어 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널려 잇네. 아름다운 자연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엇그제까지만 하여도 겨울 들판이든 것이 (이제 보니) 봄빛이 넘쳐흐르는 도다.

결사	소주제	안빈낙도의 생활에 만족함
----	-----	---------------

⑦ 功名(공명)도 날 썩우고, 富貴(부귀)도 날 썩우니, 清風明月(청풍명월) 外(외)에 엇던 벗이 잇스울고. 簞瓢陋巷(단표누항)²⁾에 훗튼 혜음 아니 하너. 아모타, 百年行樂(백년행락)이 이만흔들 엇지하리.³⁾

지문해석 결사 | 공명도 날 썩리고, 부귀도 날 썩리니, 청량한 바람과 밝은 달 이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청빈한 선비의 살림에 헛된 생각 아니하네.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일이 이만하면 어떠한가.

Related Links

※주제와 객체가 뒤바뀌어 있는 것

- 조지훈의 민들레꽃
가닭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노오란 민들레꽃 한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아 얼마나한 위로이라/ 소리쳐 부를수도 없는 이 아득한 거리에/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 오느니.

1) 춘경(春景)에 도취된 심경을 나타낸 것. 도화(桃花)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의 준말이다. 진나라 사람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로 '별천지(別天地)' 또는 '선경(仙境)'의 의미로 풀이된다.
2) 簞瓢(단표)는 '一簞食 一瓢飲(일단사 일표음)'의 준말로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마실 물'이라 풀이할 수 있는 말이다. 즉, 보잘 것 없는 음식을 의미한다. 陋巷(누항)은 '누추한 거리'라는 뜻으로 자신이 사는 거리를 낮추어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논어』에 나오는 것으로 공자가 顔回(안회)의 생활 자세를 보고 칭찬한 말이다.
3) 시조의 종장과 같이 34, 44調의 4音步로 되어 있어 시조와의 영향 관계를 암시해 주는 부분인 동시에 이 작품이 양반가사이자 정경가사임이 입증된다.

[전문해석]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흔고. 넷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서 至樂(지락)을 못를 것가. 數間茅屋(수간 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앞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夕陽裏(석양리) 쾨여 잇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중)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興(흥)이 다탈소냐.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 음영)하야, 山日(산일)이 寂寂(적적)흔디, 閒中眞味(한중 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자스라. 踏靑(답청)으란 오늘 헝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 헝새. 아츰에 採山(채산)헝고, 나조히 조수(조수)헝새. 窶(괴)여 너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겨, 수 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樽中(준중)이 뷔엇겨든 날드려 알외여라. 小童(소동) 아히드려 酒家(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 완보)하야, 시냇ㄹ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청류)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桃花(도화) | 로다. 武陵(무릉)이 갓갑도다, 저 밭이 긴 거인고.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러 잇디.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錦繡(금수)를 재뻗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흐샤. 功名(공명)도 날 썬우고, 富貴(부귀)도 날 썬우니, 淸風明月(청풍 명월) 外(외)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단표누항)에 훗튼 혜음 아니 헝니. 아모타, 百年行樂(백년 행락)이 이만흔들 엇지헝리.

이 작품은 가사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賞春曲)'에서 자연 친화의 사상을 이어받은 이 작품은 그 후 정철(鄭澈)의 '성산별곡(星山別曲)'과 '관동별곡'을 잇는 교량적 구실을 한다. 특히 이 작품이 이르러서 자연미(자연미(自然美))를 발견하고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정서가 본격적인 표현을 얻어 그 뒤에 두고두고 모범이 되며 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을 듣고 있다.

- ▣ 연대 : 중종 19년(1524)
- ▣ 형식 : 가사(歌辭). 4 4(3 4)조를 기조로 한 4음보 연속체.
- ▣ 성격 : 양반 가사. 은일 가사(隱逸歌辭), 서정 가사(抒情歌辭)
- ▣ 표현 : 활유, 의인, 직유, 은유, 대구, 열거, 과장, 대조, 반복, 생략 등 다양한 수법 동원.
- ▣ 짜임 : 起承轉結의 4단 구성.
- ▣ 체재 : 면앙정(俛仰亭)의 자연의 승경(勝景)
- ▣ 주제 : 대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군은(君恩)
- ▣ 내용 : 면앙정(俛仰亭)이 있는 제월봉(霽月峰)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을 그린 다음, 그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를 근경(近景)에서 원경(遠景)으로 묘사하고 춘 하추 동(春夏秋冬) 사시(四時)의 계절 변화에 따라 짜임새 있게 묘사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경(絶景)에서 문혀 노니는 지은이의 호방한 정회(情懷)를 노래하였다.
- ▣ 출전 : 필사본 <雜歌>
- ▣ 의의 :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확립한 노래로, 정극인의 '상춘곡'의 계통을 잇고, 정철의 '성산별곡(星山別曲)'에 영향을 주었다.

◆ 구성

서사	제월봉과 면앙정의 형세
본사	1 면앙정에서의 승경 조망
	2 면앙정의 사시가경
결사	작자의 풍류 생활

Related Links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의 관계

'성산별곡'은 내용, 형식, 풍류, 어구, 시풍 등 다방면에서 '면앙정가'를 모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① 자연을 인간의 궁극적인 귀의처로 본 것, ② 사계절을 통한 자연미 발견, ③ 신선(神仙)의 경지에 드는 풍류의 극치를 맛보려 한 것-자연 친화(自然親和)의 도가 사상(道家思想)-등은 그대로 '면앙정가'에서 '성산별곡'으로 이어졌으며, 표현면에서도 '논듯, 거니 거니, 거든 마나' 등의 특수한 문체가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사 | 소주제 | 제월봉의 산세와 면양정의 모습

① 无等山(무등산) 흔 활기 뫼히 동 다히로 버더 이셔 멀리 췌쳐 와 齊月峯(제월봉)이 되어거늘 無邊大野(무변 대야)의 모습 짐작 흥노라 닐굽 구빅 흙딤 움쳐 므득므득 버러는 듯.

지문해석 제월봉의 위치와 형세 |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무등산을) 멀리 떼어 버리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는 넓은 들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일곱 굽이가 한데 움츠리어 우뚝우뚝 벌여 놓은 듯,

② 가운데 구빅는 굽기 든 늘근농이 선증을 꺾 췌야 머리를 언쳐시니 너르바희 우희 松竹(송죽)을 헤치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구름 든 靑鶴(청학)이 千里(천리)를 가리라 두 노래 버러는 듯.

지문해석 면양정의 모습 | 그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늘은 용이 선증을 막 깨어 머리를 얹어 놓은 듯 하며, 넓고 편편한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얹혀 놓았으니, 마치 구름을 탄 푸른 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 하다.

본사 1 | 소주제 | 면양정에서 바라보는 주위의 경치(공간적 구성)

③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느린 물이 亭子(정자) 앞 너븐 들히 울울히 퍼진 드시 넘췌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마나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칩펄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들는 듯 색로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지문해석 시냇물의 모습 |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잇달아) 퍼져 있으니, 넓거든 길지나, 푸르거든 희지나 말거나(넓으면서도 길며, 푸르면서도 희다는 뜻), 쌍룡이 몸을 뒤트는 듯, 긴 비단을 가득 펼쳐 놓은 듯, 어디로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려 가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다.

④ 므조친 沙汀(사정)은 눈췌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기러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盧花(노화)를 스이 두고 우러곰 좃니는노.

지문해석 기러기의 교태 | 물 따라 벌여 있는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하얗게 퍼졌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통행하려고 앉았다 내려갔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서로 따라다니는고?

수 너븐 길 밧기오 긴 하늘 아리 두르고 췌즌 거슨 피헨가 屏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듯 느즌 듯 근는 듯 닛는 듯 어즈러운 가운데 일흠는 양햏야 하늘도 져티 아녀 옷둑이 섰는 거시 秋月山(추월산) 머리 짓고 龍龜山(용구산) 夢仙山(몽선산) 佛臺山(불대산) 魚登山(어등산) 湧珍山(용진산) 錦城山(금성산)이 虛空(허공)에 버러거든 遠近(원근) 瘡崖(창애)의 머른 것도 하도 할샤.

지문해석 산봉우리의 승경 |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잇는 듯, 습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며,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며, 어지러운 가운데 유명한 체 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선 것이 추월산 머리 삼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여져 있는데, 멀리 가까이 푸른 언덕에 머문 것(펼쳐진 모양)도 많기도 많구나.

⑥ 흰구름 브흰 煙霞(연하) 프르니는 山嵐(산람)이라. 千庵(천암) 萬壑(만학)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장공)의 썬나거니 廣野(광야)로 거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斜陽(사양)과 섯거디어 細雨(세우)조차 쓰리난다.

[지문해석] 봄 풍경 | 흰 구름과 뿌연 안개와 놀, 푸른 것은 산아지랑이다.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을 삼아두고, 나머지며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기도 하며 내리기도 하며 넓고 먼 하늘에 떠나기도 하고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기도 하며,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짙으락 석양에 지는 해와 섞이어 보슬비마져 뿌리는구나.

⑦ 藍輿(남여)를 비야 타고 술 아리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흥는 적의 祿楊(녹양)의 우는 黃鶯(황앵) 嬌態(교태) 겨워 흥는고야. 나모 새 크즈지어 綠陰(녹음)이 얼린 적의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水面(수면) 涼風(양풍)이야 굿칠 줄 모르는가.

[지문해석] 여름 풍경 | 뚜껍 없는 가마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푸른 버들에서 지저귀는 피꼬리는 흥에 겨워 아양을 떠는구나. 나무 사이가 가득하여(우거져) 녹음이 영긴 때에 긴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어 퍼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구나.

⑧ 큰 서리 싸던 후의 산 빗치 錦繡(금수)로다. 黃雲(황운)은 쏘 엇디 萬頃(만경)의 퍼겨 디오.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들릴 썬파 브니는다.

[지문해석] 가을 풍경 | 흰서리 걷힌 후에 산빛이 수놓은 비단 물결 같구나. 누렇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넓은 들에 퍼져 있는고? 고기잡이를 하며 부는 피리도 흥을 이기지 못하여 달을 따라 부는 것인가?

⑨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막물커늘 造物(조물)리 흰스호야 氷雪(빙설)로 꾸며내니 瓊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의 버러세라. 乾坤(건곤)도 가움열사 간 대마다 경이로다.

[지문해석] 겨울 풍경 |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과 산이 묻혀 있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자연을 꾸며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 같은 눈에 덮인 아름다운 대자연이 눈 아래 펼쳐 있구나. 자연도 흥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다.

⑩ 人間(인간)을 썬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이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비름도 혀려 호고 들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낚고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딴 곳즈란 뉘 썬려뇨. 아춤이 낮브거니 나조히라 슬홀소냐. 오늘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호랴. 이 뉘히 안자 보고 더 뉘히 거러 보니 煩勞(번로)호믄 몸의 브릴 일이 아조 업다. 썬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야. 다만 호 靑藜杖(청려장)이 다 드디여 가노미라.

지문해석 자연애와 풍류 생활 |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쏘이려 하고, 달도 맞이하려고 하니, 밤은 언제 줄고 고기는 언제 낚으며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아침 나절 시간이 부족한데(자연을 완상하느라고) 저녁이라고 싫을소냐?(자연이 아름답지 아니하라) 오늘도(완상할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넉넉하라?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번거로운 마음이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은 버릴 것이 전혀 없다. 쉴 사이가 없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러 올) 길이나마 전할 틈이 있으랴. 다만 하나의 명아주 지팡이가 다 못쓰게 되어가는구나.

II 술이 익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불늪며 특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트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츠락 을프락 푼람헝락 노혜로 놀거니 天地(천지)도 넓고넓고 日月(일월)도 هنگ하다. 羲皇(희황) 모를러니 이적이야 괴로고야 神仙(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지문해석 취흥과 풍류 | 술이 익었거니 벗이 없을 것인가. 노래를 부르게 하며, 악기를 타게 하며, 악기를 끌어당기게 하며, 방울을 흔들며 온갖 아름다운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렸다 쪼갰다가, 시를 읊었다 휘파람을 불었다가 하며 마음놓고 노니, 천지도 넓고 넓으며 세월도 한가하다. 복희씨의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내더니 이 때야말로 그것이로구나. 신선이 어떻던가 이 몸이야말로 그것이로구나.

III 江山風月(강산 풍월) 거느리고 내 百年(백 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악양루) 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할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지문해석 호탕한 정회와 감군은 | 강산풍월 거느리고(속에 문혀)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이백이 살아온다 한들 넓고 끝없는 정다운 회포야말로 이보다 더할 것인가.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전문 해석]

无等山(무등산) 흔 활기 피히 동다히로 버더 이서 멀리 쟈쳐와 霽月峯(제월봉)이 되여
 거늘 無邊大野(무변대야)의 모습 짐작 호노라 닐곱 구비 흙더 움쳐 므득므득 버렸는 듯.
 가운데 구비는 굵기 든 늘근 용이 선증을 곳 썩야 머리를 언쳐시니 너르바회 우히 松竹
 (송죽)을 헤혀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구름 든 靑鶴(청학)이 千里(천 리)를 가리라 두
 노래 버렸는 듯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느린 물이 亭子 압 너븐 들히 울올히 퍼
 진 드시 넘써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마나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 펴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듣는 듯 색로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므조친 沙汀(사
 정)은 눈긋치 피엿거든 어즈러운 기리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누리락 모그락 훗
 트락 蘆花(노화)를 스이 두고 우리곰 좇니는노. 너븐 길 밧기오 긴 하늘 아리 두르고 소
 준 거슨 피힌가 屏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느즌 듯 근는 듯 닛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운 가온디 일흠 는 양하야 하늘도 짓터 아녀 옷독이 섯는
 거시 秋月山(추월산) 머리 짓고 龍龜山(용구산) 夢仙山(몽선산) 佛臺山(불대산) 魚登山
 (어등산) 湧珍山(용진산) 錦城山(금성산)이 虛空(허공)에 버리거든 遠近(원근) 蒼崖(창
 애)의 머븐 것도 하도 할샤. 흰구름 브흔 煙霞(연하) 프르니는 山嵐(산람)이라. 千巖(천
 암) 萬壑(만학)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누리거
 니 長空(장공)의 썩나거니 廣野(광야)로 거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斜陽
 (사양)과 섯거디어 細雨(세우)조차 쓰리난다. 藍輿(남여)를 비야 타고 술 아리 구반 길
 노 오며 가며 호는 적의 綠楊(녹양)의 우는 黃鸝(황앵) 嬌態(교태) 겨워 호는고야. 나모
 새 즈즈지어 綠陰(녹음)이 얼린 적의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水
 面(수면) 涼風(양풍)이야 극칠 줄 모르는가. 즈 서리 싸딘 후의 산 빗치 錦繡(금수)로다.
 黃雲(황운)은 또 엇디 萬頃(만경)의 퍼겨 디오.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들릴 쓰봐 브니
 는다.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미물커늘 造物(조물)리 현스호야 氷雪(빙
 설)로 꾸며내니 景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의 버리세라.
 乾坤(건곤)도 가음열사 간 대마다 경이로다. 人間(인간)을 썩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이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름도 혀려 호고 들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시비)란 누 다드며 진 곳츠란 누 쓸려노. 아춤이 낮브거니 나조
 히라 슬홀소냐. 오늘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호라. 이 피히 안자
 보고 더 피히 거러 보니 煩勞(번로)흔 므음의 브릴 일이 아조 업다. 설 사이 업거든 길히
 나 전호리야. 다만 흔 靑藜杖(청려장)이 다 므되여 가노미라. 술이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
 소냐. 불너며 특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지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
 시며 시름이라 브트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을프락 프람호락 노혜로 놀거니
 天地(천지)도 넓고넓고 日月(일월)도 호가호다. 羲皇(희황) 모를러니 이적이야 기로고
 야. 神仙(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기로고야. 江山風月(강산풍월) 거늘리고 내 百年
 (백 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악양루) 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浩蕩(호탕) 情懷
 (정회)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렇 굵도 亦君恩(역군은) 이샷다.

이 작품은 송강이 50세 되던 때에 물러나 4년간 전남 창평으로 내려가 지내며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작품으로,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으로 속편인 속미인곡과 함께 가사 문학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임금을 연모하는 연군지사(戀君之詞)인 이 노래는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를 여성으로 택하여 더욱 절절한 마음을 수놓고 있다. 임금을 임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미인곡은 멀리 고려 속 요인 '정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의 전통인 부재(不在)하는 입에 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시리', '동동' 등에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미인곡의 문학적 영향 문제는 일반적으로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서 그 의례적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사미인'이라는 제명도 '이소'의 제 9장에 있는 '思美人'이라는 편명과 같으며, 이소의 충군적 내용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이 작품은 언어, 형식, 표현 기법, 구조 등 모든 면에서 송강다운 문학적 개성이나 독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뛰어난 작품이다.



작품 해제

- ① 갈래-서정가사-양반가사-정격가사
- ② 성격-서정적, 연모적
- ③ 의의 - 속미인곡과 함께 가사문학의 절정을 이룸. → 우리말 구사가 뛰어남 / 정과정의 전통을 이은 충신연주지사 → 김만중 : 동방의 이소, 좌해 진문장 지차 삼편
- ④ 영향관계
 - ① 굴원의 이소 - 이소 제 9 장 제목 '사미인'
 - ② 충신연주지사라는 점에서 - 정서, 정과정. ⇨ 조위의 만분가를 모형으로 삼음. - 자기 처지를 천상 백옥경에서 버림받아 하계로 내려온 여인에다 비한 것이 그 증거.
 - ③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부재하는 입에 대한 희생적 사랑 표현 - 가시리에 접맥
- ⑤ 사상적 배경
 - ① 유교 - 추구하는 이념은 '忠'(연군의 정)
 - ② 불교 -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함. ('忠'의 실현 방법)
 - ③ 도교 - 표현 수법(천상 백옥경에서 버림받아 하계로 내려온 여인)

서사		임과의 인연과 이별후의 그리움	
본사	임(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춘원(春怨)	매화(충정)를 입에게 보내고 싶음	▷ 매화
	하원(夏怨)	임의 옷(정성)을 지어 보내고 싶음	▷ 옷
	추원(秋怨)	선정을 갈망함.	▷ 청광
	동원(冬怨)	추운 겨울 긴 밤에 임을 그리워함 → 외로움이 점점 깊어짐	▷ 양춘
결사	변함없는 충성심	▷ 범나비, 향	

④ 4계절 경물(景物)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는 연군의 정을, 이별한 입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에 기탁하여 읊음.

서사	소주제	서사 ① : 임과의 인연 ⇨ 서사 ② : 임에 대한 그리움 ⇨ 서사 ③ : 세월의 무상함
----	-----	---

①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緣연분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혼자 접어있고 님 혼자 날 괴시니, 이 맘을 이 스랑 견줄디 노여 업다.

지문해석 | 이 몸이 태어날 때에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함께 살아 갈 인연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다시 없다.

② 平平生生애 願원호요디 혼디 네자 호앗더니, 늙거야 무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옛그제 님을 피서 廣광寒한殿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었디호야 下하界계에 느려오니. 올저기 비슨 머리 얼키연디 三삼年년이라. 撚연脂지粉분 잇디마는 늘 위호야 고이 홀고. 맘음의 미친 실음 疊疊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人인生生은 有有限限 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지문해석 | 평생에 원하되 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옛그제는 님을 모시고 광한전(궁궐)에 올라 있었더니, 그 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창평)에 내려 왔느냐. 내려올 때에 빗은 머리가 형클어진 지 3년일세. 연지와 분이 있네마는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꼬?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이 한숨이오,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 인생은 한정이 있는데, 근심은 한이 없다.

③ 無무心혼 歲세月월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炎염涼涼이 세월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지문해석 |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가는구나.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의 바뀔 때를 알아 지나갔다가는 이내 다시 돌아오니,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낀 일이 많기도 많구나.

본사/결사	소주제	
-------	-----	--

④ 東동風풍이 건듯 부러 積적雪雪을 헤터내니, 窓창 밖기 심근 梅梅花화 두세 가지 피여세라. 긋득 冷냉 淡담혼 디 暗암香향은 무스 일고. 黃황昏혼의 들이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梅花화 것거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었더타 너기실고.

지문해석 본사 ① : (春怨) |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득이나 쌀쌀하고 담담한데, 그윽히 풍겨오는 향기는 무슨 일인고? 황혼에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느껴 우는 듯, 반가워 하는 듯 하니, (이달이 바로)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 내어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꼬?

Related Links **매화(梅花)를 소재로 다룬 작품들**

- ▶ 안민영 연시조 <매화사> --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미치 안앗더니> ,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의 네로구나.>
 - ▶ 이색의 시조 <백설이 잦아진 골에 --- > 중장
 - ▶ 기생 '매화' 시조 <매화 빛 등걸에 봄결이 도라오니>
 - ▶ 정철 가사 <사미인곡>
 - ▶ 허난설헌 가사 <규원가>
 - ▶ 이태준의 수필 <매화>
 - ▶ 이육사 <광야> 제4연
-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눈 - 매화 향기(고고하게 피어 향기를 발하는 매화와 같이 어둠, 추위 속에서도 언젠가는 도 래할 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 꽃 디고 새 님 나니 綠靑陰음이 질렀는디, 羅나褱위 寂寂寞막하고 繡슈幕막이 뷔여 있다. 芙부蓉용을 거더 노코 孔公雀작을 둘러 두니, 窸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鴛원鴦앙錦금 버혀 노코 五五色식線선 플터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手手品품은 ㄴ니와 制制度도 ㄴ줄시고. 珊山瑚호樹슈 지게 우히 白빅玉玉涵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브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훌시고. 千천里리 萬만里리 길흘 뉘라셔 츠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지문해석 본사 ② : (夏怨) | 꽃잎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우거져 나무 그늘이 짙었는데, (님이 없어) 비단 포장은 쓸쓸히 걸렸고 수놓은 장막만이 드리워져 텅 비어 있다. 부용꽃 무늬가 있는 房帳을 걷어 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 두니, 가락이나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그리도 지루하게) 길던고? 원앙새 무늬가 든 비단을 베어 놓고 오색 실을 풀어 내어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만들어 내니, 솜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에 (그 옷을) 담아 엮어 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만리나 되는 먼 길을 누가 찾아 갈꼬? 가거든 (이 함을) 열어 두고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할실까?

⑥ 흐릿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리 뉘 제, 危위樓루에 혼자 올라 水水晶정簾님 거든말이, 東동山산의 들이 나고 北북極극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淸光광을 쥐여내여 鳳鳳凰황樓누의 붓디고져. 樓누 우히 거러 두고 八팔荒荒의 다 비취여, 深심山山 窮궁곡곡 점낫ㄴ티 밍그쇼셔.

지문해석 본사 ③ (秋怨) | 하룻밤 사이 서리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 발을 걷으니,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님이신가 하여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 내어 님이 계신 궁궐에 부쳐 보내고 싶다. (그러면 님께서는 그것을) 누각 위에 걸어 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추어 깊은 산골짜기에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Related Links 주관적 반응을 이룬 작품들(98년도 수능출제)

- 황진이의 시조-<동지달 지나간 밤을 한 허리를 갈라 내어~> - 추상적 시간을 구체화
- 정철의 <사미인곡>
건곤(乾坤)이 폐색(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한 비친 제, 사람은 카니와,날새도 그셔 있다. 소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玉樓) 고쳐야 더욱 닐너 므슴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님 겨신 데 쏘이고져,
- 정철의 <관동별곡>
銀은河하水슈 한 구비를 존흔이 버혀 내어, 실가티 플터이셔 뷔가티 거러시니
- 서정주의 <동천(冬天)>
내 마음속 우리 임의 고운 눈썹을 / 즘은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기어 심어 뉘터니/ 동지 설달 나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시뉘하며 비껴어 가네

⑦ 乾건坤곤이 閉폐塞식하야 白빅雪설이 흐 뵈친 제, 사름은 ㄴ니와 늘새도 ㄴ쳐 있다. 瀟灑상남남畔만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옥樓누高고處처야 더욱 닐너 므슴 하리. 陽양春춘을 부쳐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茅모筓첩 비친 히를 玉옥樓누의 울리고져. 紅홍裳裳을 니미치고 翠취袖슈를 半반만 거더, 日일暮모 修슈竹독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다른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靑淸燈등 거른 것티 鈿뎡空공侯후 노하두고, 罽의나 님을 보려 틱 밧고 비겨시니, 鴛鴦禽금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쉰고.

지문해석 본사 ④ : (冬怨) | 천지가 겨울 추위에 얼어 생기가 막혀, 흰 눈이 일색으로 덮여 있을 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도 날아다니지 않는다. (따뜻한 곳이라 하는) 소상강 남쪽 둔덕(전남 창평)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하물며 북쪽 임계신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랴. 따뜻한 봄기운을 (부채로) 부쳐내어 님계신 곳에 쏘게 하고 싶다. 초가집 처마에 비친 따뜻한 햇볕을 님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올려, 해는 저물었는데 밋밋하고 길게 자란 대나무에 기대어서 이것저것 생각함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겨울 해가 이내 넘어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사 초롱을 걸어 둔 옆에 자개로 수놓은 공후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틱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아, 이렇게 홀로 외로이 지내는데) 이 밤은 언제나 쉰고?

㉔ 흐르도 열두 새 혼 들도 설흔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마음의 띠쳐 이서 뼈골髓슈의 쉼터시니, 篇편鵲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흐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디 족족 안니다가, 향 믈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뜨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흐노라.

지문해석 (결사) |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님 생각을 말아서 이 시름을 잊으려 해도 마음속에 맺혀 있어 뼈 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과 같은 명의가 열 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하라. 아,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고 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으리라. 님께서(그 범나비가)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하노라.

[전문 해석]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緣分(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흐나 점어 잇고 님 흐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平生(평생)애 願(원) 흐요디 흐디 네자 흐얏더니, 늙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피셔 廣寒殿(광한던)의 올났더니, 그더디 었디하야 下界(하계)에 느러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디 三年(삼년)이라. 胭脂粉(연지분) 잇노마는 놀 위하야 고이 홀고. 마음의 띠친 실음 蠱蠱(팁팁)이 빠혀 이서, 짓노니 한숨이오 디나니 눈물이라. 人生(인싱)은 有限(유한) 흐디 시름도 그지업다. 無心(무심)흐 歲月(세월)은 물 흐르듯 흐노고야. 炎涼(염냥) 이 쉼을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東風(동풍)이 건 듯 부러 積雪(적설)을 헤터내니, 窓(창) 밧기 심근 梅花(미화) 두세 가지 띄여세라. 兀得 冷淡(닝담) 흐디 暗香(암향)은 므스 일고. 黃昏(황혼)의 들이 조차 버 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花(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 이 너를 보고 었더타 너기실고. 꽃디고 새 님 나니 綠陰(녹음)이 실렸는디, 羅幃(나위) 寂寞(적막) 흐고, 繡幕(슈막)이 뷔여 잇다. 芙蓉(부용)을 거더 노코, 孔雀(공작)을 둘러 두니, 兀得 시름 한디 날은 었디 기뉘던고. 鴛鴦錦(원앙금) 버혀 노코, 五色線(오식선)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 이서 님의 옷 지여 내니, 手品(슈품)은 ㄴ니와 制度(제도)도 ㄴ줄 시고, 珊瑚樹(산호슈) 지게 우히 白玉函(백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브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홀시고. 千里 萬里(천리 만리) 길홀 뒤라셔 츠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벨 제, 危樓(위루)에 혼자 올라 水晶簾(슈정렴) 거든말이, 東山(동산)의 들이 나고, 北極(북극)의 별이 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光(청광)을 쥐어 내여 鳳凰樓(봉황누)의 붓티고져. 樓(누) 우히 거러 두고, 八荒(팔황)의 다 비최여, 深山窮谷(심산궁곡) 점나 ㄴ티 밍그쇼셔. 乾坤(건곤)이 閉塞(폐식)하야 白雪(백설)이 흐 빗친 제, 사람은 ㄴ니와 놀새도 그쳐 잇다. 蕭湘南畔(쇼상남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樓高處(옥누고쳐)야 더욱 닐러 므스흐리. 陽春(양춘)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茅簷(모첨) 비친 히를 玉樓(옥누)의 올리고져. 紅裳(홍상)을 니미 츠고, 翠袖(취슈)를 半(반)만 거더, 日暮脩竹(일모슈독)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靑燈(청등) 거른 것티 鈿空篋(던공후) 노하 두고, 쉼의나 님을 보려 틱 밧고 비겨시니, 鴛鴦錦(앙금)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쉰고. 흐르도 열 두 새 혼 들도 설흔 놀, 저근덧 싱각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마음의 띠쳐 이서 骨髓(골슈)의 쉼터시니, 扁鵲(편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흐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디 족족 안니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뜨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흐노라.

속미인곡(續美人曲)

정 첩이 <사미인곡>을 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것의 미진한 것을 이어서 지은 가사로, <사미인곡>과는 달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님을 그리워하며 님의 소식을 몰라 높은 산과 강가를 방황하는 서정적 자아의 모습을 두 선녀의 대화체로 노래하였다. 서사는 서정적 자아의 보조적 인물인 갑녀가 먼저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묻고, 갑녀의 물음에 대하여 을녀 즉 서정적 자아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는 '글란 생각 마오'라는 갑녀의 위로와 을녀의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사는 을녀의 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과 이에 대한 갑녀의 위로의 말 '각시님 달은커녕 곳은 비나 되소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서사는 님과 이별하게 된 사연을, 본사는 이별 후 느끼는 서정적 자아의 심정을, 결사는 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을 각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미인곡>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와 전고(典故)가 간혹 섞여 있는데 반해, 이 가사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민요와 같은 것을 매개로 해서 여인네들이 흔히 하는 푸념을 살리면서, 사랑과 이별의 미묘한 감정을 아주 잘 나타내었다. 물론 그 내용은 임금을 사모하는 '충신연주지사'의 성격으로 되어 있지만, 표현 자체는 일반 백성의 순박한 마음씨에 근거를 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① 형식의 특징 : 두 여인의 대화체

② 시가사적 의의

- ① 사미인곡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절정을 이룸.
- ② 순 우리말을 절묘하게 구사한 대화체 시가.

③ 忠臣戀主之詞 (→이진유·속사미인곡, 김춘택·별사미인곡)

④ 구 성

서사	임과 이별한 사연 : ◦甲女の 물음 : 백옥경을 떠난 이유/ ◦乙女の 대답 : 조물의 탓(자책과 ;
본사	이별 후의 사랑과 그리움 : ◦甲女の 위로/ ◦乙女の 애달픈 사연(임에 대한 충정과 그리움
결사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사랑 : ◦乙女 - 사설의 결말(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 ◦甲女の 結

⑤ 시적 자아의 처지를 천상 백옥경에서 버림받아 하계에 내려온 여인애다 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미인곡과 마찬가지로 조위의 만분가를 모형으로 삼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⑥ 사미인곡과 같이 왕과 자신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절실하게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욱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됨)

⑦ 김만중의 평(西浦漫筆)

송강의 관동별곡과 전후미인가는 우리나라의 이소(離騷-굴원이 楚의 회왕을 섬겼다가 참소로 쫓겨난 뒤 자기 심정을 토로한 작품. 離=憂, 騷=詩賦)이다. 한문으로는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인(樂人) 등이 입으로 서로 전수하거나 국문으로만 전한다. (...) 지금 우리나라의 詩文은 자기 말을 버리고 남의 나라 말을 입내내어 쓴 것이니, 설령 아주 비슷하다 해도 영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여항(閩巷-마을, 민간)에서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 길은 아낙네들이 예야테야 하며 서로 화창(話唱)하는 것이 비록 비리(鄙里-풍속·언어 등이 상스러움)하다 할지 모르나 그 참과 거짓됨을 따진다면 학사대부(學士大夫)들의 이른바 시부(詩賦)라고 하는 것 따위와 같이 논할 수가 없다. 하물며, 이 세 별곡은 천기(天機)가 절로 발로되어 있고, 이속(夷俗)의 천박함이 없으니,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진문장(眞文章)은 오직 이 세 편 뿐이다. 그러나, 세 편을 논하면, '후미인(後美人)'이 더욱 높다. '관동(關東)'과 '전미인(前美人)'은 그래도 한문의 어구로 그 표현을 수식했다.(自古左海眞文章 只此三篇 又就三篇而論之 則後美人尤高 關東及前美人 猶借文字語以飾其 色耳)

Related Links 이 작품과 유사한 정서를 보여주는 시조문학

- ① 내 맘을 버혀내여 더 돌을 링글고져/구만 리 당턴(長天)의 번드시 걸려 이셔/고은 님 거신 고덕 가 비 취여나 보리라. - 정철
- ② 梨花雨(이화우) 훗뿌릴 제 울며 잡고 離別(이별)혼 님/秋風落葉(추풍낙엽)에 저도 날 싱각는가?/千里(천리)에 외로운 썸만 오락가락 흐노매 - 계광
- ③ 深山(심산)의 밤이 드니 北風(북풍)이 더욱 차다 ☞박인로
- ④ 玉樓高處(옥루고쳐)에도 이 바람 부난게오 ☞ 五倫歌 25수 중
- ⑤ 긴 밤의 치우신가 北斗(북두) 비겨 아래로라 君臣有義

서사 소주제 임과 이별한 사연

①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天塹上尙 白帛玉帛京경을 엇디흐야 離니別별하고, 히 다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노고.

지문해석 (甲女)저기 가는 저 부인, 본 듯도 하구나. 임금이 계시는 대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서 저운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노고? *甲女의 물음 : 백옥경을 떠난 이유

②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흥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구듯 썬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흐니 내 몸의 지은 죄 피기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흐며 사름이라 허물흐라 설위 플터 헤니 造物 물의 타시로다.

지문해석 (乙女)아, 너로구나. 내 사정 이야기를 들어 보오. 내 얼굴과 나의 태도는 님께서 사랑할지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하고 특별히 여기시기에 나도 님을 믿어 딴 생각이 전혀 없어, 응석과 야양을 부리며 지나치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의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라. 설위서 여러가지 일을 풀어 내어 헤아려 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乙女의 대답 : 조물의 탓(자책과 체념)

본사 소주제 이별 후의 사랑과 그리움

③ 글란 싱각 마오/미친 일이 이서이다. 님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ㄱ툼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춘춘寒한 苦고熱열은 엇디흐야 디내시며 秋추日일冬동天塹은 뒤라셔 피섯노고. 粥죽早조飯반 朝조夕석 피 네와 ㄱ티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노고.

지문해석 본사 ① 갑녀의 위로와 임에 대한 염려 | (甲女) 그것올랑(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오. (乙女) 마음 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님을 모시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때가 몇 날일고? 이른 봄날의 추위와 여름철의 무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날 겨울날은 누가 모셨는고? 자릿 조반과 아침 저녁 전지는 예전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④ 님다히 逍소息식을 아므려나 아자 흐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가. 내 ㅁ 음 들디 업다. 어드러로 가갓 맞고, 잡거니 밀거니 눅픈되히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ㅁ스 일고. 山山川천이 어둡거니 日日月월을 엇디 보며 咫지尺척을 모라거든 千천里리를 브라보랴. 출하리 물ㄱ의 가 비 길히나 보자 흐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느니. 江강天塹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逍소息식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지문해석 본사 ②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림 : 님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 저물었구나. 내일이나 님의 소식 전해 줄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돌 곳이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인고? (나무 바위 등을) 잡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로 저렇게 끼어 있는고? 산천이 어두운데 일월을 어떻게 바라보며, 눈 앞의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리나 되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으랴?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고?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 보니 님 계신 곳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Related Links

‘해’ 와 ‘구름’

- ① 李白,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 —— 總爲浮雲能蔽日 長安不見使人愁(다 뜬 구름이 되어 능히 해를 가리니, 장안을 볼 수 없어 시름겹게 하는구나.)
- ② 이준오 시조
구름이 무심튼 말이 아마도 허량한다./ 종천에 써 이셔 임의로 든니면서/ 구탁야 광명흔 낯빛을 싸라가며 덮느니
- ③ 정철, 사미인곡 : 珊瑚樹시지게 우히 白帛玉帛涵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거신 디 브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물시고.
- ④ 정철, 관동별곡 :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동만 니러흐니, 祥상雲운이 집피는 동, 六육龍龍이 바되는 동, 바다히 씨날 제는 萬만 國國이 일위더니, 天塹中동의 티스니 毫호髮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쳐의 머물세라. 詩시仙선은 어디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느니

수 茅모籤첨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半반벽벽靑靑燈燈등은 늘 위하야 불갓는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力力盡盡진하야 풋즘을 잠간 드니 精精誠誠성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玉玉又又얼굴이 半반이나마 늘거세라. ㅁ음의 머근 말슴 슬극장 슬자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情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鷄계聲聲의 증은 엇디 썩듯던고.

[지문해석] 본사 ③ 독수공방의 한과 꿈에서 만난 임 : 초가집 찬 잠자리에 한밤중에 돌아오니, 벽 가운데 걸려있는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은고? 산을 오르내리며 강가를 헤매며 시름없이 오락가락하니, 잠간 사이에 힘이 지쳐 풋잡을 잠간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옥과 같이 곱던 얼굴이 반 넘어 늘었구나.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을 실컷 사죄려고 하였더니, 눈물이 쏟아지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회(情懷)도 못다 풀어 목마저 메니,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웠던고?

결사 소주제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사랑

⑥ 어와, 虛虛事스도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窓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은 그림재 날 조출 썩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窓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들이야키니와 구준 비나 되쇼셔.

[지문해석] 결사 : 아, 허황한 일이다. 이님이 어디 갔는고?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만 이 나를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서 님이 계신 창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님 向向 一片丹心이야 가설 줄이 이시라) (甲女) 각시님, 달은 커녕 곶은 비나 되십시오.

Related Links

■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대비상 특징

독백체	대화형식
한자속어, 고사 인용 (暗香-임포·산원소매, 사람은키니와 늘새도 갖쳐 있다-유종원 江雪, 일모슈득-두보·佳人, 소상남반, 편작 등.)	우리말 잘 살려 씀. (유식한 고사는 하나도 없으며 한시 체험과는 거리가 멀다.민요 같은 것을 때때로 해서 여인네들이 흔히 하는 푸념을 살리면서,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아주 잘 나타냄.작자의 처지를 개입시키면 연군의 내용이지만 표현 자체는 일반 백성의 순박한 마음씨에 근거한 노래일 따름)
남에게 바치는 정성을 주로 나타냄. (매화, 웃, 청광, 양춘 - 추상적 관념적 進上品)	자기 생활과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려 함 (출하리 물그의 가 빈 길히나 보자 하니 보람이야 물결이야 어동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딴 가고 빈 비만 걸렸느니. 江江天천의 혼자 서서 디는 휘를 구버보니 님다히 道道息식이 더욱 아득헌더이고.)
외형적이고 사치스러운 분위기 (○羅나裱위 寂寂寞寞하고 繡綉靡막이 뷔어 잇다. 芙부蓉蓉을 거더 노코 孔공雀雀을 둘러 두니 ○珊산 瑚瑚樹樹슈 지게 우히 白白玉玉옥涵함의 다마 두고, ○鍾鍾空空侯후 등)	소박한 분위기 (茅모籤첨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半반벽벽靑靑燈燈등은 늘 위하야 불갓는고. 오르며 느리며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力力盡盡진하야 풋즘을 잠간 드니 精精誠誠성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玉玉又又얼굴이 半반이나마 늘거세라.)
과장된 표현, 임에 대한 자신감·자만심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恁恁緣緣分分이며 하늘 모를 일어던가.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手手品品은 키니와 制制度도 그 줄시고. ○ㅁ음의 미쳐 이셔 髣髴髴슈의 세터시니, 篇篇鵬鵬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 흐리.)	겸손 · 현실 바로 인식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죽 흥가마는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 ○ㅁ음의 머근 말슴 슬극장 슬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情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 ‘들’ 과 ‘구준 비’

	들	구준 비
대상의 속성	일시적	지속적
시적 화자의 태도	소극적(멀리서 바라 봄)	적극적
정서적·공간적 거리	멀다	밀착됨
분위기	밝음	침울한 분위기(버림받은 여인의 심정)
표현 이미지	시각	청각(어둠 속에서도 느낌)

◆ ‘비’는 흔히 눈물로 비유됨 → 그리움(想思)에 지쳐 흐르는 눈물은 비로 전환되어 님의 몸과 마음을 적심 感感 절한 그리움의 역설적 표현

◆ 들 : 소극적인 태도로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적 이미지.

구준 비 : 침울한 분위기로 임의 청각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임에게 밀착되어 긴 시간을 눈물로 적시게 함으로써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냄.

[전문 해석]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天墮 上象 白帛玉帛京경을 엇디하야 離니別별하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리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얍죽 혼가마는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 쓰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퓌야 어즈러이 구똥쨌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생각하코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뉘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 이라 허물하라. 설위 플터 헤니 造造物들의 타시로다. 글란 생각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ㄱ툼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春춘寒한 ㅅ고熱열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秋추日일冬동天墮는 누라서 뉘섯논고. 粥죽우조飯반 朝 초夕석피 네와 ㄱ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님 다히 消息息식을 아 뜨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ㄱ일이나 사름 올라. 내 ㅅ음 둘 ㄱ엿다. 어드러로 가자말고. 잡거니 밀거니 ㅅ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 ㄱ니와 안개는 ㅅ스 일고. 山山川천 이 어둡거니 日日月월을 엇디 보며 ㄱ지尺척을 모라거든 千천里리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 ㄱ의 가 ㅅ 길히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샴공은 어딴 가고 뉘 ㅅ만 걸렸느니. 江강川천의 혼자 서서 디는 ㅅ를 구버보니 님다히 消息息식이 더욱 아득혼더이고. 茅모簷첨 ㅅ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半반壁벽 靑靑燈등은 늘 위하야 불 갓논고. 오르며 ㄱ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뉘 力력盡진하야 ㅅ잠을 잠간 드니 情정誠성이 지극하야 ㅅ의 님을 보니 玉옥 ㄱ툼 얼굴이 半반이나마 늘거세라. ㅅ음의 머근 말슴 슬 ㄱ장 ㅅ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情정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뉘 鷄계聲성의 잠은 엇디 쉰뉘던고. 어와, 虛허事스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ㅅ이로다. 출하리 ㅅ여디여 洛 ㅅ월월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窓창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ㄱ이야 ㄱ니와 구즌 비 나 뉘쇼셔.

허 난설현이 지은 가사이다. 허난설현의 본명은 초희(楚姬)이고 호가 난설현이다.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의 누님이다. 홍만종의 <순오지>에는 허균의 첩 무옥이 지은 것이라 되어 있으나, <고금가곡(古今歌曲)>이나 하는데, 조선조 봉건사회에서 독수공방하여 겪는 부녀자의 고독한 심정을 노래한 '규방가사'이다.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 여성들은 '삼종지도(三從之道)'나 '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윤리 속에서 남성들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슬픔은 여성인 작가 자신이 그러한 사회 속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슬픔은 여성인 작가 자신이 그러한 사회 속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한(恨)의 표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규방가사'라 함은 조선조 양반 부녀자들이 주로 향유했던 가사의 일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 생활의 고민과 정서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규방가사는 조선후기에 들어 많이 창작되었는데, 양반 사대부들의 가사보다는 오히려 서민가사에 더욱 가까이 접근해 있으며, '내방가사'라고 하기도 한다.

① 일명 '怨夫詞'라고도 하며 조선조 봉건 사회에서 독수공방하며 겪는 부녀자의 고독한 심정을 노래한 규방가사. (허난설현은 15세 무렵 金誠立과 결혼하였다)

② 당시 여성들은 '三從之道', '女必從夫' 라는 봉건 윤리 속에서 남성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하겠다. 따라서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슬픔은 여성인 작가 자신이 그러한 사회 속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恨을 표출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③ 사미인곡이나 속미인곡은 작자의 마음을 여자애다 기탁해서 나타내면서 버림받고 헤어지게 된 것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설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러 지어낸 말이나 애써 꾸민 결과도 아니니, 한탄과 원망을 감출 필요가 없었다. 삶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조선 후기 문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하겠다.

④ 시가사적 의의 :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사에 여성이 작가층으로 등장하면서 규방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 후대의 규방가사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

⑤ 작품의 구성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러운 회포 ◦ 서러운 회포를 적는 감회 ◦ 젊은 시절 회상 ◦ 높고 외로운 신세 자탄
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 남편의 외도와 무소식 ◦ 사계절을 지내면서 느끼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애달은 심정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로움을 거문고로 달랠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임을 기다림

Related Links

◆규방가사(내방가사) : 조선조 양반 부녀자들이 주로 향유했던 갈래로서 속박된 여성 생활의 고민과 정서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분상 양반 문학이나, 내용은 평민 가사와 근접한 것이 많다. 후대로 오면서 작가층이 확대되어 개화기를 거쳐 일제시대에도 활발하게 창작되었다.(여성은 가사로 하소연해야 할 사연을 더 많이 지니고 살았으며, 길쌈 같은 것을 하면서 흥얼거리는 민요에는 글로 적으면 바로 가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아 가사의 저층을 이루었다.)

■ 이 작품과 사미인곡,속미인곡과의 차이점

▶ 사미인곡이나 속미인곡은 작자의 마음을 여자애다 기탁해서 나타내면서 버림받고 헤어지게 된 것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설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러 지어낸 말이나 애써 꾸민 결과도 아니니, 한탄과 원망을 감출 필요가 없었다. 삶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조선 후기 문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하겠다.

① 엇그제 저멋더니 흐마 어이 다 늘거니, 少年行樂(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씀 흐자니 목이 멘다.

[지문해석] 엇그제 젊었더니 어찌 벌써 이렇게 다 늙어버렸는가? 어릴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야 헛되구나. 이렇게 늙은 뒤에 설운 시연 말하자니 목이 멘다. ≡ 서러운 회포를 적는 감회

② 父生母育(부생모육) 辛苦(신고)흐야 이 내 몸 길러 낼 제, 公侯配匹(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君子好逑(군자호구) 願(원)하더니, 三生(삼생)의 怨業(원업)이오 月下(월하)의 緣分(연분)으로, 長安遊俠(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근치 만나 잇서, 當時(당시)의 用心(용심)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

[지문해석] 부모님이 낳아 기르며 몹시 고생하여 이 내 몸 길러낼 때,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은 바라지 못할지라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랬더니,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 부부의 인연으로(불교의 윤회 사상) 장안의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시간간 뒤에 남편 시중들면서 조심하기를 마치 살어름 디디는 듯 하였다. (결혼을 운명으로 여기고 힘든 시집살이를 견뎌→ 당시 여성의 위상 짐작) ≡ 과거(젊은 시절) 회상

③ 三五 二八(삼오이팔) 겨오 지나 天然麗質(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態度(태도)로 百年期約(백년기약) 하얏더니, 年光(연광)이 훌훌하고 造物(조물)이 多猜(다시)하야,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雪鬢花顏(설빈화안) 어딴 두고 面目可憎(면목가증)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필소냐. 스스로 慙愧(참괴)하니 누구를 怨望(원망)하리.

[지문해석] 열다섯 열여섯 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평생을 약속하였더니,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주마저 다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물, 곧 세월이 베틀의 베을 사이에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가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 어딴 두고 모습이 밍게도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알거니와 어느 님이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 늙고 외로운 신세 자탄

④ 三三五五(삼삼오오) 治遊園(야유원)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갸. 곳 피고 날 저물 制定處(정치) 업시 나가 잇어, 白馬金鞭(백마금편)으로 어딴어딴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랴.

[지문해석] 여러 사람이 떴지어 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없이 나가서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어디어디 머물러 노는고? 집안에만 있어서 원근 지리를 모르는데 님의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으랴. ≡ 남편에 대한 원망

수 因緣(인연)을 근쳐신들 싱각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믄, 열두 새 김도 길샤 설흔 날 支離(지리)하다. 玉窓(옥창)에 심근 梅花(매화) 몇 번이나 피

여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므스 일고. 三春花柳(삼춘화류) 好時節(호시절)의 景物(경물)이 시름업다. 가을 들 방에 들고 실솔이 床(상)에 올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지문해석 겉으로는 인연을 끊었다지만 님에 대한 생각이야 없을 것인가? 님의 얼굴을 못 보거나 그림이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곧 서른 날이 지리하다. 규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겨울 밤 차고 찬 때 자국 눈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굶은 비는 무슨 일인고? 봄날 온갖 꽃 피고 버들잎이 돌아나는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 가을 들 방에 들이 비추고 귀뚜라미 침상에서 올 때 긴 한숨 흘리는 눈물 헛되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㉞ 계절 변화에 따른 임에 대한 그리움

본사 2 | 소주제 | 외로움을 거문고로 달래 봄

숙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햏여 어이햏리, 靑燈을 돌라 노코 錄綺琴(녹기금) 빗기 안아, 碧蓮花(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 조츰 셋거 타니, 瀟湘夜雨(소상야우)의 댕소리 셋도는 듯 華表千年(화표천년)의 別鶴(별학)이 우니는 듯, 玉手(옥수)의 타는 手段(수단) 넷 소래 잇다마는, 芙蓉帳(부용장) 寂寞(적막)햏니 뉘 귀에 들리소니. 肝腸(간장)이 九曲되야 구비구비 썩쳐서라.

지문해석 돌이켜 여러가지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등불을 돌려 놓고 푸른 거문고를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곡을 시름에 싸여 타니, 소상강 밤비에 댕소리 섞여 들리는 듯, 망주석에 천 년만에 찾아 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 가락이 아직 남아 있지마는 연꽃 무늬가 있는 휘장을 친 방이 텅 비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마음 속이 굵이굵이 끊어졌도다.

결사 | 소주제 |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임을 기다림

⑦ 출햏리 잠을 드려 쏸의나 보려 햏니 바람의 디는 뉘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천상의 牽牛織女(견우직녀) 銀河水(은하수) 막혀서도, 七月七夕一年一度失期(실기)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弱水(약수) 가렷관디, 오거나 가거나 消息조차 쓰쳤는고. 欄干(난간)의 비겨 서서 님 가신 디 바라 보니, 草露(초로)는 맺쳐 잇고 暮雲(모운)이 디나갈 제 竹林 푸른 고디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룬 사람 수업다 햏려니와, 薄命(박명)햏 紅顏(홍안)이야 날 가트니 쏘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햏여라.

지문해석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님을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일과 풀 속에서 우는 벌레는 무슨 일이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고?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칠월 칠석 일년에 한 번 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장애물이 가리었기에 오고 가는 소식마저 그쳤는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풀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대 수풀 우거진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설운 사람 많다고 하려니와 운명이 기구한 여자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전문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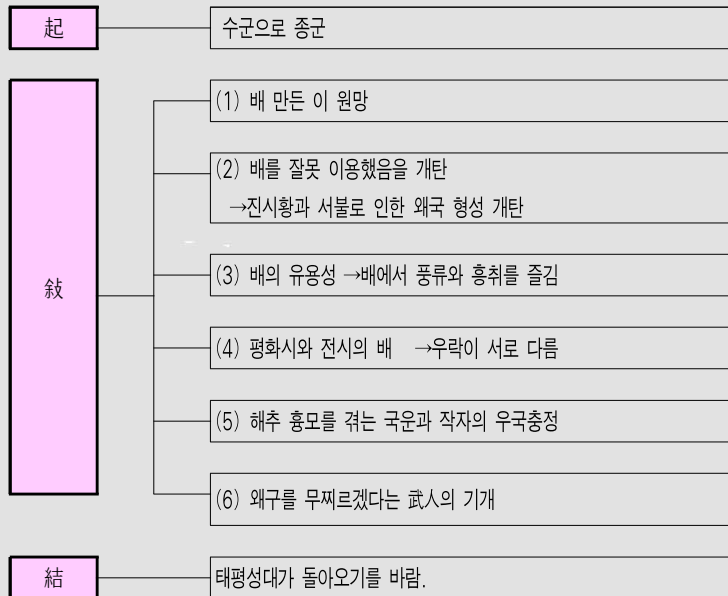
엇그제 저멋더니 허마 어이 다 늘거니, 少年行樂(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씀 허자니 목이 멘다. 父生母育(부생모육) 辛苦(신고) 허야 이 내 몸 길러 낼 제, 公侯配匹(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君子好逑(군자호구) 願(원)허더니, 三生(삼생)의 怨業(원업)이오 月下(월하)의 緣分(연분)으로, 長安遊俠(장안유협) 경박자를 썸근치 만나 잇서, 當時(당시)의 用心(용심)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 三五 二八 겨오 지나 天然麗質(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態度(태도)로 百年期約(백년기약) 허앗더니, 年光(연광)이 훌훌하고 造物(조물)이 多猜(다시) 허야,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雪鬢花顏(설빈화안) 어딤 두고 面目可憎(면목가증)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필소냐. 스스로 慙愧(참괴) 하니 누구를 怨望(원망) 허리. 三三五五 冶遊園(야유원)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업시 나가 잇어, 白馬金鞭(백마금편)으로 어딤어딤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라. 因緣(인연)을 굿쳐신들 생각이야 업슬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 열 두 새 김도 길사 설흔 날 支離(지리) 허다. 玉窓(옥창)에 심근 梅花(매화) 몇 번이나 피여진고. 여름 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므스 일고. 三春花柳(삼춘화류) 好時節(호시절)의 景物(경물)이 시름업다. 가을 들 방에 들고 실솔이 床(상)에 울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허여 어이허리, 靑燈을 돌라 노코 錄綺琴(녹기금) 빗기 안아, 碧蓮花(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 조츠 섯거 타니, 瀟湘夜雨(소상야우)의 댕소리 섯도는 듯 華表千年(화표천년)의 別鶴(별학)이 우니는 듯, 玉手(옥수)의 타는 手段(수단) 넷 소래 잇다마는, 芙蓉帳(부용장) 寂寞(적막) 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肝腸(간장)이 九曲되야 구비구비 쓴쳐서라. 출허리 잠을 드러 썸의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는 님과 풀 속에 우는 증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천상의 牽牛織女(견우직녀) 銀河水(은하수) 막혀서도, 七月 七夕 一年一度 失期(실기)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弱水(약수) 가렷관디, 오거나 가거나 消息조차 쓰쳤는고. 欄干(난간)의 비겨 서서 님 가신 디 바라 보니, 草露(초로)는 맺쳐 잇고 暮雲(모운)이 디나갈 제 竹林 푸른 고딤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른 사람 수업다 허려니와, 薄命(박명) 허 紅顏(홍안)이야 날 가튼니 쏘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허여라.

이 작품을 창작한 1605년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7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서, 악화된 대일 감정이 지속되고 있던 때이다. 즉, 반일과 극일은 당시 우리 민족의 일반적 정서였고,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박인로의 기본적인 정서이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작자가 '통주사'로서 나라 수비의 임무를 맡게 됨에 따라, 임진왜란의 참상과 굴욕을 견뎌낸 후에 이를 이상적으로 초극하려는 의지와 민족의 염원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지은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이 작품에는 반일과 극일의 정서, 나아가 우리의 자신감과 우월감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 애호의 정서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 ▷의의 : 임진왜란의 체험이 반영된 전쟁 가사
- ▷주제 : 전쟁의 비애를 극복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어 함.

- 배의 이중성
 - 1)전쟁을 일으키는 수단(침략자를 만든 계기) 2)평화의 상징
- 문학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하는 이유
 - 1)고사인용 2)한자어 사용

▷선상탄의 구성 ㉠배를 중심으로 시상 전개



기	소주제	수군으로 중군
---	-----	---------

① 늘고 病(병)든 몸을 舟師(주사)로 보너실시 乙巳三夏(을사삼하)에 鎮東營(진동영) 내려오니, 關防重地(관방중지)에 病이 깊다 안자실랴? 一長劍(일장검) 비기 쓰고 兵船(병선)에 구데 올라, 勵氣瞋目(여기진목)하야 對馬島(대마도)을 구어보니, 바람조친 黃雲(황운)은 遠近(원근)에 사혀 있고, 아득한 滄波(창파)는 긴 하늘과 한 빗칠쇠.

[지문해석] (임금께서) 늘고 병든 몸을 수군 통주사로 보내시므로, 을사년(선조 38년, 1605) 여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국경의 요새지에서 병이 깊다고 알아만 있겠는가? 한 자루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구태여(감히) 올라 기운을 떨치고 눈을 무릅뜨며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누런 구름은 멀리 또는 가까이에 쌓여 있고(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아득한 푸른 바다는 긴 하늘과 한 빗이로다.

서 ①	소주제	배 만든 이 원망
-----	-----	-----------

② 船上(선상)에 徘徊(배회)하며 古今(고금)을 思憶(사억)하고 어리미친 懷抱(회포)에 軒轅氏(현원씨)를 애드노라. 大洋(대양)이 茫茫(망망)하야 天地(천지)에 둘러시니, 진실로 비 아니면 風波萬里(풍파만리) 맞기, 어니 四夷(사이) 엇볼넌고. 무슨 일 하려 하야 비 못기를 비롯하고? 萬世千秋(만세천추)에 ㄹ업슨 큰 弊(폐) 되야, 普天之下(보천지하)에 萬民怨(만민원) 길우는다.

[지문해석] 배 위를 왔다 갔다 서성거리며 예와 오늘을 생각하며 어리석고 미친 듯한 마음에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현원씨(중국 of 전설상의 황제로 배와 수레를 처음 만들었다 함)를 원망하노라. 진실로 배가 없었다면 풍파가 이는 바다 만 리 밖에서 어느 사방의 오랑캐가 (우리 나라를) 넘볼 것인가?(황제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왜적들이 그걸 타고 침공했다는 말)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비롯(시작)하였던가? 오랜 세월에 무한한 큰 폐단이 되어, 온 세상 만백성의 원한을 조정한다.

서 ②	소주제	진시황과 서불로 인한 왜국 형성 개탄
-----	-----	----------------------

③ 어즈버 씨드리니 秦始皇(진시황)의 타시로다. 비 비록 있다 하나 倭(왜)를 아니 삼기 던들, 日本(일본) 對馬島(대마도)로부터 빈 비 절로 나올넌가? 뉘말을 미더 듯고, 童男童女(동남동녀)를 그디도록 드러다가, 海中(해중) 모든 섬에 難當賊(난당적)을 기쳐 두고, 痛憤(통분)하 羞辱(수욕)이 華夏(화하)에 다 맞나다. 長生不死藥(장생불사약)을 얼키나 어더 니여, 萬里長城(만리장성) 놓히 사고 몇 萬年(만년)을 사도편고? 늣딴로 죽어 가니 有益(유익)하 줄 모르로다. 어즈버 싱각하니 徐市¹⁾ 等(서불 등)이 已甚(이심)하다 人臣(인신)이 되야서 亡命(망명)도 하는 것가? 神仙(신선)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舟師(주사) 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지문해석] 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가 비록 있다 하나 왜국을 만들지 않았던들,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 배가 저절로 나올 것인가? 누구 말을 믿어 듣고 사람들을 그토록 많이 들어가게 바다 가운데 모든 섬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왜적)을 남기어 두어서, 통분한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까지 미치게 하는구나. 장생불사한다는 약을 얼마나 얻어내어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 만 년이나 살았던가? 그러나 진시황도 남과 같이 죽어가니, 사람들을 보낸 일이 유익한 줄을 모르겠다. 아, 돌이켜 생각하니 서불의 무리들이 매우 심하다. 신화가 되어서 남의 나라로 도망을 하는 것인가. 신선을 못만났거든 쉬 돌아왔더라면, 수군인 나의 근심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1) 서불 - 진시황이 동해 삼신산에 불로초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서불과 수천명의 동남동녀를 배에 태워 보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의 후손이 왜족의 선조가 되었다고 한다.

서 ③ 소주제 배에서의 풍류와 흥취(배의 유용성)

④ 두어라, 既往不咎(기왕불구)라 일너 무엇호로소니, 속절업은 是非(시비)를 후리쳐 더더 두자. 潛思覺悟(잠사각오)하니 내 뜻도 固執(고집)고야. 皇帝(황제) 作舟車(작주거)는 윈 줄도 모르로다. 張翰(장한) 江東(강동)에 秋風(추풍)을 만나신들, 扁舟(편주) 곳 아니 타면 天清海闊(천청해활)하다. 어너 興(흥)이 절로 나며, 三公(삼공)도 아니 맞골 第一江山(제일강산)에 浮萍(부평) 又 漁父生涯(어부생涯), 一葉舟(일엽주) 아니면 어디 부쳐 든 힐는고?1)

지문해석 그만두어라 이미 지난 일을 탓해서 무엇하겠는가? 공연한 시비는팽개쳐 던져두자. 꼼꼼히 생각하여 깨달으니 내 뜻도 지나친 고집이다.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장한이 강동에서 가을 바람을 만났다고 해도, 만일 작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하늘 넓고 바다 넓다 한들, 무슨 흥이 저절로 났을 것이며, 정승 자리와도 바꾸지 않을 경치 좋은 강산에 부평같이 물에 떠 다니는 어부의 생활이 한 조각의 작은 배가 아니면 무엇에 의탁하여 다닐 것인가?

서 ④ 소주제 평화와 전시의 배(우란이 서로 다름)

수 일언 닐 보건된 빅 삼긴 制度(제도)야 至妙(지묘)흔 덧호다마는 엇디흔 우리 물은 不是(아니)듯 板屋船(판옥선)을 晝夜(주야)로 빗기 타고, 臨風口永月(임풍영월)호디 興(흥)이 전혀 업는게오? 昔日(석일) 舟中(주중)에는 杯盤(배반)이 狼藉(낭자)터니, 今日(금일) 舟中(주중)에는 大劍長銀(대검장창) 쉰이로다. 흥 가지 빅언마는 가진 빅 多(다)라니, 期間(기간) 憂樂(우락)이 서로 不(아니)듯 못호도다.

지문해석 이런 일을 보면, 배를 만든 제도가 지극히 묘하지만, 어찌하여우리 우리들은 나는 듯한 板屋船(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풍월을 읊되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옛날 (소동파가 적벽강 위에 띄운) 배에는 술상이 여지럽게 흩어졌더니 오늘 우리가 탄 배에는 큰 갈과 긴 창 뿐이다. 같은 배이건만 가진 바가 다르니, 그 사이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다.

서 ⑤ 소주제 해추흥모를 겪는 국운과 시전 자아의 우국 충정

숙 時時(시시)로 멀이 드러 北辰(북신)을 바라보며 傷時(상시) 老淚(노루)를 天一方(천일방)의 디이는다. 吾東方(오동방) 文物(문물)이 漢唐宋(한당송)에 디라미는 國運(국운)이 不幸(불행)호야 海醜(해추) 兇謀(흉모)에 萬古羞(만고수)을 안고 이서, 百分(백분)에 흥 가지도 못 시서 버려거든, ——— 이몸이 無狀(무상)흔들 臣子(신자) | 되야 이서다가, 窮達(궁달)이 길이 달라 문 피옴고 늘거신들, 憂國丹心(우국단심)이야 어너 刻(각)에 이즐넵고?

지문해석 때때로 머리 들어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린다. 우리 나라의 문물이 한나라당나라송나라에 뒤지라마는,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왜적들의 흉악한 꾀에 빠져 만고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어, 백분의 일이라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변변하지 못하지만 신하 가 되어 있다가, 신하와 임금의 신분(궁궁과 영달)이 서로 달라, 못 모시고 늙은들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야 어느 때라고 잊을 수 있겠는가?

1) 중국 진나라 사람. 淸才가 있고 글을 잘해서 齊(제)왕이 大司馬(대사마)를 삼았더니,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의 순채국과 농여회가 먹고 싶어 벼슬을 그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한다.

㉗ 慷慨(강개) 계운 壯氣(장기)는 老當益壯(노당익장) 하다가는 尙고마는 이 몸이 病中(병중)에 드러시니 雪憤伸冤(설분신원)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死諸葛(사제갈)도 生仲達(생중달)을 멀리 쫓고, 발업손 孫臏(손빈)도 龐涓(방연)을 잡아거든, 흠몰며 이몸은 手足(수족)이 ㄴ자 잇고 命脈(명맥)이 이어시니 鼠竊狗偷(서절구투)을 저그나 저흐소냐? 飛船(비선)에 달려드러 先鋒(선봉)을 거치면, 九十月(구시월) 霜風(상풍)에 落葉(낙엽)가치 헤치리라. 七縱七禽(칠종칠금)을 우린들 못 할 것인가?

㉗문해석 근심하고 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 씩씩한 기운은 늙어가면서 더욱 씩씩하다마는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있어서, 분함을 씻고 가슴에 맺힌 원한을 푸는 것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죽은 제갈도 살아있는 중달을 멀리 쫓고, 발이 없는 손빈도 그 발을 자른 방연을 잡았는데, 하물며 이 몸은 손과 발이 갖추어 있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 쥐나 개같은 도적(왜구)을 조금이라도 두려워 하겠느냐? 나는 뜻이 달리는 배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구시월 서릿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헤치리라. 칠종칠금을 우린들 못할 것인가?

㉘ 蠡彼島夷(준피도이)들이 수이 乞降(걸항) 하야스라. 降者不殺(항자불살)이니 너를 구티 殲滅(섬멸) 하랴? 吾王成德(오왕성덕)이 欲竝生(욕병생) 하시니라. 太平天下(태평천하)에 堯舜(요순) 君民(군민) 되야 이서 日月光華(일월광화)는 朝復朝(조부조)¹⁾ 하얏거든, 戰船(전선) 트던 우리 몸도 漁舟(어주)에 唱晚(창만) 하고 秋月春風(추월춘풍)에 높히 베고 누어 이서, 聖代(성대) 海不揚波(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하노라.

㉘문해석 꾸물거리는 섬나라 오랑캐들이 빨리 항복하러무나.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않으니너희를 구태여 섬멸하겠는가? 나의 왕(선조) 선조의 성덕이 같이 살기를 원하시니라. 태평천하에 요순의 군민처럼 되어 해와 달의 빛에 아침이 거듭되거든(성왕의 덕이 계속되는 태평 세월이 되거든), 전투 배에 타던 우리 몸도 고기잡이 배에서 늦도록 노래하고, 가을달 봄바람에 배를 높이 베고 누어 있어, 성군 치하의 태평 성대를 다시 보려 하노라.

1) 日月光華(일월광화)는 朝復朝 - 낮이면 햇빛으로, 밤이면 달빛으로 항상 아침임. 여기서는 임금의 성덕

[전문 해석]

늘고 病(병)든 몸을 舟師(주사)로 보느실시 乙巳三夏(을사삼하)에 鎮東營(진동영) 느러 오니, 關防重地(관방중지)에 病이 깊다 안자실랴? 一長劍(일장검) 비기 쓰고 兵船(병선)에 구테 올라, 勵氣瞋目(여기진목) 하야 對馬島(대마도)을 구어보니, 바람조친 黃雲(황운)은 遠近(원근)에 사혀 잇고, 아득흔 滄波(창파)는 긴 하늘과 한 빗칠쇠. 船上(선상)에 徘徊(배회) 하며 古今(고금)을 思憶(사억) 하고 어리미친 懷抱(회포)에 軒轅氏(현원씨)를 애드노라. 大洋(대양)이 茫茫(망망) 하야 天地(천지)에 둘러시니, 진실로 빅 아니면 風波萬里(풍파만리) 맞기, 어너 四夷(사이) 엇볼넌고. 무슨 일 하려 하야 빅 못기를 비롯흔고? 萬世千秋(만세천추)에 業슨 큰 弊(폐) 되야, 普天之下(보천지하)에 萬民怨(만민원) 길우느다. 어즈버 썩드리니 秦始皇(진시황)의 타시로다. 빅 비록 잇다 하나 倭(왜)를 아니 삼기던들, 日本(일본) 對馬島(대마도)로부터 빈 비 절로 나올넌가? 누말을 미더 듯고, 童男童女(동남동녀)를 그디도록 드러다가, 海中(해중) 모든 섬에 難當賊(난당적)을 기쳐 두고, 痛憤(통분)흔 羞辱(수욕)이 華夏(화하)에 다 밋나다. 長生不死藥(장생불사약)을 얼미나 어더 너여, 萬里長城(만리장성) 놓히 사고 몇 萬年(만년)을 사도션고? 늑딴로 죽어가니 有益(유익)흔 줄 모르로다. 어즈버 싱각하니 徐市等(서불 등)이 已甚(이심) 하다 人臣(인신)이 되야서 亡命(망명)도 하느 것가? 神仙(신선)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舟師(주사) 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두어라, 既往不咎(기왕불구)라 일너 무엇호로소니, 속절업슨 是非(시비)를 후리쳐 더더 두자. 潛思覺悟(잠사각오)하니 내 뜻도 固執(고집)고야. 皇帝(황제) 作舟車(작주거)는 윈 줄도 모르로다. 張翰(장한) 江東(강동)에 秋風(추풍)을 만나신들, 扁舟(편주) 곳 아니 타면 天清海闊(천청해활)하다. 어너 興(흥)이 절로 나며, 三公(삼공)도 아니 맞골 第一江山(제일강산)에 浮萍(부평) 곳흔 漁父生涯(어부생涯)를, 一葉舟(일엽주) 아니면 어디 부쳐 든힐넌고? 일언 닐 보건딘 비삼긴 制度(제도)야 至妙(지묘)흔 덧하드마는 엇디흔 우리 물은 느는 듯흔 板屋船(판옥선)을 晝夜(주야)로 빗기 타고, 臨風口永月(임풍영월)호디 興(흥)이 전혀 업는게오? 昔日(석일) 舟中(주중)에는 杯盤(배반)이 狼藉(낭자)터니, 今日(금일) 舟中(주중)에는 大劍長鋌(대검장창) 썩이로다. 혼 가지 빈언마는 가진 빅 다라니, 期間(기간) 憂樂(우락)이 서로 곳지 못하도다. 時時(시시)로 멀이 드러 北辰(북신)을 바라보며 傷時(상시) 老淚(노루)를 天一方(천일방)의 디이느다. 吾東方(오동방) 文物(문물)이 漢唐宋(한당송)에 디라마는 國運(국운)이 不幸(불행)하야 海醜(해추) 兇謀(흉모)에 萬古羞(만고수)을 안고 이서, 百分(백분)에 혼 가지도 못 시서 버려거든, 이몸이 無狀(무상)흔들 臣子(신자)이 되야 이서다가, 窮達(궁달)이 길이 달라 몬 피옵고 늘거신들, 憂國丹心(우국단심)이야 어너 刻(각)에 이즐넌고? 慷慨(강개) 계운 壯氣(장기)는 老當益壯(노당익장)하드마는 도고마는 이 몸이 病中(병중)에 드러시니 雪憤伸冤(설분신원)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死諸葛(사제갈)도 生仲達(생중달)을 멀리 좃고, 발업슨 孫臏(손빈)도 龐涓(방연)을 잡아거든, 흘며 이몸은 手足(수족)이 7자 잇고 命脈(명맥)이 이어시니 鼠竊狗偷(서절구투)을 저그나 저홀소냐? 飛船(비선)에 둘러드러 先鋒(선봉)을 거치면, 九十月(구시월) 霜風(상풍)에 落葉(낙엽)가치 헤치리라. 七縱七禽(칠종칠금)을 우린들 못홀 것가? 蠹彼島夷(준피도이)들아 수이 乞降(걸항)하야스라. 降者不殺(항자불살)이니 너를 구티 殲滅(섬멸)하랴? 吾王成德(오왕성덕)이 欲竝生(욕병생)하시니라. 太平天下(태평천하)에 堯舜(요순) 君民(군민) 되야 이서 日月光華(일월광화)는 朝復朝(조부조)하얏거든, 戰船(전선) 트던 우리 몸도 漁舟(어주)에 唱晚(창만)하고 秋月春風(추월춘풍)에 놓히 베고 누어 이서, 聖代(성대) 海不揚波(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하노라.

누항사는 박인로가 광해군 3년 1611년에 한음(漢陰) 이덕형이 찾아와 누항 생활의 어려움을 묻자 이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이다. 선비로서 관직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농민으로 살아가기에도 역부족인 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자신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의 과도기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전기 양반 가사는 자연에 묻혀 은일 생활을 하더라도 여유 있는 생활 태도, 자연경관에 대한 찬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자연에 은일하면서도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는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사대부와와의 관계에는 어려운 한문어구를 상징적으로 쓰면서도 농민에게 끼이지 못하는 형편을 감안, 일상 언어를 대폭 사용하여 구체적이고도 절실하게 묘사함으로써 가사 문학에 현실 인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① 이덕형이 작자의 생활상을 물었을 때 그 대답으로 지음(安貧樂道). 사대부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농민으로 살아가는 데 만족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지 못하여 양쪽에서 소외되어 있는 괴로움을 절실하게 그림.

송정철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룩한 미화된 표현을 버리는 대신 현실 인식의 실감을 확보하는 길을 열어 사대부 가사의 한계를 탈피하고 가사가 시조보다 개방적일 수 있음을 입증함. 일상 생활의 언사를 대폭 받아들임.→ 조선 후기 가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 역할.

② 전기 사대부 시가에서 후기 서민 가사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 있는 작품. 사대부 가사는 자연 속에 숨어 살며 도를 찾는 '江湖歌道'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자연에 은일하면서도 현실 생활의 어려움(임란 이후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 가사와 다른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정철의 가사와 박인로 가사의 차이

송 정 철	박 인 로
서정적 아름답고 섬세한 우리말 구사	서사적, 사실적 묘사 관념적 한문어구(문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이유)

◆가사 문학의 흐름은 관념적 표현에서 사실적인 표현으로 옮겨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지난 과도기적 특성은 안빈낙도하는 이상적인 삶과 궁핍한 현실적 삶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③ 연대 : 광해군 3년

④ 갈래 : 정격 가사, 한정가

⑤ 제재 : 貧而無怨의 삶

⑥ 표현 : 대구, 설의, 과장, 열거

⑦ 작품의 구성

기	누항(陋巷)	생애저어(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일념으로 살고 싶음)	도입
서	농우(農牛)	회억병과(전쟁에 임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을 회상)	전개
		궁경가색(전란 후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하나 소가 없어 고심함)	
		궁경심려(가뭄에 언뜻 내리는 비를 보고 밭을 갈러 소를 빌리려 감)	
		인인수모(농우를 빌리려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옴)	
강호(江湖)	전환	중조추장(매정한 세태를 한탄하고 밭 갈기를 포기함)	전환
		침피기옥(밝은 달·맑은 바람을 벗 삼아 임자 없는 자연 속에서 절로 늙겠다 다짐)	
결	단사표음	안빈낙도 (빈이무원하고 충효, 화형제, 신봉우를 중히 여기고 살아가겠다고 다짐.)	결말

⑧ 주제 - 전원에서 빈이무원하며 살고자 함

서사 소주제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일념으로 살려는 심정

① 어리고 迂闊(우활)홀 산 이 닥 우히 더니 업다. 吉凶禍福(길흉화복)을 하날기 부쳐 두고, 陋巷(누항) 김푼 곳의 草幕(초막)을 지어 두고, 風朝雨夕(풍조 우석)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셔 흙 밥 닷 흙 粥(죽)에 煙氣(연기)도 하도 할샤. 설 데인 熟冷(숙냉)에 빈 벉 석일 뿐이로다. 生涯(생애) 이러하다, 丈夫(장부) 뜻을 옮길닌가. 安貧一念(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隨宜(수의)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齟齬(저어)하다.

지문해석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은 나보다 더한 이가 없다. 길흉 화복(운명)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추한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 두고, 아침 저녁 비바람에 썩은 짚이 섞이 되어, 세 흙 밥, 닷 흙 죽에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설대운 승냥에 빈 배 속일 뿐이로다. 생활이 이러하다고 장부가 품은 뜻을 바꿀 것인가. 가난 하지만 편안하여, 근심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옳은 일을 좇아 살려 하니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본사 ① 소주제 회억병과(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을 회상)

② ㄹ을히 不足(부족)커든 봄이라 有餘(유여)하며 주머니 뷘엇거든 瓶(병)이라 담겨시 라. 貧困(빈곤)흔 人生이 天地間의 나뿐이라. 飢寒(기한)이 切身(절신)하다 一丹心(일단심)을 이질는가. 奮義忘身(분의망신)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于橐(우탁) 于囊(우랑)의 줌움이 모와 너코, 兵戈(병과) 五載(오재)에 敢死心(감스심)을 가져 이셔, 履尸涉血(이시섭혈)하야 몇 百戰(백전)을 지닌연고.

지문해석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고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거든 술병이라고 술이 담겨 있겠느냐. 가난한 인생이 이 세상에 나뿐이라. 굶주리고 헐벗음이 절실하다고 한가닥 굳은 마음을 잊을 것인가. 외에 분발하여 제 몸을 잊고 죽어야 그만두리라 생각한다. 전대와 망태에 줌움이(한줌 한줌) 모아 넣고, 임진왜란 5년 동안에 죽고야 말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는 혈전을 몇 백전이나 지내었는가.

본사 ② 소주제 궁경가색(전쟁 후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하나 소가 없어 고심함)

③ 一身(일신)이 餘暇(여가) 잇사 一家(일가)를 도라보라. 一老長鬚(일노장수)는 奴主分(노주분)을 이것거든, 告余春及(고여춘급)을 어니 사이 싱각하리. 耕耨問奴(경당문노)인들 놀드려 물릴노고. 窮耕稼穡(궁경가색)이 너 분(분)인 줄 알리로다. 莘野耕耨(신야경수)와 瓏上耕翁(농상경옹) 賤(천)타 하리 업건마는 아프려 갈고전들 어니 쇼로 갈로 손고.

지문해석 일신이 겨를이 있어서 일가를 돌보겠는가? 늙은 종은 종과 주인간의 분수를 잊었거든, 하물며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 주기를 어느 사이에 생각할 것인가? 밭갈기를 종에게 묻고자 한들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나의 분수인 줄을 알겠도다. 세신초(細莘草:잡초)가 많이 난 들에서 밭을 가는 늙은이와 밭두둑 위에서 밭 가는 늙은이를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건마는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 것인가?

본사 ③ 소주제 궁경심려(가뭄에 언뜻 내리는 비를 보고 밭을 갈려고 소를 빌리러 감)

④ 旱既太甚(한기태심) ㄱ야 時節(시절)이 다 느즌 제, 西疇(서주) 눅흔 눈에 잠깐 긴 널 비예 道上(도상) 無源水(무원수)를 반만칸 디혀 두고, 쇼 혼 적 듀마 ㅎ고 엄섬이 ㅎ는 말삼, 親切호라 너긴 집의 들 업슨 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셔, 구디 다든 門(문) 밧긔 어 득히 혼자 서셔 큰 기춤 아함이를 良久(양구)토록 ㅎ은 後(후)에, 어화 기 뉘신고 廉恥(염치) 업산 너옴노라. 初更(초경)도 거윈디 기 엇지 와 거신고. 年年에 이러ㅎ기 苟且(구차)흔 줄 알건마는 쇼 업슨 窮家(궁가)에 혜염 만하 왓삼노라.

【지문해석】 가뭄이 이미 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 때에, 서쪽 두둑이 높은 눈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길 위에 흘러내리는 근원없는 물을 반만큼 대어 두고, 소 한 번 빌려 주겠다 하는 탐탁하지 않게 하는 말쌈을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도 없는 황혼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멀찍이 혼자 서서 큰 기침 에헬 소리를 꽤 오래도록 한 뒤에 “아, 그가 누구이신가?” 하고 묻는 말에 “염치없는 저을시다” 하고 대답하니,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대 어찌하여 와 계신가?” 하기에 “해마다 이리 하기가 염치없는 줄 알건마는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이 많아 왓삼노라.”

본사 ④ 소주제 | 인인수모(농우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옴)

수 공ㅎ나나 갑시나 주엄 즉도 ㅎ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 기 稚(치)를 玉脂泣(옥지읍)게 꾸어 너고, 간 이근 三亥酒(삼해주)를 醉(취)토록 勸(권) ㅎ거든 이러한 恩惠(은혜)를 어이 아니 갑ㅎ넨고. 來日로 주마 ㅎ고 큰 言約(언약) ㅎ야 거든, 失約(실약)이 未便(미편)ㅎ니 사설이 어려왜라. 實爲(실위) 그러ㅎ면 혈마 어이 ㅎ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즉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風彩(풍채) 저근 形容(형용) 애 기 즈칠 썬이로다.

【지문해석】 “공짜로나 값을 치르거나 해서 줄 만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렁을 구슬같은 기름이 끓어 오르게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였거든, 이러한 고마움을 어찌 아니 갑겠는가? 내일 소를 빌려 주마 하고 큰 언약을 하였거든, 약속을 어김이 미안하니 말쌈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설마 어찌할까? 현 갖을 숙여 쓰고, 축이 없는 질신에 맥없이 물러나오니 풍채 작은 모습에 개가 짓을 썬이로다.

본사 ⑤ 소주제 | 종조추창(매정한 세태를 한탄하고 발갈기를 포기함)

숙 蝸室(와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랴. 北窓(북창)을 비겨 안자 식비를 기다리 니, 無情흔 戴勝(대승)은 이 너 恨(한)을 도우는다. 終朝惆悵(종조추창)ㅎ며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는 農歌(농가)도 興(흥) 업서 들리는다. 世情(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아식운 저 소뉘는 벳보님도 ㄱ호ㅎ세고, 가시 영긴 묵은 밧도 容易(용이)케 갈런 마는, 虛堂半壁(허당반벽)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春耕(춘경)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 자.

【지문해석】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으랴? 북쪽 창문에 기대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내 원한을 재촉한다. 아침이 마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이 없이 들린다. 세상 인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벳의 밭도 좋구나! 가시가 영긴 묵은 밧도 쉽게 갈려마는, 텅 빈 집 벽 가운데 쓸데 없이 걸렸구나! 봄갈이도 거의 지났다. 땀개쳐 던져 두자.

결사 ① 소주제 자연을 벗삼으면서 절로 늙기를 소망함

⑦ 江湖(강호) 혼 씬을 꾸언지도 오리러니, 口腹(구복)이 爲累(위루) 하야 어지버 이져셔다. 瞻彼淇水(첨피기옥) 혼디 綠竹(녹죽)도 하도 할샤. 有斐君子(유비군자) 들아 낙디 혼나 빌러스라. 蘆花(노화) 깎은 곳에 明月清風(명월 청풍) 벗이 되야, 님지 업슨 風月江山(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그리라. 無心(무심) 혼 白鷗(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지문해석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한 꿈을 끈 지도 오래더니, 먹고 마시는 것이 거리낌이 되어, 아이! 슬프게도 잊었다. 저기수의 물가를 보건대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교양있는 선비들아, 낚시대 하나 빌려 다오. 갈대꽃 깊은 곳에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벗이 되어, 임자 없는 자연 속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갈매기야 너더러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다들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결사 ② 소주제 안빈낙도의 삶 소망

⑧ 無狀(무상) 혼 이 몸애 무슨 志趣(지취)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을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粥(죽)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스라. 니 貧賤(빈천)을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으 富貴(부귀)를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人間(인간) 어넉 일이 命(명) 밧기 삼겨시리. 貧而無怨(빈이무원)을 어렵다 하건마는 니 生涯(생애) 이러호디 설은 쫓은 업노왜라. 簞食瓢飲(단사표음)을 이도 못(죽)히 너기로라. 平生(평생) 혼 쫓이 溫飽(온포)애는 업노왜라. 太平天下(태평천하)애 忠孝(충효)를 일을 삼아 和兄弟(화형제) 信朋友(신봉우) 외다 흐리 님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렸노라.

지문해석 (이제는 소 빌리기를 맹세코 다시 말자) 보잘것 없는 이 몸이 무슨 소원이 있으리요마는 두세 이랑 되는 밧과 논을 다 목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오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나의 빈천함을 슬게 여겨 손을 헤친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겠느냐? 가난하여도 원망하지 않음을 어렵다고 하건마는 내 생활이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다. 한 도시락의 밥을 먹고,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는 어려운 생활도 만족하게 여긴다. 평생의 한 뜻이 따듯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는 없다. 태평스런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로 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끼리 신의 있게 사귀는 일을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밖에 나머진 일이야 태어난 대로 살아가겠노라.

[전문 해석]

어리고 迂闊(우활)홀 산 이 너 우히 더니 업다. 吉凶禍福(길흉화복)을 하날기 부쳐 두고, 陋巷(누항) 깃픈 곳의 草幕(초막)을 지어 두고, 風朝雨夕(풍조 우석)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서 홉 밥 닷 홉 粥(죽)에 煙氣(연기)도 하도 할샤. 설 데인 熟冷(숙냉)애 빈 비 석 일 썬이로다. 生涯(생애) 이러호다, 丈夫(장부) 뜻을 옮길년가. 安貧一念(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이서, 隨宜(수의)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齟齬(저어)호다. 又올히 不足(부족)커든 봄이라 有餘(유여)호며 주머니 뷘엇거든 瓶(병)이라 담겨시랴. 貧困(빈곤)호 人生이 天地間의 나썬이라. 飢寒(기한)이 切身(절신)호다 一丹心(일단심)을 이질는가. 奮義忘身(분의망신)호야 죽어야 말너 너겨, 于橐(우탁) 于囊(우랑)의 줍줍이 모아 너코, 兵戈(병과) 五載(오재)에 敢死心(감스심)을 가져 이서, 履尸涉血(이시섭혈)호야 몇 百戰(백전)을 지덕연고. 一身(일신)이 餘暇(여가) 잇사 一家(일가)를 도라보랴. 一老長鬚(일노장수)는 奴主分(노주분)을 이젓거든, 告余春及(고여춘급)을 어니 사이 싱각호리. 耕當問奴(경당문노)인들 놀드려 물물논고. 窮耕稼穡(궁경가색)이 너 分(분)인 줄 알리 로다. 莘野耕耨(신야경수)와 瓏上耕翁(농상경옹) 賤(천)타 호리 업건마는 아쁘려 갈고 전들 어니 쇼로 갈로손고. 旱既太甚(한기태심)호야 時節(시절)이 다 느즌 제, 西疇(서주) 눅흔 눈에 잠깐 긴 널비에 道上(도상) 無源水(무원수)를 반만잔 디혀 두고, 쇼 호 적 듀마 호고 엄섬이 호는 말삼, 親切호라 너긴 집의 들 업슨 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구 디 다든 門(문) 밧기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춤 아합이를 良久(양구)토록 호은 後(후)에, 어화 기 뉘신고 廉恥(염치) 업산 너옴노라. 初更(초경)도 거윈디 기 엇지 와 거신고. 年年에 이러호기 苟且(구차)호 줄 알건마는 쇼 업슨 窮家(궁가)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호니나 갑시나 주엄 죽도 호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넌 집 저 사름이, 목 불근 수기 稚(치)를 玉脂泣(옥지읍)게 꾸어 너고, 간 이근 三亥酒(삼해주)를 醉(취)토록 勸(권)호거든 이러한 恩惠(은혜)를 어이 아니 갑홀넉고. 來日로 주마 호고 큰 言約(언약) 호야거든, 失約(실약)이 未便(미편)호니 사설이 어려왜라. 實爲(실위) 그러호면 험마 어이홀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즉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風彩(풍채) 저근 形容(형용)애 기 즈칠 썬이로다. 蝸室(와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랴. 北窓(북창)을 비겨 안자 식빅를 기다리니, 無情호 戴勝(대승)은 이 너 恨(한)을 도우는다. 終朝惆悵(종조추창)호며 먼 들홀 바라보니, 즐기는 農歌(농가)도 興(흥) 업서 들리는다. 世情(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아식은 저 소뉘는 벗보님도 도홀세고, 가시 영권 목은 밧도 容易(용이)케 갈런마는, 虛堂半壁(허당반벽)에 슬디업시 걸러고야. 春耕(춘경)도 거 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江湖(강호) 호 꿈을 꾸언지도 오리러니, 口腹(구복)이 爲累(위루)호야 어지버 이저셔다. 瞻彼淇水(첨피기옥)혼디 綠竹(녹죽)도 하도 할샤. 有斐君子(유비군자)들아 낙디 호나 빌려스라. 蘆花(노화) 깃픈 곳에 明月清風(명월 청풍) 벗이 되야, 넘지 업슨 風月江山(풍월강산)애 절로절로 늘그리랴. 無心(무심)호 白鷗(백구)야 오라 호며 말라 호랴. 다토리 업슬슨 다문 인가 너기로라. 無狀(무상)호 이 몸애 무슨 志趣(지취)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을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粥(죽)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스라. 너 貧賤(빈천)을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으 富貴(부귀)를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人間(인간) 어니 일이 命(명) 밧기 삼겨시리. 貧而無怨(빈이무원)을 어렵다 호건마는 너 生涯(생애) 이러호디 설은 뜻은 업노왜라. 簞食瓢飲(단사표음)을 이도 足(족)히 너기로라. 平生(평생) 호 뜻이 溫飽(온포)애는 업노왜라. 太平天下(태평천하)애 忠孝(충효)를 일을 삼아 和兄弟(화형제) 信朋友(신봉우) 외다 호리 뉘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렸노라.

고공가(雇工歌)

입 진왜란 직후에 허전이 쓴 노래로, 국사(國事)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정사에 힘쓰지 않고 사리 사욕만을 추구하는 관리들을 집안의 게으르고 어리석은 머슴에 빗대어 통렬히 비판한 작품이다. 입진왜란 때 왜적에게 그렇게 무참히 당하고 유교적 이상이 깨어진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여, 그러한 현실을 수습하려 들지 않는 신하들의 나태한 모습을 은유적 수법으로 잘 형상화하였다. 이 작품에서 지은이가 관료 사회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유교적인 이상 사회를 재건하려는 숭고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연대 : 조선 선조 때(입진왜란 직후)
- ▶형식 : 3.4조 4.4조
- ▶성격 : 교훈적, 계도적, 경세적(警世的)
- ▶주제 : 나태하고 이기적인 관리들의 행태 비판

이 작품의 화답가(和答歌)로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가 있는데, 이것은 입진왜란 이후 집권층이 정사(政事)보다는 당파 싸움에 힘쓰자, 작자가 '어른 종(영의정)'의 입장에서, '종(신하)'들을 나무라고 '마나님(임금)'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지은 작품이다.

Related Links

이원익의 가사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현대어 풀이

어와, 여러 양반들이 돌아앉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어찌하여 젊은 손님이 헤아림 없이 다니는 것인가. 마누라의 말씀을 안 들어보는가. 나는 이렇지언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공물을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을 다 보았다. 우리 집 살림이 예로부터 이랬던가. 농민이 많단 말이 한 나라에 소문이 났는데 먹고 입으며 고공살이 하는 종이 백여 사람이 남짓한데도 무슨 일을 하느라고 뒷발을 목혀 놓고 농장이 없다 하는가. 호미 연장을 못 갖추었는가. 날마다 무엇 하려 밥만 먹고 다니면서 열 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아이들 탓이런가. 우리 집 종의 버릇 보자 하니 괴이하구나.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업신여겨 육보이고, 왔다갔다하는 어리석은 손님이 양반을 실없는 말로 빗대어 희롱하는가. 옳지 못하게 물건을 빼돌려 모으고 다른 꾀로 자기 일만 하니 큰 집의 수많은 일을 누가 힘써 할 것인가. 곡식고가 비었거든 창고를 지키는 사람인들 어찌하며 세간 살림이 흐트러지니 질그릇인들 어찌 할 것인가. 자신의 잘못은 몰라도 남의 잘못을 모르겠는가. 풀어헤치거나 메우거나 헐뜯거나 돕거나 하루 열두 시간 여수선을 편 격이고, 외별감만 많이 있어 마름 대신에 세금을 받던 주인도 제 소임을 다 버리고 몸만 사릴 뿐이로다. 비가 새어 썩은 집을 누가 고치며 옷 벗어 무너진 담을 누가 고쳐 쓸 것인가. 불한당 구멍에 든 도적 멀리 다니지 아니하거든 화살을 찬 상직군은 누가 힘써 할 것인가. 크나크게 기운 집에 마누라 혼자 앉아 하는 명령을 누가 들으며 논의를 누구와 할 것인가. 많은 근심들 혼자 맡고 계시니 우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이 집이 이리 된 것을 누구의 탓이라 할 것인가. 헤아림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헤아려 보니 모든 일이 마누라 탓이로다. 내 주인 잘못되었다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지만 그렇다. 세상을 보려니까 민망하여 여쭙나이다.

새끼 꼬는 일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소. 집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잘 휘어잡으시고 종들을 휘어잡으시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이렇게 하시면 집안의 도가 저절로 일어서리라.

집의 옷 밥을 얻고 들먹는 저 雇工(고공)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로느냐. 비 오는 날 일 업슬 지 솟 쏘면서 니르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스리허려 홀 지, 仁心(인심)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풀 췌고 터을 닦가 큰 집을 지어 내고, 셔리 보십 장기 쇼로 田畚(전답)을 起耕(기경)하니, 오려논 터밭치 여드레 ㄹ리로다. 子孫(자손)에 傳繼(전계)허야 代代(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죠커니와 雇工(고공)도 勤儉(근검)터라.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을여러 사던 것슬, 요스가 雇工(고공)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 사발 크나 짜그나 동웃시 죠코 즘나, 므음을 듯호는 듯 호슈을 식오논 듯, 무슴 일 감드러 흘깃할깃 허누스다. 너희닌 일 아니코 時節(시절)쫓츠 스오나와, ㄹ독의 ㄹ 세간이 플러지게 되야는디, 옛그지 火強盜(화강도)에 家產(가산)이 蕩盡(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붓고 먹을 췌시 전혀 업다. 크나큰 세스를 엇지허여 니로려료. 金哥(김가) 李哥(이가) 雇工(고공)들아 식 므음 먹어슬라.

너희닌 절머는다 험 혈나 아니스다. 혼 소티 밥 먹으며 매양의 仄仄(측측)허라. 혼 므음 혼 췌으로 녀름을 지어스라. 혼 집이 가을열면 옷 밥을 分別(분별)허라. 누고는 장기 잡고 누고는 쇼을 물니, 밧 갈고 논 살마 벼 세워 더져 두고, 날 도흔 호미로 기음을 므야스라. 山田(산전)도 겻츠룻고 무논도 기워간다. 사림피 물목 나셔 벳 겨티 세울세라.

七夕(칠석)의 호미 췌고 기음을 다 ㄹ 후의, 솟 쏘기 ㄹ 잘 허며 셴으란 ㄹ 엇그랴. 너희 지조 세아려 자라자라 맛스라. ㄹ을거둔 후면 成造(성조)를 아니허라. 집으란 내 지으게 움으란 네 무더라. 너희 지조를 내 斟酌(짐작)허엿노라. 너희도 머글 일을 分別(분별)을 허려므나. 명석의 벼를 ㄹ들 도흔 ㄹ 구름 췌여 벳뉘을 언지 보랴. 방하을 못 췌거든 거츠나 거츰 오려, 옥 ㄹ툰 白米(백미) 될 줄 ㄹ 아라 보리스니.

너희닌 데리고 새 소리 사쟈 하니, 옛그지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허디, 너희닌 귀는 업서 저런 줄 모르관디, 화살을 전혀 얻고 옷 밥만 닦토는다. 너희닌 다리고 ㄹ뉘이 주리는가. 粥早飯(죽조반) 아츰 저녁 더허다 먹엿거든, 은혜란 싱각 아녀 제 일만 허려 하니, 험 헤는 새 들이리 어니 제 어더 이셔, 집일을 맞지고 시름을 니즈려뇨. 너희 일 익드라 허며셔 솟 혼 소리 쏘괘라.

지문해석 집의 옷과 밥을 제쳐놓고 빌어먹는 저 고공(雇工),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로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니라. 처음에 한어버이 살림살이하러 할 때,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집을 지어내고, 췌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기경(起耕)하니, 올벼 논 터밭이 여드레같이로다. 자손에 전계(傳繼)하여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 밥그릇 크나 작나 입은 옷이 좋나 나쁘나,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릴 시기하는 듯, 무슨 일 감겨 들어 반목을 일삼느냐? 너희들 일 아니 하고 시절조차 사나워서, 가뜩이나 내 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옛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을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뇨. 김가(金哥) 이가(李哥)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려무나. 너희는 젊었다고 생각하려 아니하느냐. 한 솥의 밥 먹으며 항상 다투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농사를 짓자구나. 한 집이 부유하면 옷과 밥을 분별하라. 누구는 쟁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밧 갈고 논 갈아 벼를 심어 던져 두고, 날 좋은 호미로 김을 매자구나. 산 밧도 거칠었고 무논도 기워 간다. 사림피 말뚝 놓아 벼 곁에 세워라. 칠석에 호미 췌고 김을 다 ㄹ 후에, 새끼 꼬기 ㄹ 잘하며, 셴은 ㄹ 엇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서로 서로 말아라. 가을 거둔 후면 성조(成造)를 아니하라. 집일랑 내 지을게 움이런 네 물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ㄹ들 좋은 해 구름 꺾어, 벳뉘를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췌거든 거칠고 거친 올벼, 옥같은 백미 될 줄 ㄹ 알아 오겠는가.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옛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는 없어 저런 줄 모르기에, 방비는 전혀 알고 옷 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촛는가 주리는가. 죽조반 아침 저녁 더 해다 먹엿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허려 하니, 사려 깊은 새 들이리 어느 때 열어서, 집 일을 맡기고 시름을 잊으려뇨. 너희 일을 애달파 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았구나.

유산가(遊山歌)

조 선 후기에 이르러 가사는 길이가 늘어나면서 산문화(散文化)하거나 창곡화(唱曲化)하여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잡가는 가창 가사의 한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어서, 개화기까지 불려지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내용이나 형식은 일정하지 않으나, 가사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서정적인 소리와 교술적인 소리를 두루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갈래상의 유동성과 혼합성은 조선 후기의 다른 가창 양식과의 관계를 말해 줄 뿐만 아니라, 개화기의 창가나 새로운 시가 형태로 이어지는 측면도 지닌다.

- 1) 갈래: 잡가(雜歌). 평민가사(平民歌詞) 계통의 잡가
- 2) 성격: 심미적, 묘사적, 감각적, 서경적, 유희적
- 3) 어조: 자연을 완상하는 영탄적 목소리
- 4) 연대: 미상(대체로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로 봄)
- 5) 표현: ①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히 구사한 생동감 넘치는 표현.
② 중국의 고사, 한자 어구, 한시 구절이 많음.
③ 시각과 청각적 심상어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
④ 화창함과 현란함, 약동감과 생동감이 넘치는 즐거운 리듬감
- 6) 제재: 봄의 아름다운 정경
- 7) 주제: 봄 경치의 완상과 흥겨운 정취
- 8) 삶의 태도: 삶의 비애를 상쇄하고 유희적이고 향락적인 삶의 자세를 추구함.
- 9)구성: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
서사: 봄의 경치 구경 권유 ⇒화란춘성하고~(산천 경개 구경)
본사①:봄의 경치 완상⇒죽장망혜~(동양화적 화폭)
본사②:봄의 경치 완상⇒제비는 물을 차고~(웅장한 풍경화)
결사:무궁한 경개 예찬 ⇒주곡제금은~(일출낙조)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 방창(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 경개(山川景概)를 구경을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 강산을 들어를 가니, 만산 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 일도(一年一度)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 취죽(蒼松翠竹)은 창창 울울(蒼蒼鬱鬱)한데, 기화 요초(琪花瑤草) 난만 중(爛漫中)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 점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 가절(三春佳節)이 좋을씨고. 도화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축수 애삼춘(漁舟逐水愛三春)이어든 무릉 도원(武陵桃源)이 예 아니냐. 양류세지 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하니 황산곡리 당춘절(黃山谷裏當春節)에 연명 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훨 펴고, 펼펼펼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絕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괘괘,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물이 주루룩, 저 골물이 쌀쌀, 열에 열 골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괘괘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주곡제금(奏穀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豐)이라. 일출 낙조(日出落照)가 눈앞에 벌어나 경개 무궁(景概無窮) 좋을 씨고.

더 읽어두기

만분가(萬憤歌) -조위

'만분가'는 유배 가사의 효시로 알려진 작품이다. 작자인 조위(曹偉)가 무오 사화(戊午士禍)로 인하여 귀양간 유배지인 순천에서 지은 것이다. 작품의 내용을 보면 작자가 사화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귀양살이를 비분 강개한 심정을 임금인 성종에게 토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초(楚)나라 굴원(屈原)이 죄없이 쫓겨나서 '이소(離騷)'를 지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듯이 자신도 죄없이 귀양와 있다는 것이다. '만분가'는 조선 전기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희생된 문신(文臣)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유배가사의 효시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선 문학사적 가치가 매우 큰 작품이다. 또한 이 작품은 후대에 이어지는 유배가사의 일종인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서 임금이 계신 곳을 도가의 천상 세계로 설정한 것이라든가, 유배되어 귀양가 있는 작자는 천상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던 인물로 설정된 점 등이 모두 '만분가'의 설정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조선조 유배가사의 중심적인 흐름을 이루면서 이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분가'의 유배가사의 전개에 끼친 영향과 문학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만분가> 현대역 읽기

천상 백옥경 / 십이루 어디멘고 / 오색은 깊은 곳에 / 자청전이 가렸으니 / 구만 리 먼 하늘을 / 꿈이라도 같동말동 / 차라리 죽어져서 / 억만 번 변화하여 / 남산 늦은 봄에 / 두견의 녀이 되어 / 이화 가지 위에 밤낮으로 못 울거든 / 삼청 동리에 / 저문 하늘 구름 되어 / 바람에 흩날려 / 자미궁에 날아올라 / 옥황 향안 전에 / 지척에 나가 앉아 / 흥중에 쌓인 말씀 / 실컷 사죄리라 / 아아 이내 몸이 / 천지간에 늦게 나니 / 황하수 맑다마는 / 초객의 후신인가 / 상심도 가이없고 / 가태부의 녀이런가 / 한숨은 무슨 일이고 / 형강은 고향이라 / 십 년을 유락하니 / 백구와 벗이 되어 / 함께 놀자 하였더니 / 어르는 듯 괴는 듯 / 남 없는 님을 만나 /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 향기롭다 / 옥색실 이음 짧아 / 님의 옷을 못하 여도 / 바다 같은 님의 은혜 / 추호나 값으리라 / 백옥 같은 이내 마음 / 님 위하여 지키고 있었더니 /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섞어 치니 / 일모수죽에 / 취수도 냉박하구나 / 유란을 꺾어 쥐고 / 님 계신 데 바라보니 / 약수 가로놓인 데 / 구름길이 험하구나 / 다 썩은 닭의 얼굴 / 첫맛도 채 몰라서 / 초췌한 이 얼굴이 / 님 그려 이리 되었구나 / 천층랑(힘한 물결) 한가운데 / 백척간에 올랐더니 / 무단한 회오리 바람이 / 환해 중에 내리나니 / 억만 장(丈) 못에 빠져 / 하늘 땅을 모르겠도다 / 노나라 흐린 술에 / 한단이 무슨 죄며 / 진인이 취한 잔에 / 월인이 웃은 탓인가

/ 성문 모진 불에 / 옥석이 함께 타니 / 돌 앞에 심은 난(蘭)이 / 반이나 시들었네 / 오동 저문 날 비에 / 외기러기 울며 갈 때 / 관산 만릿길이 / 눈에 암암 밝히는 듯 / 청련시 고쳐 읊고 / 팔도 한을 스쳐 보니 / 화산에 우는 새야 / 이별도 괴로워라 / 망부(望夫) 산전(山前)에 / 석양이 거의로다 / 기다리고 바라다가 / 안력(眼力)이 다했던가 / 낙화 말이 없고 / 벽창(碧窓)이 어두우니 / 입 노란 새끼새들 / 어미도 그리는구나 / 팔월 추풍(秋風)이 / 띠집을 거두니 / 빈 깃에 싸인 알이 / 수화를 못 면하도다 / 생리사별(生離死別)을 / 한 몸에 혼자 맡아 / 삼천 장(丈) 백발이 / 일야(一夜)에 길기도 길구나 / 풍파에 험 배 타고 /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 강천 지는 해에 / 주춤나 무양한가 / 밀거니 당기거니 / 염예퇴를 겨우 지나 / 만 리 봉정(鵬程)을 / 머물리 견주더니 / 바람에 다 부치어 / 흑룡 강에 떨어진 듯 / 천지 가이없고 / 어안(魚雁)이 무정하니 / 옥 같은 면목을 / 그리다가 말려는지고 / 매화나 보내고자 / 역로(驛路)를 바라보니 / 옥량(옥대들보)명월을 / 옛 보던 낯빛인 듯 / 양춘을 언제 볼까 / 눈비를 혼자 맞아 / 벽해 넓은 가에 / 녀조차 흩어지니 / 나의 긴 소매를 / 누굴 위하여 적시느고 / 태상 칠위 분이 / 옥진군자 명이시니 / 천상 남루에 / 생적을 올리시며 / 지하 북풍의 / 사명을 벗기실까 / 죽기도 명이요 / 살기도 하나리니 / 진채지액을 / 성인도 못 면하며 / 누설 비죄를 / 군자인들 어이하리 / 오월 비상이 / 눈물로 어리는 듯 / 삼 년 대한도 / 원기로 되었도다 / 초수남관이 / 고금에 한둘이며 / 백발황상에 / 서러운 일도 하고 많다 / 건곤이 병이 들어 / 혼돈이 죽은 후에 / 하늘이 침음할 듯 / 관색성이 비취는 듯 / 고정(고정)의 국에 / 원분만 쌓였으니 / 차라리 할마같이 / 눈 감고 지내고저 / 창창막막하야 / 못 믿을손 조화로다 / 이러나저러나 / 하늘을 원망할까 / 도척도 성히 놓고 / 백이도 아사하니 / 동릉이 높은 걸까 / 수양산이 낮은 걸까 / 남화 삼십 편에 / 의론도 많기도 많구나 / 남가의 지난 꿈을 / 생각거든 싫고 미워라 / 고국 송추를 / 꿈에 가만져 보고 / 선인 구묘를 / 깬 후에 생각하니 / 구회간장이 / 굵이굵이 끊어졌구나 / 장해음운에 / 백주에 흩어지니 / 호남 어느 곳이 / 귀역의 연수런지 / 이매망량 / 실컷 젖은 가에 / 백옥은 무슨 일로 / 청승의 깃이 되고 / 북풍에 혼자 서서 / 가없이 우

는 뜻을 / 하늘 같은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 목란추곡
 에 / 향기로운 탓이런가 / 첩여 소군이/ 박명한 몸이런가 / 군은
 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취 없고 / 옥안이 꽃이로되/ 눈물 가
 려 못 보겠구나 /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 이 몸
 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 녹아지고 죽어지어/ 혼백조차
 흩어지고 / 공산 촉루같이/ 임자 없이 굴러 다니다가 /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이 되어 있어 / 바람 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 윤희 만겹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 일만 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님
 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겠구나 / 한이 뿌리 되고/ 눈
 물로 가지삼아 / 님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 되어 / 설중에
 혼자 피어/ 참변에 이우는 듯 / 월중소영이/ 님의 옷에 비취거든
 / 어여쁜 이 얼굴을/ 너로구나 반기실까 / 동풍이 유정하여/ 암
 향을 불어 올려 / 고결한 이내 생계/ 죽림에나 부치고저 / 빈 낙
 싹대 비껴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 백구 건너 저어/ 건덕궁에
 가고 지고 / 그래도 한 마음은/ 위궤에 달려 있어 / 내 문은 누
 역 속에/ 님 향한 꿈을 깨어 / 일편장안을/ 일하에 바라보고 /
 외로 머뭇거리며 옳이 머뭇거리며/ 이 몸의 탓이런가 / 이 몸이
 전혀 몰라 / 천도막막하니/ 물을 길어 전혀 없다 / 복희씨 육십
 사괘/ 천지 만물 섬긴 뜻을 / 주공을 꿈에 뵈어/ 자세히 여쭙고
 저 /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 구름 위에 나는 새
 야/ 네 아니 알겠더냐 / 아아 이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
 어디 어디 쌓였으며/ 비가 되고 물이 되어 / 어디 어디 울며 갈까
 / 아무나 이내 뜻/ 알 이 곧 있으면 백세교유 만세상감하리라.

만언사(萬言詞)

-안조환

- ▶갈래 : 유배가사, 전편 2,916구, 속편 594구로 된 장편가사
- ▶구성 : 만언사라는 주가사와 만언답사, 사부모, 사처, 사자, 사백부로 구성
- ▶주제 : 귀양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
- ▶의의 : 김진형이 지은 장편 유배 가사인 <북천가>와 더불어 쌍벽

유배 가사의 하나로, 조선 정조 때 대전별감이던 안조환이 지은 가사로 <사고향(思故鄉)>이라고도 한다. 작자가 주색에 빠져서 국고금을 축낸 죄로 34세 때 추자도에 귀양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을 애절하게 읊었다. 이것이 임금에게 알려져 유배에서 풀려났다는 일화도 있다.

조위의 <만분가>, 김진형의 <북천가> 등과 아울러 유배문학에 속하는 가사이니, 다른 가사와는 달리 자신의 체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표백하여 놓은 사실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제평가된다. 전편 2,916구, 속편 594구로 된 장편가사로, 3종의 필사본이 전하는데, 모두 한글로 쓰여졌다.

만언사는 주가사와 만언답사, 사부모, 사처, 사자, 사백부로 구성되어 있다.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총 3,500여구에 달한다. 음수율은 3·4조와 4·4조가 주조를 이루며, 2·4조와 2·3조등도 보인다. 11세에 어머니 상을 당

하고, 10여년간 외가에 의탁하였다가 후에 계모를 맞아 효행을 다하였던 일과 혼인하여 여유있는 생활을 누리면서 행락에 빠지기도 하였던 일을 노래하였다. 이어서 벼슬하여 부귀가 번화하다가 유배형을 받게 된 일과, 유배길에 강두에서 부모친척과 이별하고 경기도, 충청도를 거쳐 다시 전라도의 여주, 익산, 전주, 정읍, 나주, 영암을 거치면서 유배지인 추자도에 이르는 노정과 그 노정에서 느낀 바를 표현하였다. 다음에는 유배지의 물과 더위로 인한 고초와 보리밥과 소금과 장으로 연명하는 굶주림 등을 묘사하였다.

김진형이 지은 장편 유배 가사인 <북천가>와 더불어 쌍벽을 이룬다.

<전략>

어와 보리 가을 되었는가 전산후산에

황금 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

지계를 벗어 놓고 전간에 굶일면서

한가히 되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이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쓸어내어

일분은 밥쌀하고 일분은 술쌀하여

밥먹어 배부르고 술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하여 격양가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면

공명을 탐치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이 즐거온 줄 청운이 알았으면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윈 줄 아니

뉘우쳐 하는 마음 없다가 하랴마는

범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뉘에 올라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천동할 줄 알았으면 잠간 루에 올랐으랴

파선할 줄 알았으면 전세대동 실었으랴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가 장기 벌었으랴

죄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 탐차 하였으랴

산진메 수진메와 해동청 보라매가

심수총림 숙여 들어 산계야양 차고 날제

아깝다 걸리었다 두 날개 걸리었다

먹기에 탐심나서 형극에 걸리었다 <후략>

용부가(庸婦歌) -미상-조선 후기 가사

작자 연대 미상의 조선 후기 가사인 이 작품은 못난 여인이 시집 살이를 하는 동안 저지르는 행동을 풍자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조선 후기 가사가 보인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관심 영역의 확대 및 여성 및 평민 작가층의 성장 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이 다소 과장되어 표현되기도 했으나 경세(經世)와 훈민(訓民)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주제 : 여성들의 비행 비판
- ▶성격 : 풍자적(諷刺的), 경세가(警世歌 : 세상을 경계하기 위한 노래)
- ▶용부가(庸婦歌)--떴떴한 지어미의 노래 ->경계와 훈민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

홍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의 거동보소.
 시집 간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흥을 잡아 내네.
 계엄할사 시아버니 암상할사 시어머니.
 고자질에 시누이와 엄숙하기 말동서라.
 요악(妖惡)한 아우동서 여우 같은 시앗년에
 드세도다 남녀 노복(奴僕) 들며 나며 흥구덕에
 남편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十伐之木) 되었세라.
 여기 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숫병을 기울이며
 치마 쓰고 내닫기와 보짐 싸고 도망질에
 오락가락 못 견디어 승(僧)들이나 따라갈까?
 긴 장죽(長竹)이 벗이 되고 들 구경 하여 볼까?
 문복(問卜)하기 소일이라
 걸으로는 시름이요 속으로는 딴 생각에
 반분대(半紛黛)로 일을 삼고 털뽀기가 세월이라.
 시부모가 경계(警戒)하면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남편이 걱정하면 뒤받아 맞닥수여.
 들고 나니 초롱군에 팔자나 고쳐 볼까.
 양반 자랑 모두 하며 색주가나 하여 볼까
 남문 밖 뺨덕어미 천생이 저러한가 배워서 그러한가
 본 데 없이 자라나서 여기저기 무릎맞침
 싸흠질로 세월이며 남의 말 말전주와
 들며는 음식(飲食) 공논 조상(祖上)은 부지(不知)하고
 불공(佛供)하기 위업(爲業)할 제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 가지 다 내주고
 남편 모양볼작 시면 삼살개 뒷다리요
 자식 거동 볼작시면 털 벗은 슬개미라

옛장사야 떡장사야 아이 핑계 다 부르고
 물레 앞에 선하품과 씨아 앞에 기지개라
 이 집 저 집 이간질과 음담패설 일삼는다.
 모함(謀陷) 잡고 똥 먹이기
 세간은 줄어가고 걱정은 늘어간다
 치마는 절러 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 (중략)

- 계엄 : 마음이 컴컴하고 욕심이 많음
- 암상 : 남을 미워하고 샘을 잘 내는 잔망스러운 심술
- 시앗 : 남편의 첩
- 요악(妖惡) : 요사스럽고 간악함.
- 노복(奴僕) : 사내 종
- 흥구덕 : 남의 허물을 험상궂게 말함.
- 십벌지목(十伐之木)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 간숫병 : 간수병
- 간수 : 소금이 숨기를 빨아들여 녹아 나오는 쓰고 짠 물
- 반분대 : 얼은 화장
- 문복(問卜) : 점쟁이에게 길 흉을 물어 봄
- 경계(警戒) : 잘 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조심함
- 맞닥수 : 마주 대꾸하기
- 초롱군 : 초립동(草笠童). 초립을 쓴 아이
- 말전주 : 말을 여기저기 옮기는 것.
- 위업할제 : 일삼을 때
- 선하품 : 흥미없는 일을 할 때 나오는 하품
- 씨아 : 목화씨를 빼는 기구
- 절러 : 짧아

우부가(愚夫歌) -미상(초당문답가)<경세설(警世說)>

작자 연대 미상의 가사로, 어리석은 짓을 일삼는 남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을 계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작품이다. 이 노래는 '개똥이, 꿈생원, 평생원'의 못난 세 남자를 등장시켜, 이들의 못난 짓을 뼈집없이 열거함으로써, 교훈과 더불어 흥미와 웃음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세 남자는 모두 양반들로 윤리 규범을 어기고 용렬한 짓은 일삼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윤리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로 타락한 사회상이 <우부가>의 비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등장인물의 공통점

세 사람은 모두 술과 기방 출입, 도박으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타락과 부도덕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다가 끝내 처참한 말로를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개똥이는 재물을 사치와 낭비에 탕진하고 가난한 서민을 대상으로 악질적인 고리대금을 하고 꿈생원은 사기 행각을 벌이는 타락을 보이는데 하면, 평생원은 빚에 의지하여 살면서 돈 때문에 가족 윤리마저 파괴하는 타락상을 보인다. 작자, 제작 연대 미상의 가사(歌辭)이다. 어리석은 한량이 부모 덕분에 잘 살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폐가 망신(敗家亡身)한다는 내용이다. 서민 사회의 실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조선 후기의 가사이다.

- ▶갈래 : 서사 가사
 - ▶연대 : 조선 후기(19세기)
 - ▶율격 : 3.4조(4.4조) 4음보의 연속체
 - ▶주제 : 도덕적 타락에 대한 비난과 경계
 - ▶성격 : 교훈적, 풍자적, 경세적
 - ▶특징
1. 풍자성: 윤리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회상

2. 교훈성: 직설적 훈계보다는 그릇된 행동을 통해 제시
 3. 사실성: 서민 사회의 실상 묘사
 ▶문학사적 의의 : 조선 후기 19세기 무렵의 도덕적 타락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작품
 ▶의의: 조선 후기 양반층의 도덕적 타락을 사실적으로 반영

세 명의 어리석은 남자<우부(愚夫)>를 등장시켜 서사, 본사, 결사의 3단으로 구성하였다.

- ▶서사 : 인물에 대한 화자의 평 제시
 ▶본사 : 도덕적 타락과 비행 열거
 ▶결사 : 패가 망신한 이후의 행적
 ▶개풍이 :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는 유복한 집안 출신---> 양반계층(상층)
 ▶품생원 : 부유한 양반--->양반계층(중층)
 ▶평생원 : 경제적으로 철저히 몰락하여 기생적 삶을 살아가는 양반---> 양반계층(하층)

내 말씀 광언인가 저 화상 구경하세

남촌한량 개풍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놓고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여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량없이 주재넘어
 시체 따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것다
 장장 춘일 낮잠자기 조석으로 반찬투정
 매팔자로 무상출입 매일 장취 개 트림과
 이리 모여 노름놀이 저리 모여 투전질에
 기생첩 치가(治家)하고 오입장이 친구로다
 사랑에 조방(助幫)군이 안방에는 노구(老龜)할미
 명조상(名祖上) 떠세하고 세도 구멍 기웃기웃
 염량(炎涼) 보아 진봉하기 재업을 가불리고
 허욕으로 장사하기 남의 빛이 태산이다
 내 무식은 생각 않고 어진 사람 미워하기
 후할 데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박할 때는 후하여서 수 백냥이 헛것이다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厭之)하니 반복소인 허기진다

내 몸에 이할 대로 남의 말을 탄치 않고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 일가는 불목하며
 병날 노릇 모두 하고 인삼녹용 몸 보키와
 주색잡기 모두하여 돈주정을 무진하네
 부모조상 돈망하며 내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흉만 잡아낸다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짚어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이라 날 데 없는 용전여수(用錢如水)

상하탱석 하여 가니 손님은 채객(債客)이요
 윤의(倫義)는 내 몰래라 입구멍이 제일이라
 돈날 노릇하여 보세 전답 팔아 변돈 주기
 종을 팔아 월수주기 구목 베어 장사하기
 서책 팔아 빚주기와 동네 상놈 부역이요
 먼 데 사람 행악이며 잡아 오라 꺼물리라
 자장격지 몽둥이질 전당잡고 세간 뺏기
 계집문서 종삼기와 살결박에 소 뺏기와
 불호령에 술 뺏기와 여기저기 간 곳마다
 적실인심 하는구나 사람마다 도적이요
 원망하는 소리보다 이사나 하여 볼까
 가장을 다 팔아도 상팔십이 내 팔자라
 종손 핑계 위전 팔아 투전질이 생애로다
 제사 핑계 제기 팔아 관재구설 일어난다
 뉘라서 돌아볼까 독부가 되단 말까

가련타 저 인생아 일조에 걸객이라
 대모관자 어디 가고 몰래줄은 무슨 일고
 통냥갓은 어디 가고 헌 파립에 통모자라
 주체로 못 먹던 밥 책력 보아 밥 먹는다
 양복이는 어디 가고 썸바귀를 단물 빨듯
 줄려고 어디 가고 모주 한 잔 어려워라

울타리가 땀나무요 동네소금 반찬일세
 각장장판 소리 반자 장지문이 어디 가고
 벽 떨어진 단간방에 거적자리 열두 앞에
 호적종이 문 바르고 신주 보가 갓끈이라
 은안준마 어디 가며 선후 구종 어디 갔나
 석새짚신 지팡이에 정강말이 제격이라
 삼승버선 태사혜가 고레발이 불쌍하고
 비단주머니 십륙사끈 화류면경 어디 가고
 버선목 주머니에 삼노곤 꿰어차고
 돈피 배자 담비 휘양 능라주의 어디 가고
 동지선달 베창옷에 삼복 다름 바지거죽
 궁둥이는 울긋불긋 옆걸음질 병신 같이
 담배 없는 빈 연죽을 소일쫓로 손에 들고
 어수비수 다니면서 남의 문전 결석하며

역질핑계 제사핑계 야속하다 너희 인심

원망할사 팔자타령 저 건너 꿈생원은
제아비의 덕분으로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잔 밥 한술을 친구대접 하였던가
주제님께 아는 체로 음양술수 탐호하여
당대발복 구산하기 피란 곳 찾아가며
올적 갈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흠어놓고
유무상조 아니하면 조석난계 할 수 없다
사인취물 하자 하니 일갓집에 부자 없고
뜬 재물 경영하고 경향없이 싸다니며
재상가에 청질하다 봉변하고 물러서고
남의 골에 걸태 갔다 혼금에 쫓겨와서
혼인증매 혼자들다 무렵 보고 뺨 맞으며

가대문서 구문 먹기 핀잔먹고 자빠지기
불의행세 찌그렁이 위조문서 비리호송
부자나 후려 볼까 감언이설 꾀어 보세
언 막이며 보 막이며 은점이며 금점이며
대로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
남북촌에 두장으로 인물초인 하여 볼까
산진매 수진매에 사냥질로 놀러 갈 제
대중손 양반 자랑 산소나 팔아 볼까
혼인 핑계 어린 딸은 백 냥짜리 되었구나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들은 고공살이
일가의 눈이 희고 친구의 손가락질
부지거쳐 나가더니 소문이나 들어볼까

산 너머 평생원 그야말로 하우로다
거들어서 한 말 자랑 대장부의 절기로다
동네 존장 몰라보고 이소능장 욕하기와
의관열파 사람 치고 맞았다고 떼쓰기와
남의 과부 겁탈하기 투장 간 곳 청병하기
친척집의 소 끌기와 주먹다짐 일쑤로다
부잣집에 긴한 체로 친한 사람 이간질과
월수돈 일수돈에 장변리 장체기며
제 부모 몸쓸 행사 투전군은 좋아하며

손목 잡고 술 권하며 제 처자는 몰라보고
노리개로 경표 주며 자식 노릇 못하면서
제 자식은 귀히 알며 며느리는 들볶이며
봉양 잘못 호령한다 기둥 베고 벽 떨어라

천하 난봉 자칭하니 부끄럼을 모르고서
주리틀려 경친 것을 옷을 벗고 자랑하며
술집이 안방이요 투전방이 사랑이라
늙은 부모 병든 처자 손톱 발톱 젖혀 가며
잠 못 자고 길쌈는 것 술내기로 장기 두고
책망 없이 버린 몸이 무슨 생애 못하여서
누이 자식 조카자식 색주가로 환매하여
부모가 걱정하면 외락 달아 부르대며
아낙이 사설하면 밥상 치고 계집 치기
도망산에 묘를 썼나 저녁 굶고 또 나간다
포청 귀신 되었는지 들도 보도 못 할래라

- *한량 : 양반 출신으로 벼슬을 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노는 사람
- *용통하여 : 소견머리가 없고 미련하여
- *시제(時體) : 그 시대의 풍습
- *장장춘일 : 길고 긴 봄날
- *매팔자 : 집안 살림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하는 일없이 놀기만 하는 사람
- *치가(治家) : 살림을 넉넉히 해 주고
- *조방군 : 오입을 중매하는 사람 * 노구할미 : 두쟁이 할머니
- * 떠세하고 : 위세를 떨고
- 업량 : 세력의 흥하고 쇠함. *까불리고 : 날리고
- * 승기자 :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 엄지하니 : 싫어하니
- *반복소인 : 언행을 이랬다 저랬다 대중없이 하는 소인
- * 돈망하여 : 아주 잊어버림.
- * 개차관 : 개가 먹는 자반 즉 '똥'이라는 뜻으로 행세를 더럽게 하는 사람을 욕하는 말.
- *상하행석 : 일이 몹시 꼬여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막아가는 것
- * 구목 : 무덤가에 있는 묘목
- * 꺼물리라 : 막 우겨서 손해를 물리리라.
- * 자장격지 : 남에게 시키지 않고 스스로 치는 것
- * 살결막 - 옷을 벗기고 알몸을 묶음
- *상팔십-상수팔십(上壽八十)의 준말. 나이가 많도록 오래사는 것.
- *관제구설-관가로부터 받는 제양과 시비
- *대도관자-'대모'는 거북이의 일종으로, 등껍질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빛깔이 아름다워 궁에 제료로 씀.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는 작은 고리임. *통모자 - 갓모자의 한 가지
- *양볶이 - 소의 밥통을 잘게 썰어서 볶은 음식
- *각장-장판(두꺼운 종이에 기름을 먹인 장판지)
- *신주보-죽은 사람의 위패를 싸는 보자기
- *은안준마-은으로 꾸민 안장을 엮은 좋은 말
- *신후주중-알뒤을 모시고 다니는 하인
- *석새 집신-총이 굵은 집신 '석새'는 예술품의 날실
- *정강말 - 아무것도 타지 않고 자기의 두 발로 걷는 것
- *태사해-비단으로 만들고, 코와 뒤에 줄무늬를 넣은 마른 신의 한 가지
- *플레발-헝수룩한 모양의 발
- *십륙사 끈-열 여섯 날로 만든 고운 끈
- *돈피 배자-노랑 담비의 모피로 만든 배자 '배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 *담뽕 휘양 - 담뽕털로 만든 머리에 쓰는 방한구. '휘양'은 '휘향'에서 온 말
- *능라주의-비단 두루마기
- *연죽-담뽕대
- *음양술수-길흉화복을 점치는 방법
- *사인취물-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빼앗는 일

- *결태-결태질. 체면을 돌보지 않고 물건을 얻으러 가는 것
- *비리호송-깨달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송사를 즐김
- *언-방죽, 물길을 막는 큰 둑 *은걸-은광(銀鏡)
- *산진매-산지니. 산에서 오랫동안 자유로이 자란 매
- *대종손-큰 종가의 맏손자
- *고평-고공. 머슴. 품팔이
- *하우-아주 어리석은 사람
- *거들어서-거드러거리면서 *결기-몹시 급한 성격
- *이소능장-젊은이가 늙은이를 조롱하고 모욕함
- *투장-암장. 몰래 무덤을 쓰는 일 *청병-떡을 달라고 함
- *긴한 채로-가장 가까운 채하는 것으로
- *장별리-장번리. 장번에서 생긴 이자 #장제기-장제계에서 온말로, 장날마다 본전의 일부와 비환 이자를 거두어들이는 일
- *환매-물건과 물건을 직접 서로 바꾸
- #포정귀신-포도청에 잡혀 가서 죽은 귀신

성산별곡(星山別曲)

-정철

'성산별곡'은 송강 정철이 지은 가사 작품으로서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25세 때 지은 작품으로 보기도 하고, 동부승지로 진출했다가 다시 물러나 고향에서 생활할 때인 42세 때로 보는 견해도 있다. 송강 정철은 조선조 최대의 가사 작가로 손꼽히는 사람이다. 그가 지은 '진후미인곡'과 '관동별곡' 등은 조선조 최고의 시가 작품으로 평가받았고, 특히 '사미인곡'은 동방의 이소(離騷)라고 격찬받을 만큼 충신언군으로 가득찬 작품이다. 서사, 범, 여름, 가을, 겨울, 결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작자의 솔직한 생활 정서나 인생관 등이 잘 표현된 가사라고 할 수 있다. 후기의 가사에 비해서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고 한문투의 어휘가 지나치게 등장하는 등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조 가사 등 상당한 수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전라남도 담양에 소재해 있는 식영정은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무등산의 모습과 우리의 전통 정원을 잘 보여주는 소재원 등이 있어서 유적답사로 찾아가 볼 만한 곳이기도 하다. 실제 답사를 해 보면 이 작품에 묘사된 경관에 대한 묘사가 허사가 아님을 쉽게 알 것이다.

1. 창작 배경

을사사화의 여파로 낙향하는 아버지를 따라 전남 장평(지금 담양 별비)에서 27세까지 지내게 되었다. 여기서 양응경, 임석천, 김인후, 송 순, 기대승 등에게 수학함으로써 문학적 소양을 닦음. 송강이 25세 때(명종 15년-1560년) 처의 외재당숙인 서하당 김성원을 경모하여 지은 작품.

2. 제재 : 성산의 사시계절의 변화에 따른 풍경과 식영정 주인 김성원의 풍류.

3. 영향관계: 상춘곡→면앙정가→성산별곡

4. 구성

서사: 식영정 주인의 풍류, 선경과 같은 경치

본사: 식영정 주위의 사시 가경

춘사-봄 경치를 즐기는 산옹의 생활(청문고사, 무릉도원)

하사-시원하고 한적한 여름을 즐기는 은자의 모습(麻衣, 葛巾)-유유자적

추사-선경과 같은 가을 달밤의 풍류(이백, 소식을 떠올림)

동사-눈 덮인 겨울 경치(산옹의 부귀)

결사: 혼탁하고 무상한 세상을 떠나 술과 거문고로 무아경에 빠진 신선의 풍모(허유와 소부의 고사--대화 형식으로 서두와 호응)

▶연대 : 조선 명종 때(1560)

▶갈래 : 서정가사, 양반가사

▶형식 : 3.4조 4.4조 4음보의 연속체

▶구성 :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

▶성격 : 전원적, 풍류적

▶주제 : 성산의 풍물과 풍류

어떤 지나가는 길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의 주인아 내 말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이 많건마는 어찌 한 강산을

그처럼 낫겨 여겨 적막한 산중에 들고 아니 나오시는고

솔부리를 다시 쏘고 대자리를 보아 잠간 동안 올라 앉아

주위를 어떤가 다시 보니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 서석대로

집을 삼아나가는 듯 드는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고

푸른 시내 흰 물결이 정자 앞을 둘러 있으니

천손(天孫)의 비단폭을 그 누가 베어 내어

잇는 듯 펼쳐 놓은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산중(山中)에 달력 없어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 앞의 헤쳐 있는 풍경이 사철 따라 저절로 나타나니

듣고 보는 일이 모두 다 선계(仙界)로다.

/ 서사-김성원의 전원 심취와 식영정 주변의 모습

매창(梅窓) 아침 별의 향기에 잠을 깨니

산늪은이 할 일이 아주 없지도 아니하다.

울타리 밑 양지쪽에 오이씨를 뿌려 두고

김을 매거니 북들 돌우거니 비온 김에 가꿔내니

청문(靑門)의 고사를 지금도 있다 하겠도다

짚신을 죄어 신고 대지팡이 흠여 짚으니 도화 핀 시냇길이

방초주에 이어 있구나 맑게 닦은 거울 속에 절로 그린 돌병풍

그림자를 벗삼고 서하로 함께 가니

무릉도원이 어디냐 여기가 거기로다

/본사1-성산의 봄 풍경

남풍이 건 듯 불어 녹음(綠陰)을 헤쳐 내니

철 아는 꾀꼬리는 어디에서 왔던가.

희황 베개 위에 풋잠을 얼핏 깨니

공중에 젖은 난간 물위에 떠 있구나.

삼베옷을 여며 입고 갈건을 비스듬히 쓰고

허리를 꾸부리며 보는 것이 고기로다.

하룻밤 비 온 뒤에 홍련(紅蓮) 백련(白蓮)이 섞여피니

바람기 없이도 모든 산이 향기로다.

주렴계를 마주 보아 태극설(太極說)을 묻는 듯

태을진인(太乙真人)이 구슬 옥자(玉字)를 헤쳐 놓은 듯

노자암을 건너 보며 자미탄(紫微巖)을 곁에 두고

큰 소나무 차일 삼아 돌바닥 길에 앉으니

인간 세상의 유월이 여기서는 가을이라

맑은 강에 떠있는 오리 백사장이 옮겨 앉아

갈매기를 벗삼고 잠을 깰 줄 모르나니

무심하고 한가함이 주인과 어떠한가.

/본사2-성산의 여름 풍경

오동 사이 가을 달이 사경(四更)에 돌아 오니
 천암만학이 낮보다도 밝고 아름답다.
 호주(湖洲)의 수정궁(水晶宮)을 누가 여기 옮겨 왔고
 은하수를 뛰어 건너 광한전(廣寒殿)에 올라 있는 듯
 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낙시터에 세워 두고
 그 밑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버려 두니
 붉은 여뀌 흰 마름의 물가를 언제 지났기에
 환벽당(環碧堂) 용의 못이 뱃머리에 닿았구나.
 푸른 강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 무렵 흥에 넘쳐 피리를 불어 대니
 물 속에 잠긴 용이 잠깨워 일어날 듯
 연기 기운에 나온 학이 제 집을 버려두고
 반공(半空)에 솟아 뜰 듯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賦)는 가을 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보름밤을 모두 어찌 칭찬하고
 잔구름도 사방으로 흩어지고 물결이 잔잔한데
 하늘에 돋은 달이 술 위에 걸렸으니
 달을 잡다가 물에 빠진 이백의 옛일이 야단스럽구나

/본사3-성산의 가을 풍경

공산(空山)에 쌓인 낙엽을 북풍이 거두어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조물주(造物主)가 일을 즐겨 옥으로 꽃을 지어
 천만 수림(樹林)들을 잘도 꾸며 내었구나.
 앞 여울 가리어 얼어 외나무 다리 놓였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다 말인가.
 산에 사는 늙은이의 이 부귀를 남한테 자랑하지 마오
 옥같은 굴(窟) 숨은 세계를 찾을 사람이 있을까 두렵도다.

/본사4-성산의 겨울 풍경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書冊)을 쌓아 두고
 만고의 인물들을 거슬러 세어 보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豪傑)도 많고 많다.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어찌 그리 수 없었고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고
 표주박을 팽개친 후 지조행장(志操行狀) 더욱 높다.
 인심이 얼굴 같아 볼수록 새롭거늘

세상 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술잔을 잡거니 권하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이나마 후련하다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을 타자구나
 손님인지 주인인지 모두 잊어버렸도다.
 장공(長空)에 떠 있는 학이 이 골의 진선이라
 이전에 요대 달 아래서 혹시나 만나지 아니하였는가?
 손님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그대 곧 진선인가 하노라.

/ /결사 전원 생활의 멋과 풍류

*천손운금(天孫雲錦) : 직녀가 짠 아름다운 비단으로, 은하수를 가리킴

*헌사토 헌사할사 : 매우 호화스럽고 아름답다는 뜻

*청문(靑門) 고사 : 중국 한나라 때 소평(鄯平)이라는 사람이 창문 밖에 오이를 심었다는 고사

*방초주(芳草洲) : 꽃다운 풀이 우거진 물가의 작은 섬

시조작품 정리하기

① 시조의 뜻

: 우리 민족이 만든 독특한 정형시의 하나. 원래 노래의 가사로서 문학인 동시에 음악인 셈이다.

② 시조의 기본 형식

: 평시조를 기준으로 할 때, 3·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3장6구, 45자 안팎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음보격이다. 자수는 시조마다 1, 2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종장 첫째 구만은 3음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초장	3	4	3	4	— 기(起)
		전구		후구	
중장	3	4	3	4	— 승(承)
		전구		후구	
종장	3	5	4	3	
		전구		후구	
		↓		↓	
		전(轉)		결(結)	

③ 시조의 갈래

(1) 형태상 갈래

- ① 평시조 : 기본 형식의 단형 시조(短型時調)
- ② 사설시조 : 2장 이상이 평시조에 비해 긴 장형 시조(長型時調). 특히 중장이 거의 무제한으로 길어진다.
- ③ 연시조 : 2수 이상의 평시조가 한 편을 이룬 시조

(2) 시대상 갈래

- ① 고시조 : 시조가 발생한 때로부터 갑오경장(1894년) 이전까지 지어진 시조
- ② 현대 시조 : 갑오경장 이후부터 지어진 시조

④ 고시조의 국문학사적 위치

- (1) 우리 나라 고유의 정형시다.
- (2) 고려시대에 형성되어 현대시조로 전승된 전통적 문학이다.
- (3) 양반과 평민 모두가 지었던 국민문학이다.

수 작가층

: 조선 전기까지는 양반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7세기 이후부터는 평민 가객의 활동과 시조창의 보편화로 인해 계층의 확산과 중심 이동 현상이 나타나, 양반 사대부는 물론이고 기생들과 평민층에 이르기까지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문학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속 현대시조의 특징

- (1) 형식면 : 음수율이 고시조에 비해 자유롭고, 구별 배행 시조 및 연시조가 많다. 순수한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고 개성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며 제목이 있다.
- (2) 내용면 : 현대인의 생활과 감정,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⑦ 고시조와 현대 시조의 차이

	고 시 조	현 대 시 조
내 용	1. 귀족적(전기) → 평민적 해학성·풍자성(후기) 2. 풍류적·관념적 성격을 지닌다. 3. 인륜·도덕·총의와 자연 친화적 주제가 주를 이룬다. 4. 주제가 명료하게 제시된다.	1. 탐미적·지성적 내용이 많다. 2. 승화된 시정신이 돋보인다. 3. 개성적·암시적인 주제가 많다. 4. 내적 감정과 심리 묘사가 있다.
형 식	1. 제목이 없고 고사의 인용이 많다. 2. 장별로 배행한 3행 시조이다. 3. 음수율이 고정되고 상투어가 많다. 4. 평시조가 많다. - 단형의 간결성 중시 5. 음악성이 중시된다.	1. 제목이 있고 현대시적인 기교가 발달하였다. 2. 구별 배행 시조나 자유시와 비슷한 시형을 시도하였다. 3. 개성적인 시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4. 연시조 형식이 많다. - 장형의 복잡성 중시 5. 이미지가 중시된다.

우국(憂國)과 연군(戀君)

구름이 무심(無心)탄 말이

구름이 무심(無心)탄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중천(中天)에 써이서 임의(任意)로 드니면서
긋타여 광명(光名)한 날빛을 덮퍼 무슴허리코

구름이 아무런 사심(邪心)이 없다는 말을 아마도 허무맹랑한 거짓말일 것이다. /하늘 높이 떠서 제 마음대로 다니면서 /굳이 밝은 햇빛을 따라 가며 덮는구나.

구름 : '신돈'을 가리킴 / 중천 : 권력의 한가운데 / 날빛 : 임금의 총명

- 작 가 : 이존오(李存吾) 1341~1371. 충혜왕~공민왕
- 주 제 : 간신(신돈)의 횡포(전횡)를 풍자

I 白雪이 즈즈진

백설(白雪)이 즈즈진 골에 구름이 머허레라
반가운 매화(梅花)는 어니 고디 픽엇는고
석양(夕陽)에 허올로 서서 갈곳 몰나 허노라

흰 눈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허구나 / (나를) 반겨 줄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는가? / 날이 저물어 가는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백설' → 고려 유신, 구름 → 신홍 세력인 이성계 일파, 매화 → 우국지사, 석양 → 기울어져 가는 고려' 등을 상징한다.

- 작 자 : 이색(1328~1396) 고려 말 삼은(三隱) 중의 한 사람
- 성 격 : 우국시
- 제 재 : 매화(우국지사 상징)
- 주 제 : 우국 충정(憂國衷情) / 봄을 기다리는 마음

I 興亡이 有數하니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년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디나는 객(客)이 눈물 계워허노라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운수에 매어 있는 것이니, 화려했던 고려의 궁궐이 있던 만월대도, 이제는 시든 가을 풀만이 우거져 있을 뿐이로구나. / 오백년 고려의 왕업은 이젠 한낱 목동이 부는 구슬픈 피리 소리애나 담겨 있으니 / 해질 무렵 이 곳을 지나는 나그네(작자 자신)로 하여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구나.

- 작 자 : 원천석(元天錫; ? ~?)
- 종 류 : 평시조
- 성 격 : 회고적, 감상적
- 제 재 : 고려의 멸망
- 주 제 : 고려의 패망과 역사의 허무함(망국의 한과 회고의 정)

I 방 안에 헛는 촛불

房(방) 안에 헛는 燭(촛)불 놀과 離別(이별)허엇관디,
것흐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로논고,
우리도 더 燭(촛)불 갖혀야 속타는 줄 모로노라.

방안에 켜 있는(놓은) 촛불은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 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 들어가는 줄을 모르는가, /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슬피 눈물만 흘릴 뿐) 속이 타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 작 자 : 이 개(1417~1456)
- 성 격 : 사육신(死六臣)의 절의가(節義歌)
- 제 재 : 촛불
- 주 제 : 단종(端宗)과의 이별의 슬픔

I 간 밤의 우던 여흘

간 밤의 우던 여흘 슬피 우러 지내어다.
이제야 심각하니 님이 우러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리 흐르고져 나도 우러 네희라.

지난 밤에 울며 흐르던 여울, 슬프게 울면서 흘러 가도다. /이제야 생각하니 그 슬픈 여울물 소리는 임(임금)이 울어 보내는 소리도다. /저 물이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다. 나도 울면서 가리라.

- 작 자 : 원호(세조 때)
- 성 격 : 감상적, 연군가(戀君歌), 절의가(節義歌)
- 제 재 : 여울물 소리
- 주 제 : 연군(戀君), 임금을 그리워 함.

I 천만 리 머너면 길에

천만 리(千萬里) 머너면 길에 고은 님 여히옵고
내 마음 둘 디 업서 넷?에 안자이다.
저 물도 내 안 곳도다 우러 밤길 네희다.

천 리 만 리 머너면 저승길에 고운 님(단종)을 영원히 사별하옵고 (돌아 오니)
나의 슬픈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 객사에 앉았습니다.
(흘러가는) 저 냇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며불며 밤길을 흘러갑니다.

- 작 자 : 왕방연(세조 때)
- 성 격 : 연군가(戀君歌), 감상적
- 제 재 : 단종의 유배
- 정 서 : 슬픔
- 주 제 : 임금을 이별한 애절한 마음

가노라 三角山(삼각산)아

가노라 三角山(삼각산)아, 다시 보자 漢江水(한강수)야.
古國山川(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허라마는,
時節(시절)이 하 殊常(수상)하니 울동말동허여라.

떠나가노라 삼각산이여!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보자 한강물이여!
할 수 없이 이 몸은 고국 산천을 떠나가려고 하지만
시절이 하도 뒤숭숭하니 다시 돌아올지 어떨지는 모르겠구나.

- 작 자 : 김상헌(1570~1652)
- 종 류 : 평시조, 비분가(悲憤歌)
- 계 재 : 척화파(斥和派)로 심양에 잡혀간 것
- 주 제 : 우국지사(愛國之士)의 비분 강개한 심경

견회요(遣懷謠)

슬프나 즐거우나 울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반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랴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뵈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반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님군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그 불효(不孝)인가 여기노라.

- 작 자 : 윤선도
- 종 류 : 연시조, 우국가(愛國歌)
- 계 재 : 유배지에서의 정회
- 주 제 : 연군

기개(氣概)

녹이상제 슬지게

녹이상제(綠耳霜蹄) 슬지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타고
용천설악(龍泉雪嶽)을 들게 가라 엇게에 두러메고
장부(丈夫)의 위국충절(爲國忠節)을 세워볼까 호노라

녹이 상제와 같은 좋은 말[명마]을 살이 오르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타고,
용천 설악과 같은 보배로운 칼[명검]을 잘 들게 갈아 둘러메고,
대장부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절개를 세워 볼까 하노라.

- 작 자 : 최영 (1316~1388)
- 성 격 : 호기가(豪氣歌)
- 계 재 : 위국 충절(爲國忠節)

- 주 제 : 무인(武人)의 충절(忠節)

십년 7은 칼이

十年(십년) 7은 칼이 匣裏(갑리)에 우노미라.
關山(관산)을 바라보며 새새로 먼저 보니
丈夫(장부)의 爲國勳(위국 공훈)을 어니 새에 드리울고

십 년이나 갈아온 칼이 갑(칼집) 속에서 우는구나.
관문(關門)을 바라보며 그 갑 속에 든 칼을 때때로 먼저 보니,
대장부의 나라를 위한 큰 공을 어느 때에 세워 (임금께 그 영광을) 드리
울고?

- 작 자 : 이순신
- 성 격 : 우국적, 의지적, 남성적,
- 주 제 : 우국 충정(愛國衷情)과 장부의 호기

삭풍은 나모 굿티 불고

朔風(삭풍)은 나모 굿티 불고 明月(명월)은 눈 속에 촛디,
萬里(만리) 邊城(변성)에 一長劍(일장검) 잡고 서서,
긴 프람 큰 훈 소리에 거칠 거시 업세라.

몰아치는 북풍은 너뭇가지를 스치고 증천에 뜬 밝은 달은 눈으로 덮인
산과 들을 비쳐 싸늘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국경) 성루에서 긴 칼을 잡고 서서, /휘파람 불어치며 큰 소리로 호통
을 치니,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소리에 감히 대적하는 것이 없구나.

- 작 자 : 김종서(1390~1453)
- 종 류 : 평시조
- 성 격 : 호기가(豪氣歌), 충절의 노래, 의지적, 남성적, 우국적
- 계 재 : 만 리 변성(邊城)
- 주 제 : 대장부의 호방(豪放)한 기개(氣概)

적토마 살디게 먹여

적토마 살디게 먹여 두만강에 씻겨 세고
용천검 드는 칼을 선뜻 췌겨 두러 메고
장부의 입신 양명을 시험할사 호노라

적토마와 같은 준마를 살찌게 먹여 두만강 물에 씻겨 세우고(타고)
용천검과 같이 잘 드는 보검을 선뜻 빼어 둘러메고,
대장부의 공명을 세워 이름을 드날림을 시험할까 하노라.

- 작 자 : 남이(南怡; 1441~1468)
- 성 격 : 호기가
- 계 재 : 장부의 기개(氣概)
- 정 서 : 씩씩함, 호방함
- 주 제 : 대장부의 호방한 기개 / 무인의 호방한 기상

절의(節義)

눈 마즈 휘여진

눈 마즈 휘여진 디를 니라셔 굽다턴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 썬인가 흐노라.

눈을 맞아 휘여진 대나무를 누가 굽다고 하던가?
굽을(굽힐) 절개이면 눈 속에서도 푸를 것인가?
아마도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는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 작 자 : 원천석(고려 말 ~ 조선 초)
- 성 격 : 절의가 (충절의 노래), 회고적
- 제 재 : 대나무, 고절(孤節)
- 주 제 : 절개, 또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

이몸이 죽어죽어

이 몸이 죽어죽어 일백번 곳쳐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녀시라도 잇고업고
님 향훈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설줄이 이시라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백 번이나 다시 죽어
백골(白骨)이 흙과 먼지가 되어 녀어야 있건 없건
임금님께 바치는 충성심이야 변할 리가 있으랴?

- 작 자 : 정몽주(鄭夢周)
- 종 류 : 평시조, 화답시조
- 성 격 : 단심가(丹心歌), 충의적
- 제 재 : 절개, 지도
- 주 제 : 고려에 대한 충절, 충성심(忠誠心)

수양산 바라보며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흐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흐는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사해 닳드니.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다 절개가 굳은 선비라고 말하는) 백이와 숙제를 오히려 지조가 굳지 못하다고 꾸짖으며 한탄한다.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먹어서야 되겠는가?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 작 자 : 성삼문(1418~1456)
- 성 격 : 지사적, 풍자적, 절의가, 연군가
- 제 재 : 백이, 숙제의 고사
- 주 제 : 굳은 절의와 지조

가마귀 눈비 마자

가마귀 눈비 마자 희는 듯 검노미라
야망명월이 밤인들 어두오랴
님 향훈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이시라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 희어지는 듯하나 다시 검어진다.
그러나, 야광주(夜光珠)는 밤이라고 해서 어두울 까닭이 있겠는가?
임금(단종)을 향한 굳은 충성심이야 변할 까닭이 있겠는가?

- 작 자 : 박팽년(1417~ 1456)
- 종 류 : 평시조
- 성 격 : 절의가(絶義歌), 충절의 노래
- 제 재 : 세조의 정변(政變)
- 주 제 : 일편단심(一片丹心)

군신(君臣)

이시럼 브디 갈자~

이시럼 브디 갈자? 아니 가든 못흐썬냐?
無端(무단)이 슬튼야 녀의 말을 드렸는야?
그려도 하 애도래라, 가는 뜻을 날러라.

있으려무나. 부디 (꼭) 가겠느냐? 아니 가지는 못하겠느냐?
공연히 (내가) 싫어졌느냐? 녀의 권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래도 (오히려) 너무 애타는구나. 가는 뜻이나 분명히 말해 보려무나.

- 작 자 : 조선 성종(成宗 ; 1457~1494)
- 성 격 : 별한가(別恨歌), 회유적, 유교적,
- 제 재 : 신하의 사임
- 주 제 : 아끼는 신하를 떠나 보내는 애타는 심정

삼동에 뵈웃 남고

三冬(삼동)에 뵈웃 남고 巖穴(암혈)에 눈비 마자
구름 썬 뵈뉘도 썬 적이 업간만는,
西山(서산)에 히지다 하니 눈물겨워 흐노라.

한겨울에 배로 지은 옷 입고, 바위굴에서 눈비를 맞고 있으며(벼슬한 적이 없이 산중에 은거한 몸이며)
구름 사이에 비취는 햇별도 썬 적이 없지만(임금의 은혜를 입은 적도 없지만)
서산에 해가 졌다(임금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

- 작 자 : 조식(曹植 ; 1501~1572)
- 성 격 : 유교적, 군신유의
- 제 재 : 중종의 승하
- 주 제 : 임금님 승하의 애도

녹초 청강상에

綠草(녹초) 晴江上(청강상)에 굴레 버선 물이 되어
 새새로 멀이 들어 北向(북향)하야 우는 뜻은
 夕陽(석양)이 재 넘어 감에 님자 곁여 우노라.

벼슬을 그만 두고 녹초 청강상에 내려와 살고 있지만 /때로 고개를 들어
 북쪽을 향해 우는 뜻은 /석양에 해 넘어갔다(임금께서 승하하였다)는 소
 식을 듣고 임금을 그리워하여 우는 것이다.

- 작 자 : 서익(徐益 ; 1542~1587)
- 성 격 : 유교적, 군신유의
- 제 재 : 중종의 승하
- 주 제 : 임금님의 승하 애도

● 이해와 감상 : 군신 유의(君臣有義)의 유교 정신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
 다. 벼슬을 내놓고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 중종(中宗)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럽고 슬픈 심정을 읊은 시조이다
 벼슬을 놓고 고향으로 내려가 한가로운 신세가 된 것을 '굴레 벗은 말'로
 비유하였다. 때때로 '북향'하며 울었었는데, 이제는 아주 해가 서산 너머
 로 저버려 슬프다는 뜻. 해가 서산 너머로 저버렸다는 것은 중종(中宗)의 승
 하를 의미한다. 이 때 임금(중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다시 볼 수 없는 임
 금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다.

자연(自然)

말 업슨 청산이요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 態(태) 업슨 流水(유수) | 로다.
 값 업슨 淸風(청풍)이요, 님즈 업슨 明月(명월)이라.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늙으리라.

말없이 푸르기만 한 것은 청산(靑山)이요, 모양 없이 흐르기만 한 것은
 유수(流水)로다.
 값 없는 것은 바람이요, 주인 없는 것은 밝은 달빛이라.
 이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사는 병 없는 이 몸은 걱정 없이 늙으리라.

- 작 자 : 성혼(1535~1598)
- 종 류 : 평시조
- 성 격 : 풍류적, 전원적, 달관적
- 제 재 : 청산, 유수, 청풍, 명월
- 주 제 : 자연을 벗삼는 즐거움

추강에 밤이 드니

秋江(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無心(무심)한 달빛만 싹고 빈 배 저어 오노라.

가을 강에 밤이 되니 물결이 차구나
 낚싯대를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는구나.
 무심한 달빛만 가득 싹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작 자 : 월산대군(1454~1488)
- 성 격 : 낭만적, 풍류적, 전원적, 한정가
- 제 재 : 가을 달밤
- 정 서 : 유유자적, 한가로움
- 주 제 :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취

십년을 경영하여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하야 草廬三間(초려 삼간) 지어 니
 니,
 나 汗 間 들 汗 間에 淸風(청풍) 汗 間 맞겨 두고,
 江山(강산)은 드릴 디 업스니 둘너 두고 보리라.

십 년이나 기초를 닦아서 보잘것없는 초가집을 지어내니,
 달 한 간과 맑은 바람도 한 간을 맡겨 두고,
 청산과 맑은 강은 들어놓을 곳이 없으니 주위에다 두고 보리라.

- 작 자 : 송순(1363~1583)
- 성 격 : 전원적, 관조적, 풍류적, 한정가
- 주 제 : 자연애, 자연 귀의

대초 볼 볼근 골에

대초 볼 볼근 골에 밤은 어이 뿔뜨르며,
 벼 뵈 그르헤 게는 어이 느리노고.
 술 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대추가 발길게 익은 골짜기에 밤까지 익어 뚝뚝 떨어지며, / 벼를 뵈 그
 루에 게까지 어찌 나와 다니는가? /마침 험쌀로 빗어 놓은 술이 익었는데
 체장수가 체를 팔고 돌아가니, 새 체로 술을 걸러서 먹지 않고 어찌
 리.

- 작 자 : 황희(1363~1452)
- 성 격 : 풍류적, 낭만적, 목가적, 한정가, 자연과 인정(人情)을 노래
- 제 재 : 늦가을 농촌
- 주 제 : 추수가 끝난 늦가을 농촌의 풍치 있는 생활상

집방석 너지마라

집방석 너지마라 낙엽엔들 못안즈라
 술볼 허지마라 어제 진달 도다온다
 아히야 박주산채(薄酒山菜)르만정 업다말고 니여라

짚으로 만든 방석을 내지 말아라. 떨어진 나뭇잎엔들 앉지 못하겠느냐.
 관술볼을 켜지 말아라. 어제 췌던 밝은 달이 돌아온다.
 애야! (이 아름다운 가을밤에 진수 성찬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변변
 치 않은 술과 나물일지라도 좋으니 없다 말고 내 오너라.

- 작 자 : 한호(韓濩 ; 1543~1605)
- 성 격 : 전원 한정가
- 정 서 : 여유와 한가로움
- 주 제 : 산촌 생활의 안빈낙도

江山(강산) 초흔 景(경)을

江山(강산) 초흔 景(경)을 힘센이 닷톨 양이면,
니 힘과 니 分(분)으로 어이하여 엇들썩이.
眞實(진실)로 禁(금)히려 업쓸씩 나도 두고 논이노라.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힘이 센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나와 다투다고 치면, / 나같이 약한 힘과 가난한 분수로 어찌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 /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을 막는 사람이 없으므로 나 같은 사람도 마음 놓고 즐기며 노닐 수 있다.

- 작 자 : 김천택(숙종 때)
- 성 격 : 강호한정가
- 구 조 : 초장 - 자연의 경관에 대한 다툼(가설)
중장 - 자연 탐상의 기회가 없음(가설)
종장 -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함(결론)
- 주 제 : 거리낌없이 자연을 즐기는 마음

草庵(초암)이 寂寥(적료)흔디

草庵(초암)이 寂寥(적료)흔디 벗 업시 혼즈 안즈
平調(평조) 한 납히 白雲(백운)이 절로 존다.
언의 뉘 이 초흔 뜻을 알 리 잇다 ㅎ리오.

초가 암자가 고요한데 찾아 온 벗 하나 없이 홀로 앉아
평조의 노래 한 입을 읊으니 흰 구름이 졸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누가 이 좋은 뜻을 알아 줄 이 있다 하겠는가?

- 작 자 : 김수장(金壽長; 1690~?)
- 종 류 : 평시조
- 성 격 : 한정가
- 제 재 : 평조 한 곡
- 정 서 : 한가로움, 자연 친화
- 주 제 : 대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의 멋

백구(白鷗)야 말 물어 보자

백구(白鷗)야 말 물어 보자 놀라지 말아스라
명구 승지(名區勝地)를 어디 어디 보았는나
날다려 자세히 일러든 너와 게 가 놀리라

갈매기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려무나
산수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을 어디 보았는나.
나에게 자세히 말해 주면 너와 거기 가 같이 놀리라.

- 작 자 : 김천택(숙종 때)
- 성 격 : 한정가(閑情歌)
- 제 재 : 백구, 명구승지
- 주 제 : 자연에의 물입

田園(전원)에 나쁜 興(흥)을

田園(전원)에 나쁜 興(흥)을 전나귀에 모도 싣고
溪山(계산) 나근 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아히 琴書(금서)를 다스려라 나쁜 히를 보내리라.

전원에 남은 흥취를 다리를 저는 나귀에 모두 싣고서,
계곡을 끼고 있는 산 익숙한 길로 흥겨워하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야, 거문고와 서책을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 작 자 : 김천택(? ~숙,영조 때)
- 제 재 : 전원의 흥취
- 정 서 : 한가로움과 여유로움
- 주 제 : 자연 속에서 누리는 풍류

어리고 성긴 梅花(매화)

어리고 성긴 梅花(매화) 너를 맞지 아녜터니,
눈 期約(기약) 能(능)히 직혀 두세 송이 뿔엿고나.
燭(촉) 줍고 갖가이 스랑힐 제 暗香(암향)쫓츠 浮動(부동)터
라.

연약하고 영성한 가지이기에 어찌 꽃을 피울까 하고 맞지 아니하였더
니,
눈 올 때 피겠다고 하던 약속을 능히 지켜 두세 송이가 뿔엿구나.
촛불 잡고 너를 가까이 완상할 때 그윽한 향기조차 떠도는구나.

- 작 자 : 안민영(1816~?)
- 제 재 : 매화
- 주 제 : 매화 예찬

오우가(五友歌)

[서사]
내버디 멋치나 ㅎ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의 들오르니 괴더옥 반갑고야
두어라 이다솜밭긔 또더ㅎ야 머엇ㅎ리

나의 벗이 멋치나 있느냐 헤아려 보니 물과 돌과 소나무, 대나무다.
게다가 동쪽 산에 달이 밝게 떠오르니 그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로구나.
그만 두자, 이 다섯 가지면 그만이지 이 밖에 다른 것이 더 있은들 무엇하겠는
가?

[水]
구름빗치 조타ㅎ나 검기를 즈로ㅎ나
부람소리 몹다ㅎ나 그칠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뉘 업기는 물뿐인가 ㅎ노라

구름의 빗줄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가 맑게 들려 좋기는 하나, 그칠 때가 많다.
깨끗하고도 끊어질 적이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石]
고즌 무스닐로 뿔며서 쉬이디고
플은 어이ㅎ야 프르느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아닐슨 바희뿐인가 흐노라

꽃은 무슨 까닭에 피자마자 곧 저 버리고,
풀은 또 어찌하여 푸르러지자 곧 누른 빛을 띠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松]

더우면 꽃피고 치우면 납디거늘
솔아 너는언디 눈서리를 모른나
구천(九泉)의 불희 고든줄을 글로혀야 아노라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날씨가 추우면 나무의 잎은 떨어지는데,
소나무여, 너는 어찌하여 눈이 오나 서리가 내리나 변함이 없는가?
그것으로 미루어 깊은 땅 속까지 뿌리가 곧게 뻗어 있음을 알겠노라.

[竹]

나모도 아닌거시 풀도 아닌거시
꽃기는 뒤 시기며 속은 어이 뷘연나
더러코 사시(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 흐노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게 자라가는 누가 그리 시켰으며,
또 속은 어이하여 비어 있는가?
저리하고도 네 계절에 늘 푸르니, 나는 그것을 좋아하노라.

[月]

자근거시 노피떠서 만물을 다비취니
밤등의 광명(光明)이 너만하니 또잇느냐
보고도 말아니하니 내별인가 흐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다 바추니
한밤중에 광명이 너보다 더한 것이 또 있겠느냐?(없다)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나의 벗인가 하노라

- 작 자 : 윤선도(尹善道:1587~1671)
- 종 류 : 연시조
- 성 격 : 찬미적
- 제 재 : 水·石·松·竹·月
- 주 제 : 오우(五友)인 水·石·松·竹·月을 기림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춘 사]

江湖(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興(흥)이 절로 난다.
濁滌溪邊(탁료계변)에 錦鱗魚(금린어) | 안주로라.
이 몸이 閒暇(한가)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삿다.

강호에 봄이 찾아드니 참을 수 없는 흥겨움이 솟구친다.
탁주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싱싱한 물고기가 안주로 제격이구나.
다 늙은 이 몸이 이렇듯 한가롭게 지냄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하 사]

江湖(강호)에 녀름이 드니 草堂(초당)에 일이 업다.
有信(유신)한 江波(강파)는 보내느니 부람이다.
이 몸이 서늘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삿다.

강호에 여름이 닥치니 초당에 있는 늙은 몸은 할 일이 별로 없다.
신의 있는 강 물결은 보내는 것이 시원한 강바람이다.
이 몸이 이렇듯 서늘하게 보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다.

[추 사]

江湖(강호)에 7월이 드니 고기마다 슬져 있다.
小艇(소정)에 그물 시러 흘리 띄여 더더 두고,
이 몸이 消日(소일)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삿다.

강호에 가을이 찾아드니 물고기마다 살이 올랐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신고서, 물결 따라 흘러가게 배를 띄워 버려 두니,
다 늙은 이 몸이 이렇듯 고기잡이로 세월을 보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동 사]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기피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삼아
이몸이 칩지 아니히움도 亦君恩(역군은)이삿다

강호에 겨울이 닥치니 쌓인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를 둘러 입어 덧옷을 삼으니,
늙은 이 몸이 이렇듯 추위를 모르고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 작 자 : 맹사성(1360~1438)
- 종 류 : 평시조, 연시조(4수로 됨)
- 성 격 : 강호가. 강호 한정가, 강호 연군가
- 제 재 : 사시(四時)의 강호 생활
- 주 제 : 강호 한정(江湖閒情),
안분지족하는 은사의 유유 자적한 생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춘사(春詞) 1

압내에 안개 갓고 뽕뽕히 히 비친다.
비 떠라 비 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 온다.
至兜慮(지국총) 至兜慮(지국총) 於思臥(어사와)
江강村촌 온갓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앞 내에 안개가 걷히고 뒷산에는 해가 비친다.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라.>

썰물은 거의 나가고 밀물이 밀려온다.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춘사(春詞). 4

우는 거시 벽구기가, 푸른 거시 버들숲가,

이어라, 이어라

漁村(어촌) 두어 집이 냇속의 나락들락.

至甸慮(지국총) 至甸慮(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말가흔 기쁜 소희 온갈 고기 쉼노느다.

우는 것이 뼈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노를저어라, 노를저어라.

(배가 쓴살같이 나아가니)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한다.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

맑고도 깊은 소에서 온갖 고기가 뛰노는다.

하사(夏詞). 1

구즌비 머저 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비 떠라 비 떠라

낮대를 두러메니 기쁜 흥(흥)을 禁(금) 못홀랴.

至甸慮(지국총) 至甸慮(지국총) 於思臥(어사와)

煙江(연강) 疊嶂(첩장)은 누라서 그려 내고.

곳은비가 멈추어 가고 흐르는 시냇물도 맑아 온다.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라.>

냇숫대를 둘러메니 (벌써부터 솟구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흥겨움을 참을 길 이 없겠구나.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안개가 자욱한 강과 겹겹이 둘러선 뿔부리는 누가 그림으로 그려냈는가?

하사(夏詞). 2

년넙히 밥싸 두고 반찬이란 장만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蕪芡笠罽은 씨 잇노라, 綠綠蓑紗衣의 가져오나.

至甸慮(지국총) 至甸慮(지국총) 於思臥(어사와)

無무心심흔 白빅鷗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연 앞에 밥을 싸 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달을 들어라, 달을 들어라.>

대삿갓을 쓰고 있다. 도롱이를 가져 왔느냐?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무심한 갈매기는 내가 저를 따르는가? 제가 나를 따르는가?

추사(秋詞). 1

物外(물외)에 조흔 일이 漁父生涯(어부생애) 아니러냐.

비 떠라 비 떠라

漁翁(어옹) 운디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至甸慮(지국총) 至甸慮(지국총) 於思臥(어사와)

四時興(사시 흥)이 한가지나 秋江(추강)이 으뜸이라.

속세를 벗어난 데서 깨끗한 일로 소일함이 고기잡이의 생활이 아니더냐.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라. >

늙은 고기잡이라고 웃지를 말라, 그림마다 어옹이 그려져 있더라.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네 계절의 흥이 한가지로 비슷하나 그 중에서도 가을철의 강물이 자아내는 흥이 으뜸이라.

추사(秋詞). 2

水洵國국의 7올히 드니 고기마다 술져 인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萬만頃경 澄당波파의 슬긱지 容용與여호자.

至甸慮(지국총) 至甸慮(지국총) 於思臥(어사와)

人人間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바다에 둘러싸인 곳에 가을이 찾아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달을 들어라, 달을 들어라.>

아득히 넓고 맑은 바닷물결에 맘껏 흠족하게 노닐자꾸나.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아, 속세를 뒤돌아보니 멀리 떨어질수록 더욱 좋다.

추사(秋詞). 4

그려기 떴는 밧긱 못 보던 뉘 뵈느고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흐려니와 取취한 거시 이 흥흥이라.

至甸慮(지국총) 至甸慮(지국총) 於思臥(어사와)

夕석陽양 夕이니 天천山산이 錦금縠슈 | 로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저 멀리로 이제껏 보지 못했던 산이 새삼스레 드러나 보이는구나.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낙시질도 즐기러니와 자연에 마음 쏠리는 바는 이 흥이다.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석양이 눈부시게 빛나니 단풍으로 수놓은 모든 산이 수놓은 비단같이 아름답다.

동사(冬詞). 3

여튼 갠 고기들이 먼 소희 다 갠느니

돈 드러라, 돈 드러라

저근덜 날 도흔제 바탕의 나가보자.

至甸慮(지국총) 至甸慮(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밧긱곧 다오면 굴근 고기 문다 한다.

물이 얇은 갯가의 고기들이 먼 소로 물러갔으니(겨울이라 수온이 낮아 깊은 곳으로 갔다)

<뚫을 달아라, 뚫을 달아라.>

잠깐 동안 날씨가 좋을 때에 일터(어장)에 나가 보자.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 >

냇숫밥이 좋으면 큰 고기가 물린다 한다.

동사(冬詞). 4

간밤의 눈 갠 後후에 景景物물이 달랑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히는 萬만頃경 琉璃璃리 뒤희는 千천疊疊 玉옥山山

至甸慮(지국총) 至甸慮(지국총) 於思臥(어사와)

仙仙界계니가 彿彿界계니가, 人人間간이 아니로다.

간 밤에 눈 갠 뒤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배 저어라, 배 저어라.>
 앞 체는 유리처럼 잔잔한 넓은 바다, 뒤에는 겹겹이 둘러싸인 백옥 같은 산이로
 다.<찌그덩 찌그덩 어아차>
 아, 여기는 신선이 사는 선경인가? 부처가 사는 정토인가? 인간 속세는 아니로
 다.

- 작 자 : 윤선도
- 종 류 : 단가(短歌), 연시조
- 성 격 : 한정가(閑情歌)
- 제 재 : 어부(漁父)의 생활
- 주 제 : 강호의 한정(閑情). 철따라 펼쳐지는 자연의 경치와 어부(漁父) 생활의 흥취

山(산)은 넷 山(산)이로되 물은 넷 물이 안이로다.
 晝夜(주야)에 흠은이 넷 물이 이실손야.
 人傑(인걸)도 물과 鬪야 가고 안이 오노미라.

산은 옛날의 산 그대로인데 물은 옛날의 물이 아니구나
 종일토록 흐르니 옛날의 물이 그대로 있겠는가.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는구나.

- 작 자 : 황진이
- 성 격 : 관조적, 애상적
- 제 재 : 산, 물, 인걸
- 주 제 : 인생 무상, 무정한 임에 대한 그리움

인생(人生)

春山에 눈녹인 바람

춘산(春山)에 눈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디 업다
 저근덧 비러다가 마리우희 불니고저
 귀밧덕 히묵은 서리를 녹여불가 흐노라

봄 산에 쌓인 눈을 녹인 바람이 잠깐 불고 어디론지 간 곳이 없다. 잠시
 동안 (그 봄바람을)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귀 밑에 여
 러 해 묵은 서리(백발)를 다시 검은 머리가 되게 녹여 볼까 하노라.

- 작 자 : 우탁(1263~1343)
- 성 격 : 탄로가(嘆老歌)
- 제 재 : 히묵은 서리
- 정 서 : 한스러움
- 주 제 : 늙음에 대한 탄식과 그 극복 의지

흔손에 막대 잡고

흔손에 막대 잡고 또 흔손에 가식쥐고
 늙는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터니
 백발(白髮)이 제 먼저 알고 즈름길로 오더라

한 손에 막대를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은 가시 덩굴로 막고, 찾아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나의 속셈을)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 작 자 : 우탁(1263~1343)
- 성 격 : 탄로가(嘆老歌)
- 제 재 : 白髮(백발)
- 정 서 : 한스러움
- 주 제 : 탄로(歎老): 늙음을 한탄함
- 이해와 감상 : 인생 무상(人生無常)을 달관(達觀)한 경지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산은 넷 산이로되

청산리 벽계수야

靑山裏(청산리) 碧溪水(벽계수) | 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一到滄海(일도창해)하면 도라오기 어려우니,
 明月(명월)이 滿空山(만공산)하니 수여 간들 엇더리.

청산 속에 흐르는 푸른 시냇물아, 말리 흘러간다고 자랑 마라.
 한번 넓은 바다에 다다르면 다시 청산으로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산에 가득 차 있는, 이 좋은 밤에 나와 같이 쉬어 감이 어떠
 나?

- 작 자 : 황진이
- 성 격 : 감상적, 낭만적
- 제 재 : 벽계수와 명월
- 주 제 : 인생의 덧없음과 향락의 권유

盤中(반중) 早紅(조홍)감이

盤中(반중) 早紅(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는다.
 유자 | 안이라도 품엄죽도 흥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없슬시 글노 설워 흥는다.

소반 위에 놓인 홍시가 매우 곱게도 보인다./ 유자가 아니라 활지라도
 몸에 품고 돌아갈 만도 하더마는/ (품속에) 품어 가도 반기위해 주실 분
 이 없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서러워합니다.

- 작 자 : 박인로(1561~ 1642)
 - 종 류 : 평시조
 - 성 격 : 사친가(思親歌)
 - 제 재 : 조홍(早紅)감
 - 주 제 : 효심(孝心)
 - 회곡(懷橘)의 고사(故事)
- 삼국 시대 오군(吳郡) 사람 육적(陸績)이 여섯 살 때에 원술(袁術)을 찾아가더니,
 원술이 곱 세 개를 먹으라고 주었는데, 육적이 그것을 품속에 품었다가 일어설
 때에 품었던 곱이 방바닥에 떨어졌다. 원술이 그 연유를 물은즉, 어머님께 드리
 려고 품었다고 대답하더라는 고사인데, 회곡의 고사는 곧 효도를 뜻한다.

노래 삼긴 사름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할샤
 날러 다 못날러 불러나 푸듯든가
 眞實(진실)로 풀릴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노래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근심과 걱정이 많기도 많았구나.
 말로 하려 하나 다 못하여 (노래로) 풀었던 말인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 작 자 : 신희(1566~1628)
- 계 재 : 노래
- 주 제 : 노래를 통해 시름을 풀어보고자 함

한숨아 세한숨아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 장주 세술 장주 들 장주 열 장주에 암돌적귀 수돌적귀
 비목걸시 똑닥 박고 크나큰 줌을식으로 숙이숙이 초엿는디 屏
 風(병풍)이라 덜걱 접고 簇子(족자) | 라 덕디골 말고,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줌 못 드러 흐노라.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 고모 장지, 세살 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귀, 수돌적귀, 배목걸새 똑닥 박고, 크나큰 자물
 쇠로 깊이깊이 채웠는데, 병풍이라 덜걱 접은 족자라 대대굴 마느냐.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 어찌된 일인지 네 가 온 날이면 잠 못 들어
 하는구나.

- 작 자 : 未詳(미상)
- 종 류 : 사설 시조
- 성 격 : 수심가, 해학적
- 계 재 : 시름
- 정 서 : 근심과 걱정
- 주 제 : 그칠 줄 모르는 시름

논 발 갈아 기음 매고

논 발 갈아 기음 매고 비잠방이 다임 쳐 신들매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러매고 무림 산중(茂林山
 中)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섶을 뷔거니 버히거니 지계에 질머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點心) 도습 부시고
 곰방대를 툯툯 떨어 뉘담배 띄워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리 저른 소리 하
 며 어이 같고 하더라.

논발 갈아 김매고 베잠방이 대님 쳐 신들매고, /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를 버려 두러 매고, 울창한 산 속에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섶을 베
 거니 자르거니 지계에 짚어서 지팡이 받쳐 놓고, 섶을 찾아가서 점심도
 다 비우고 곰방대를 툯툯 떨어 잎담배 피워 물고 코노래 즐다가, / 석양
 이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같고
 하더라.

- 작 자 : 미상(未詳)
- 성 격 : 한정가
- 계 재 : 농사일
- 주 제 : 자연 속에서 일하며 누리는 한가로운 삶

교훈(敎訓)과 수양(修養)

훈민가 (訓民歌)

[1]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분곳 아니시면 이몸이 사라질가
 하늘그튼 그업슨 은덕(恩德)을 어디다허 갑소오리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이 나를 기르시니, /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몸
 이 살 수 있었을까? / 이 하늘 같은 은혜를 어디에다 갚을까?

[3] 형아 아이야 네술흘 문져보와
 뉘손디 타나관디 양지조차 가타손다
 훈젓먹고 길러나이셔 닷모음을 먹디마라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 보아라. / 누구에게서 태어났기에 그 모양도 같은가?
 한 젓을 먹고 자라나서 어찌 다른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 (한 마음 한 뜻
 으로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라.)

[4] 어버이 사라신제 섬길일란 다하여라
 디나간 후면 애롭다 엇디허리
 평생(平生)애 곱터 못홀일이 잇뿐인가 흐노라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동안에 섬기는 일을 다하여라.
 돌아가신 뒤면 아무리 애달아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이다.
 평생에 다시 할 수 없는 일은 부모 섬기는 일인가 하노라.

[8] 막을 사름들아 올훈일 흐차스라
 사름이 되어 나셔 올치웃 못하면
 막쇼를 갓갓갈 뵙워 밥먹이나 다르랴

마을 사름들아 옳은 일을 하자꾸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 못하면
 말과 소에게 갓이나 고깔을 씌워 놓고 밥이나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13]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오 가자스라
 내는 다 미여든 네눈점 미여주마
 올갈히 썩빠다가 누에먹켜 보자스라

오늘도 날이 다 밝았다. 호미 메고 들로 가자꾸나.
 내 눈을 다 매거든 네 눈도 좀 매어 주마.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누에도 먹여 보자꾸나.

[16] 이고진 더 늘그니 짐פר려 나를 주오
 나는 점엇새니 돌히라 무거울가
 늘거도 설웨라커든 짐을 초차 지실가

이고 진 저 노인네 짐 풀어서 나를 주시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고 무겁겠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셔야 되겠소이까.

- 작 자 : 정 철
- 종 류 : 연시조(16수)
- 성 격 : 교훈적, 유교적
- 계 재 : 유교의 윤리 도덕
- 주 제 : 유교의 윤리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1] 고산 구곡담을 사름이 모르더니
주모복거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흐리라

고산의 아홉 굽이도는 계곡의 아름다움을 사름들이 모르더니,
풀을 베고 터를 잡아 집을 짓고 사니 벗님네 모두들 찾아오느구나.
아, 무이산에서 후학을 가르친 주자를 생각하고 주자를 배우리라

[2] 일곡은 어디미오 관암에 히 비친다
평무에 니 거드니 원산이 그림이로다
송간에 녹준을 노코 벗 오노양 보노라

첫번째로 경치가 좋은 것은 어디인가? 갯머리처럼 우뚝 솟은 바위에 아침해가
비쳤도다./ 잡초 무성한 들판에 안개가 걸히니, 먼 곳 가까운 곳 가릴 것 없이
그림같이 아름답구나./ 소나무 푸른 숲 사이에 맛있는 술이 담긴 술통을 놓고
벗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

[3] 이곡은 어디미오 화암에 춘만커다
벽파에 곳을 띄워 야외로 보니노라
사람이 승지를 모로니 알게흔들 엇더리

두 번째로 경치가 좋은 것은 어디인가? 꽃바위의 늦봄 경치로다./ 푸른 꽃을
띄워 멀리 산 밖의 들로 보낸다. /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곳을 모르니, (꽃을 띄
워 보내) 이 곳의 경치 좋음을 알게 한들 어찌리.

[4] 삼곡은 어디미오 취병에 님 퍼졌다
녹수에 산조는 하상기음흔논적의
반송이 바람을 바드니 녀름경이 업시라

세 번째로? 푸른 병풍을 둘러친 듯한 절벽에 녹음이 짙어졌다.
푸른 숲 속에서 산새들은 높이락 낮추락 노래를 부르는데
가로퍼진 소나무가 맑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니 어름이지만 그 경치가 시원스
럽기 그지없구나.

[5] 사곡은 어디미오 송암에 히 넘거다
담심 암영은 온갓빛치 좁겨세라
임경이 깊도록 도호니 흥을 계워 흐노라

네 번째로? 소나무 보이는 낭떠러지 위로 해가 떠 넘느구나.
깊은 물 한가운데에 비친 바위 그림자는 온갓 빛과 함께 잡겨있구나.

수풀 속의 샘물은 깊을수록 깨끗하니 흥겨움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6] 오곡은 어디미오 은병이 보기도타
수변 정사는 소주흠도 7이업다
이중에 강학도 흐려니와 영월음풍 흐리라

다섯 번째로 경치 좋은 곳은 어디인가? 은속한 절벽이 보기도 좋구나.
물가에 세워진 배움의 집은 맑고 깨끗하기가 더할 나위 없구나.
이런 곳에서 글도 가르치고 때로는 시를 지어 읊으면서 흥겹게 놀기도 하겠구
나.

[7] 육곡은 어디미오 조합에 물이업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노고
황혼에 낙대를 메고 대월귀를 흐노라

여섯 번째로? 낚시질하기에 좋은 골짜기에 물이 많이 고여 있구나.
나와 고기와 어느 쪽이 더 즐거운가?
해가 저물거든 낚싯대를 메고 달빛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리라.

[8] 칠곡은 어디미오 풍암에 추색도타
청상 엽게치니 절벽이 금수 | 로다
한암에 혼조안자서 집을잇고 잇노라

일곱 번째로? 단풍으로 덮인 바위에 서린 가을빛이 좋구나.
깨끗한 서리가 엽게 덮였으니 단풍에 덮인 바위가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답도다.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경치에 취하여)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
도다.

[9] 팔곡은 어디미오 금탄에 달이 붉다
옥진 금휘로 수상곡을 노는말이
고조를 알이업스니 혼조즐거 흐노라

여덟 번째로? 거문고 타는 소리를 내며 흐르는 어울목에 달이 밝다.
좋은 거문고로 서너 곡조를 댔지만
운치 높은 옛 가락을 알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 듣고 즐기노라.

[10] 구곡은 어디미오 문산에 세모커다
기암 괴석이 눈속에 무쳐세라
유인은 오지아니 하고 볼것업다 흐더라

아홉 번째 굽이는 어디이고, 문산에 한 해가 저무는구나.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돌이 눈 속에 묻혀 버릴까 걱정되는구나.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 작 자 : 이이(李珣; 1536~1584)
- 종 류 : 연시조(10수)
- 성 격 : 교훈적, 유교적
- 계 재 : 석담 수양산의 풍광(風光)
- 주 제 : 강학(講學)의 즐거움과
고산(高山)의 아름다움

○ 각연의 주제

- [1] 고산구곡가를 짓게 된 동기
- [2] 학문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계
- [3] 관암의 아침 경치
- [4] 화암의 늦봄 경치
- [5] 송애의 저물 무렵 못에 비친 아름다운 巖影(암영)
- [6] 水邊精舍(수변정사)에서의 講學(강학)과 詠月吟風(영월 읊풍)
- [7] 조대의 야경
- [8] 풍암의 가을 경치
- [9] 탄금의 여울물 소리
- [10] 문산의 눈덮인 경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1] 이런들 엇더하며 더런들 엇다하로
 초야 우생이 이러타 엇더하로
 허들려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터 므슴하로

이런들 어떠한 저런들 어떠한?
 시골에 파묻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고(공명이나 시비를 떠나 살아가는 생활) 어떠한?
 더구나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고질병처럼 된 버릇을 고쳐서 무엇하랴?

[2] 연하로 지불삼고 풍월로 버들사마
 태평성대에 병으로 늘거가노
 이등에 바라는 이른 허므이나 업고자

연가나 놀의 멋진 자연 풍치로 집을 삼고, / 맑은 바람 밝은 달을 벗으로 삼아,
 어진 임금을 만난 좋은 시대에 (하는 일 없이 그저) 노병(老病)으로만 늙어가는
 구나.

[3] 순풍이 죽다하니 진실로 거즈마리
 인생이 어디다하니 진실로 올흔마리
 천하에 허다영재를 소겨 말솜홀가

예로부터 전해오는 순박한 풍속이 다 사라져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짓
 말이라다.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어질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순박한 풍속이 다 없어졌다는 말로써) 이 세상의
 많은 슬기로운 사람들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느냐.

[4] 유란이 재곡하니 자연이 듣디도해
 백운이 재산하니 자연이 보디도해
 이등에 피미일인을 더욱 낫디 못하해

그윽한 난초가 깊은 골짜기에 피었으니 대자연의 속삭임을 듣는 듯 매우 좋구
 나.
 흰 구름이 산마루에 걸려 있으니 자연히 보기 좋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임금님을 더욱 잊을 수가 없구나.

[5]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 | 로다
 빼 만흔 골머기는 오명가명 허거든
 엇다다 교교백구는 머리 므슴 허는고

산 앞에는 대(낙서터)가 있고, 대 밑으로는 물이 흐르는구나.
 갈매기들은 무리를 지어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하여 저 귀하고 좋은 흰 망아지[賢者]는 멀리 뛰어갈 생각을 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 망아지는 큰 뜻을 품었나보다.)

[6]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애 월만대라
 사시가흥 | 사름과 훈가지라
 허들며 어약연비 운영천광이야 어니 그지 이슬고

봄바람에 꽃은 산에 가득 피어 있고, 가을밤에는 달빛이 누대에 가득하니,
 춘하추동 사계절이 각기 지닌 것은 사람의 흥겨워함과도 같구나.
 더구나 고기는 물에서 뛰놀고, 소리개는 하늘을 날으니 흘러가는 구름은 그림을
 남기고, 밝은 햇빛은 온 누리를 비추는 저 대자연의 아름다운 조화에 어찌 한도
 가 있을 수 있겠는가.

[7] 천운대 도라드러 완락제 소쇄하니
 만권생애로 약사 | 무궁하애라
 이등에 왕래풍류를 날어 므슴홀고

천운대를 돌아서 들어가니, 완락제가 아담하고 깨끗이 서 있는데,
 거기서 수많은 책을 벗삼아 한평생을 보내는 즐거움이란 무궁무진하구나.
 이렇게 지내면서 때때로 바깥을 거니는 재미를 새삼 말해서 무엇하랴?

[8] 뇌정이 파산하야도 농자는 몸들느니
 백일이 중천하야도 고자는 몸보느니
 우리는 이목충명남자로 농고곤디 마로리

우레 소리가 산을 무너뜨리도록 심하더라도 귀머거리는 듣지를 못하며,
 밝은 해가 떠서 대낮같이 되어도 소경은 보지를 못하는 것이니,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서, 귀머거리나 소경이 되지는 않아야 하리
 라.

[9] 고인도 날뎡보고 나도 고인 뎡보
 고인을 뎡보도 녀던길 알피잇니
 녀던길 알피잇거든 아니녀고 엇덜고

옛 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 역시 옛 성현을 뎡지 못했네.
 옛 성현을 보지 못했지만 그 분들이 행했던 가르침이 앞에 있구나.
 그 행하신 길이 앞에 있는데 아니 행하고 어찌할 것인가?

[10] 당시에 녀던 길을 멧히를 브려두고
 어디 가 둔니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녀던 므슴 마로리

예전에 걸던 길을 몇 년이나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예전에 걸던 그 길로) 돌아왔는가?
 이제나마 돌아왔으니 이제는 딴 곳에 마음 두지 않으리라.

[11] 청산는 엇데하야 만고애 프르르며
 유수는 엇데하야 주야애 굿디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푸른 산은 어찌하여 영원히 푸르며
흐르는 물은 또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우리도 저 물같이 그치는 일 없이 저 산같이 언제나 푸르게 살리라.

[12] 우부도 알며 허거니 귀아니 쉬운가
성인도 몰다 하시니 귀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냇등에 늙은주를 몰래라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道를 알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가?
또 만세에 스승이 될 만한 성인도 다 하지는 못하는 법이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
가?
쉽든 어렵든 간에 학문을 닦는 생활 속에 늙어 가는 줄 모르겠구나.

- 작 자 : 이황(李滉 ; 1501~1570)
- 종 류 : 연시조(전12수)
- 성 격 : 교훈가
- 체 재 : 전 6곡 : 언지(言志) / 후 6곡 : 언학(言學)

- 주 제 : 전 6곡 : 자연에 동화된 생활
후 6곡 : 학문 수양 및 학문에

- 각 연별 소주제
- [1] 천석고황(泉石膏肓)
- [2] 자연과의 동화
- [3] 순박하고 후덕한 풍습
- [4] 연군(戀君)
- [5] 자연을 등지고 있는 현실 개탄
- [6] 대자연의 웅대함 찬미
- [7] 독서의 즐거움
- [8] 진리 터득의 중요성
- [9] 인륜 대도를 실천 궁행해야 함
- [10] 학문 수행에 전념할 결의
- [11]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지
- [12] 영원한 학문 수행의 길

연정(戀情)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제
일지 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양하야 잠못드러 흐노라

하얗게 핀 배꽃에 달은 환히 비치고 은하수는 돌아서 자정을 알리는 때
에, 배꽃 한 가지에 어린 봄날의 정서를 자규가 알고 저리 우는 것일까
마는 다정 다감(多情多感)한 나는 그것이 병인 양, 잠을 이루지 못하여
하노라.

- 작 자 : 이조년(李兆年) 1269~1343. /원종~충혜왕 (고려 말엽)
- 종 류 : 평시조, 단시조
- 성 격 : 다정가(多情歌)
- 주 제 : 봄밤의 애상적인 정감

동지(冬至) 기나긴 밤을

동지(冬至)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춘풍)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털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귀구귀 퍼리라.

동짓달 긴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어,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어 두었다가,
정든 임이 오신 밤이면 굵이굵이 펼쳐 내어 그 밤이 오래오래 새게 이으
리라.

- 작 자 : 황진이(선조 때)
- 성 격 : 연정가(戀情歌), 애련(愛戀)의 노래, 감상적, 낭만적
- 체 재 : 연모(戀慕)의 정
- 구 조 : 초장 - 홀로 지새우는 긴긴 겨울 밤
중장 - 임에 대한 정성
종장 - 임을 그리는 애타는 마음
- 주 제 :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그리움

어저 내일이야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드냐.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뜰어
보니고 그리는 情(정)은 나도 몰라 흐노라.

아!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구나. 이렇게도 사무치게 그리울 줄을 미처
몰랐더냐? / 있으라 했더라면 임이 굳이 떠나시려 했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 좋고는 /이에 와서 새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 자신도 모르겠
구나.

- 작 자 : 황진이(선조 때)
- 종 류 : 평시조
- 성 격 : 감상적, 여성 편향적, 연정가, 이별가
- 체 재 :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
- 주 제 :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막음이 어린 후 | 니

막음이 어린 後(후) | 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만중 운산)에 어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횡여 권가 흐노라.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마다 모두 어리석다.
겹겹이 구름 낀 산중이니 임이 올 리 없건마는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 소리에도 행여나 임인가 하고 생각한다.

- 작 자 : 서경덕(徐慶德 ; 1489 ~ 1546)
- 종 류 : 평시조
- 성 격 : 감상적, 낭만적, 회한 연정가
- 체 재 : 기다림
- 주 제 : 임을 기다리는 마음

뒷버들 굴히 것거

뫓버들 곁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는 窓(창) ㅅ긔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넛꿈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산에 있는 버들가지를 아름다운 것을 골라 꺾어 임에게 보내오니,
 주무시는 방의 창문가에 심어두고 살펴 주십시오.
 행여 밤비에 새 잎이라도 나거들랑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기소서.

- 작 자 : 홍량(기생 ; 선조 때)
- 종 류 : 평시조, 단시조
- 성 격 : 이별가(離別歌), 연정가, 감상적, 애상적, 여성 편향적
- 제 재 : 뫓버들
- 주 제 : 임에게 보내는 사랑, 이별의 슬픔, / 임에 대한 그리움

이화우 훗뿌릴 제

梨花雨(이화우) 훗뿌릴 제 울며 잡고 離別(이별)한 님,
 秋風落葉(추풍 낙엽)에 저도 날 싱각는가.
 千里(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노매.

배꽃이 흠날리던 무렵에 손잡고 울며불며 하다가 헤어진 임,
 가을 바람에 낙엽 지는 가을이 되었으니, 그 임이 나를 생각하여 주실
 까?
 천 리 길 머나먼 곳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 작 자 : 계량(1513~1550)
- 성 격 : 기녀 연정가, 애상적
- 제 재 : 이별과 그리움
- 특 징 : 시간적, 공간적 거리감의 적절한 표현
- 주 제 : 고독과 그리움

귀쪼리 저 귀쪼리

귀쪼리 저 귀쪼리 어엿부터 저 귀쪼리
 여인 귀쪼리 지는 돌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節節(절절)이 슬픈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紗窓(사창) 여원 즘을 슬
 쓰리도 씨오논고야.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뽏 알리는 너썌인가 하노라.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구나 저 귀뚜라미 / 여인 귀뚜라미가 달이 지
 고 밤이 새도록 긴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로 제 혼자 계속해
 서 울어서, 사창 안에서 살포시 든 잠을 알뜰게도 깨우는구나. / 두어라,
 제가 비록 보잘 것 미물이나 임없이 홀로 지내는 나의 마음을 알아줄 이는
 저 귀뚜라미뿐인가 하노라.

- * 어엿부터 → 불쌍하다, 가련하다
- * 살뜨리도 → 착실하게도, 알뜰게도
- * 사창 → 김(비단)으로 바른 창문. 여인이 거처하는 방
- * 무인동방 → 독수공방. 임없이 홀로 지내는 여인의 외로운 방

- 성 격 : 사실시조, 연모가(戀慕歌)
- 표 현 : 의인법, 감정이입, 반복법
- 주 제 : 가을 밤, 임 그리는 외로운 여인의 정

나모도 돌도 바히 없슨

나모도 돌도 바히 없슨 뫓헤 매게 조친 가토리 안과,
 大川(대천) 바다 한가온디 一石(일천 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닻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돌대도 것고 치도 빠지고, 바람
 부러 물결치고 안기 뒤섯거 즈즈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
 (천리 만리) 남고 四面(사면)이 거머어득 저문 天地寂寞(천지
 적막) 가치노을 썌넛디, 水賊(수적) 만난 都沙工(도사공)의 안
 과,
 엇그제 님 여원 내 안이야 엇다가 ㄱ을허리오.

나모도 바윗돌도 없슨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일고 닻도 일고 용총줄도 끊어지고 돛
 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찾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 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둡하고 천지 적막 사나운 파
 도 치는데 해적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엇그제 임 여원 내 마음이야 어디
 다 견주어 보리오.

- 작 자 : 미상
- 성 격 : 별한가(別恨歌)
- 제 재 : 까투리와 도사공
- 주 제 : 사랑하는 임을 여원 견잡을 수 없이 절절한 심정

서방님 病(병) 들어 두고

書房(서방)님 病(병) 들어 두고 쓸 것 업셔
 鐘樓(종루) 저지 달리 파라 비 스고 감 스고 榴子(유자) 스고
 石榴(석류) 슷다 아츰츰 이저고 五花糖(오화당)을 너저발여
 고느
 水杓(수박)에 술 꼬즈 노코 한숨계워 하노라.

서방님 병들어 두고 먹일 것이 없어 / 종루 시장에 다리를 팔아, 배 사
 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를 샀다. 아차차 잊었구나. 오색 사탕을 잊
 었구나. / 수박에 숟가락 꽂아 놓고 한숨지어 하노라.

- 작 자 : 未詳(미상)
- 종 류 : 사실 시조
- 성 격 : 사랑가, 해학가
- 제 재 : 화채 재료
- 주 제 : 남편에 대한 애뜻한 사랑

바람도 쉬어 넘난 고개

바람도 쉬어 넘난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난 고개
산진니 수진니 해동청 보라매라도 다 쉬어 넘난 고봉 장성령
고개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한 번도 아니 쉬어 넘으리라.

바람도 쉬었다가 넘는 고개, 구름도 쉬었다가 넘는 고개 / 산진니(아생
매), 수진니(길들인 매), 해동청(송골매), 보라매(사냥매)라도 다 쉬었다
가 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 그 고개 너머에 님이 왔다고 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단번에 넘어가리라.

- 성격 : 사설시조(옛시조), 연모가(戀慕歌)
- 표현 : 열거법, 겹층법, 과장법
- 주제 : 임을 그리며 기다리는 마음

해학(諧謔)과 풍자(諷刺)

불가버슨 兒孩(아해) | 들리

불가버슨 兒孩(아해) | 들리 거미줄 테를 들고 기川(천)으로
往來(왕래)하며,
불가송아 불가송아, 저리 가면 죽는니라. 이리 오면 스는니라.
부로나니 불가송이 로다.
아마도 世上(세상) 일이 다 이러훈가 호노라.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으로 내왕하며, / “발가송아
불가송아, 저리 가면 죽는다. 이리 오면 산다.”고 부르는 것이 불가송이
로다./ 아마도 세상일이 다 이런 것인가 하노라.

- 작 자 : 이정신(李廷薰; 연대 미상)
- 종 류 : 사설 시조, 풍자시
- 성 격 : 풍자가
- 제 재 : 발가벗은 아이들[아이들과 잠자리]
- 주 제 : 서로 모해(模楷)하는 세상사

宅(택)들에 동난지가 사오

宅(택)들에 동난지가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화 그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
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
장) 으스스스 하는 동난지가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허렴은.

여러 사람들이여 동난것 사오. 저 장수야 네 물건 그 무엇이라 외치느
냐, 사자. / 밝은 단단하고 안은 물렁하며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
하고, 앞뒤로 기는 작은 발 여덟 개, 큰 발 두 개, 푸른 장이 아스스스하는
동난것 사오./ 장수야 하 거복하게 말하지 말고 게젯이라 하려므나.

- 작 자 : 미상(未詳)
- 종 류 : 사설 시조

- 성 격 : 해학적
- 제 재 : 동난지(게젯)
- 주 제 : 서민들의 상거래 장면

어머님 며느라기 낫바

시아머님 며느라기 낫바 벽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빛에 바른 며느라기 감세 쳐 온 며느라기. 밤나무 썩은 등걸
에 휘초리 나니긋치 양살핀신 시아버님, 벗 뵈 쇠뿔긋치 되종
고신 시어머님, 삼 년 (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곳부리긋치 썩
족후신 식누의님, 당(唐)피 가론 밧터 돌피 나니긋치 시노란
윗곳 곱튼 피송 누는 아들 하나 두고,
건 밧터 매곳 곱튼 며느리를 어디를 낫바 하시노고.

시아머님, 며느라기 나쁘다고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빛 대신으로 받은 며느리인가, 무슨 물건 값으로 데려온 며느리인가.
밤나무 썩은 등걸에 난 휘초리와 같이 매서운 시아버님, 뽕을 뽀 쇠뿔같
이 말라빠진 시어머님, 삼 년간이나 걸려서 엮은 망태기에 새 송곳 부
리같이 뽀족하신 시누이님, 좋은 곡식을 심은 밭에 돌피(나쁜 품질의 곡
식)가 난 것같이 셋노란 외꽃 같은 피뽕이나 누는 아들(너무 어려서 사
내 구실을 하지 못함을 풍자한 것) 하나 두고,
기름진 밭에 매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낫바 하시노고

- 작 자 : 미상(未詳)
- 종 류 : 사설 시조, 원부가(怨婦歌)
- 제 재 : 시집살이
- 주 제 : 며느리의 원정(怨情)

갓나희들이 여러 층이오레

갓나희들이 여러 層(층)이오레.
松鶴(송골)미도 갖고 줄에 안즌 저비도 갖고 百花園裡(백화
원리)에 두루미도 갖고 綠水波瀾(녹수파란)에 비오리도 갖고
싸히 퓌 안즌 소로기도 갖고 석은 등걸에 부형이도 갖네.
그러도 다 각각 남의 사랑인이 淸一色(개일색)인가 호노라.

계집들이 여러 층이더라.
송골매 같기도 하고, 줄에 얹은 제비 같기도 하고, 온갖 꽃들이 핀 들
에 두루미 같기도 하고, 크고 작은 푸른 물결 위에 비오리 같기도 하고,
땅에 얹은 소리개 같기도 하고, 썩은 등걸에 부엉이 같기도 하네.
그래도 다 각각 남의 사랑이니 각자가 다 뛰어난 미인인가 하노라.

- 작 자 : 미상(未詳)
- 제 재 : 여인들
- 주 제 : 각기 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여인들

개를 여남은이나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알미우랴.
 미운님 오면은 꼬리를 해해 치며 뒤락 내리 뒤락 반겨서 내달
 고 고운님 오면은 뒷발을 바둥바둥 므르락 나으락 강강 짚어
 돌아가게 한다.
 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이시랴.

개를 열 마리가 넘게 길렀어도 요 개같이 알미운 놈이 있을까.
 내가 미워하는 님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뛰어오르며 반겨서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 뒷발을 바둥거리며 뒤로 물러갔다
 앞으로 나아갔다하며 강강 짚어 돌아가게 하는구나.
 (설령) 선 밥이 그릇 그릇에 남아둔들 너에게 먹일 마음이 있겠느냐?

● 주제 : 주인의 진심을 몰라주는 개에 대한 알미운 감정

개야미 불개야미

개야미 불개야미 존등 부러진 불개야미, 압박에 정중나고 뒷
 발에 종귀 난 불개야미,
 廣陵(광릉) 심재 너머 드러 가람의 허리를 가로 물어 추허 들
 고 北海(북해)를 건너듯 말이 이셔이다.
 님아 님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개미 불개미, 잔등 부러진 불개미, 앞발에 종기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
 개미, / 광릉 삼고개 넘어 들어가 효랑이의 허리를 가로 물어 추허 들
 고, 북해를 건너다는 말이 있습니다. / 임이여, 모든 사람이 백 가지 말
 을 해도 임이 짐작하소서.

- 작 자 : 미상(未詳)
- 성 격 : 풍자시(諷刺詩)
- 제 재 : 다른 사람을 모함
- 주 제 : 다른 사람의 모함이 근거 없음

대천 바다 한가운데

대천 바다 한가운데 중침 세침 빠지거다
 여남은 사공놈이 끝 무딘 상앗대를 끝끝이 둘러메어 일시에
 소리치고 귀 꺾어 냐단 말이 있소이다.
 님아 님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넓디 넓은 바다 한가운데 중침, 세침(바늘의 종류)이 빠지었다.
 십여 명의 사공들이 끝이 다 무딘 상앗대를 저마다 둘러메고 한꺼번에
 소리치고 바늘귀를 꺾어 건져냈다는 (영터리같은) 말이 있소이다.
 님이시여, 백 사람이 백가지 말을 하여도 님께서 짐작하여 들으소서.

- * 중침(中針), 세침(細針) → 바늘을 그 크기에 따라 대침(大針), 중침, 세침이라 분류하여 부른다.
- * 빠지거다 → 빠지었다. ('~거다'는 '~았(었)다'의 뜻)
- * 상앗대 → 물이 얇은 곳에서 배를 밀고 갈 때에 쓰는 장대

- 성격 : 사실시조, 세태가, 풍자시
- 주제 : 못사람들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당부.

곰뱅이 매암이 되야~

곰뱅이 매암이 되야 나래 도쳐 나라 올라
 노프나 노픈 남게 소리난 조커니와
 그 우희 거미줄 이시니 그를 조심하여라.

곰뱅이가 매미가 되어 날개가 돋아서 날아 올라
 높고도 높은 나무 위에서 우는 소리는 좋지마는
 그 위에 거미줄이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여라.

- * 날개 돋은 매미 → 벼슬자리에 오른 인물
- * 높은 나무에서의 소리 → 권세를 부림
- * 거미줄 → 권세를 잃어 버릴 수 있는 경계의 상황(작자의 깨달음이 응축되어 있는 핵심어)

- 성격 : 평시조, 경계가(警誡歌)
- 표현 : 비유적
- 주제 : 분수에 넘치는 권력 행세에 대한 경계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다라 안자
 건너산(山)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떠 잇거날 가슴이 금
 족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힘 아래 짓바지거고.
 모처라 날낸 널식망정 에혈질 변하과라.

두꺼비가 파리를 입에 물고 두힘 위에 치달아 앉아 / 건너편 산을 바라
 보니 하얀 송골매가 떠 잇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풀쩍 뛰어서 내달리다
 가 두힘 아래에 넘어져 나뒹굴었구나. / 다행히도 날낸 나이기에 망정이
 지 멍이 들 변하였구나!

- * 파리 → 힘없는 선비나 백성
- * 두터비 → 부패한 양반 관리
- * 백송골 → 두꺼비보다 높은 중앙의 관리
- * 두힘 → 부정 축재의 상징

- 성 격 : 풍자가
- 제 재 : 두꺼비, 파리, 백송골
- 주 제 : 탐관 오리들의 부패상 풍자

● [필수가사] 정철 '관동별곡' 전문해석

1. 관찰사로 부임함(창평 - 한양 - 섬강,치악(원주))

江江湖호에 病병이 깊퍼 竹죽林림의 누엇더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泉石膏)이 되어, 은서지인 창평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關관東동八팔百백리리에 方방面면을 맞디시니,
(임금님께서) 8백 리나 되는 강원도 관찰사의 직분을 맡겨 주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아아, 임금님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그지없다)
延연秋추門문 드리드라 慶경會회 南남門문 바라보며,
(경복궁 서문인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회루 남쪽 문을 바라보며)

下하直직고 물너나니 玉옥節절이 알피 섰다.
(임금님께 하직을 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
平평丘丘驛역 물을 7라 黑흑수수로 도라드니,
(평구역[양주]에서 말을 갈아 타고 흑수[여주]로 돌아드니)

蟾섬江강은 어디메오, 稚티岳岳이 여기로다.
(섬강[원주]는 어디인가? 치악산[원주]이 여기로구나)

2. 도내 각 고을 순회(소양강(춘천) - 동주(철원) - 회양)와 관찰사로서의 포부

昭소陽陽江강 々々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소양강의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다는 말인가 (임금 계신 한강으로 흘러들겠지?)

孤고臣신 去거國國에 白백髮발도 하도 할샤.
(임금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가 서울을 떠나매 (우국지정)으로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東동州州 밤 계오 새와 北북寬寬관평의 올라하니,
(동주[철원]의 밤을 겨우 새워(날이 새자마자) 북관정에 오르니,)

三삼角각山山 第第一一峰봉이 々々면 氷氷로다.
(임금 계신 서울의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弓궁王왕 大대關關 吐티 烏오鵲작이 지지괴니,
(옛날 태봉국 궁예왕의 대궐 터였던 곳에 까막까치가 지지괴니,)

千천古古 興흥亡망을 아는다, 물으는다.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알고 우는가, 모르고 우는가.)
淮회陽陽 々々 일흠이 마초아 7틀시고.

(이 곳이 옛날 한(漢)나라에 있던 '회양'이라는 이름과 공교롭게도 같구나.)
汲汲長당孺유 風풍彩彩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중국의 회양 태수(太守)로 선정을 베풀었다는 급장유의 풍채를 이 곳 회양에서 다시 볼 것이 아닌가?)(선정 포부를 밝힘)

3. 만폭동 폭포의 장관

營營中中이 無무事事하고 時時節절이 三三月월인 제,
(감영 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 때,)
花화川천 시내길히 楓풍岳岳악으로 버더 잇다.
(화천(花川)의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行행裝裝을 다 썰티고 石石徑徑의 막대 디퍼,
(행장을 간편히 하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百백川천洞동 거터 두고 萬萬瀑폭洞동 드러가니,
(백천동을 지나서 만폭동 계곡으로 들어가니,)
銀은 7튼 무지개, 玉옥 7튼 龍龍의 초리,
(은같은 무지개 옥같이 희고, 고운 용의 꼬리 같은 폭포가) 셋돌며 썸는 소리 十十里리의 주자시니,
(섞여 돌며 내뿜는 소리가 십리 밖까지 퍼졌으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멀리서 들을 때에는 우렛소리(천둥소리)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 눈이 날리는 것 같구나!)

4. 금강대에서의 신선적 풍모

金金剛강臺臺 민 우층층의 仙仙鶴鶴학이 샅기 치니,
(금강대 맨 꼭대기에 학이 새끼를 치니)
春春風風 玉玉笛笛聲聲의 첫음을 싹뚫던디,
(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선잠을 깨었던지,)
縞縞衣衣의 玄玄裳裳이 半半空공의 소소 쓰니,
(흰 저고리 검은 치마로 단장한 학이 공중에 솟아 뜨니,)
西西湖湖 넷 主主人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서호의 옛 주인 임포를 반기듯 나를 반겨 넘나들며 노는 듯 하구나!)

5. 진혈대에서의 조망

小小香香爐爐 大대香香爐爐 눈 아래 구버보고,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正正陽陽寺寺 眞眞歇歇臺臺 고터 올라 안즌마리,
(정양사 진혈대에 다시 올라앉으니,)
廬廬巖巖山山 眞眞面面目목이 여기야 다 뵈는다.
(여산 같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야 다 보인다)
어와, 造造化化翁翁이 현스도 현스할샤.
(아아,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저 수많은 봉우리들은 나는 듯 하면서도 뛰는 듯도 하고, 우뚝 섰으면서도 솟은 듯하니, 참으로 장관이로다.)

芙부蓉을 고갯논 듯, 白백玉옥을 못갯논 듯,
 (연꽃을 꽃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東동溟명을 박차는 듯, 北북極극을 괴왔는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어 놓은 듯하구나)
 높을시고 望望高高臺臺, 외로울샤 穴혈望望峰봉이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여,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리려고)
 千千萬萬劫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곱힐 줄 모르는가?(그 지조가 놀랍구나.))
 어와 너여이고, 너 ㄱㅌ니 또 잇는가
 (아, 너(망고대, 혈망봉)로구나. 너같은 높은 기상을 지닌(지조가 높은) 것이 또 있겠는가?)

6. 개심대에서의 조망

開開心心臺臺 고터 올라 衆衆香香城城 바라보며,
 (개심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며)
 萬萬二이千千峰봉을 歷歷歷歷히 허여허니
 (만 이천 봉을 똑똑히 헤아려 보니,)
 峰봉마다 밋쳐 잇고 峯마다 서린 기운,
 (봉마다 밋혀 잇고, 끝마다 서린 기운.)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맑고 깨끗한 저 산봉우리의 빼어난미여!)
 ㄷ 더 기운 흐터 내야 人인傑傑를 ㄴ뉘고쟈.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흠어 내어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形形容容도 그지업고 體體勢勢도 하도 할샤.
 (생긴 모양도 각양각색 다양도 하구나.)
 天天地地 삼기실 제 自自然然이 되연마는,
 (천지가 생겨날 때에(만 이천 봉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有情情도 有有情情할샤.
 (이제 와서 보니 모두가 뜻이 있게 만들어진 듯하여 정답기도 정답구나!)

7. 비로봉을 바라보며 공자의 덕 흠모

毗毗盧로峰봉 上上上上頭頭의 올라 보니 ㄱ 뉘신고.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에 올라 본 사람이 누구이신가?)
 東동山山 泰태山山이 어느냐 ㄴ뉘던고.
 (동산과 태산의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높던가?)
 魯魯國國 조븐 ㄷ출도 ㄴ우리는 모르거든,
 (노나라가 좁은 ㄷ출도 ㄴ우리는 모르거든.)
 ㄴ뉘거나 ㄴ뉘는 天天地地하 ㄴ뉘씨하야 ㄴ적답말고.
 (하물며 ㄴ뉘거나 ㄴ뉘는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했는

가?)
 어와 ㄷ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아! 공자와 같은 그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가?(공자의 호연지기를 도저히 따를 수 없네.))
 오르디 못허거니 ㄴ려가미 ㄴ고이힐가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무엇이 괴이할까?)

8. 화룡소를 보며 선정에의 포부를 다짐

圓圓通通골 ㄱ는 길 獅獅子子峰봉을 ㄷ자가니,
 (원통골의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피 ㄴ려바회 化化龍龍소 되여세라.
 (그 앞의 넓은 바위가 화룡소(化龍沼)가 되었구나.)
 千千年年 老老龍龍이 ㄱ비구비 서려 이셔,
 (마치 천 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같이)
 晝晝夜夜의 ㄴ려내어 滄滄海海에 니어시니,
 (밤낮으로 물을 흘려 내어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風風雲雲을 언제 어더 三三日月雨雨를 디련는다.
 ((저 용은)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흡족한 비를 내리려느냐?)
 陰陰崖崖에 이온 ㄴ를 다 살와 ㄴ려사라
 (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려무나.(선정의 포부가 나타나 있다.))

9. 십이폭포의 장관

磨磨訶訶衍衍 妙妙吉吉祥祥상 雁雁門門문재 너머 디어,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외나모 ㄷ러 佛佛頂頂臺臺 올라허니,
 (씩은 외나무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千千壽壽絶絶壁벽을 ㄴ반空공에 세워 두고,
 ((조물주가) 천 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 두고,)
 銀銀河河水水 한 ㄱ비를 ㄷ촌이 버혀 내어,
 (은하수 큰 굽이를 마디마디 잘라내어)
 ㄴ실ㄱ티 ㄴ플터이셔 ㄴ벼ㄱ티 거러시니,
 (실처럼 풀어서 벼처럼 걸어 놓았으니)
 圖圖經經 열 두 ㄱ비, ㄴ내 보매는 ㄴ려히라.
 (산수도경에는 열 두 굽이라 하였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되어 보인다.)
 李李譎譎仙仙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만일, 이백이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盧盧山山이 ㄴ여기도곤 ㄴ뉘단 말 못허려니.
 (여산 폭포가 여기보다 ㄴ뉘다는 말은 못 할 것이다.)

10. 동해로 가는 감회

山山中中을 미양 보라, 東東海海히로 가자스라.
 (내금강 산중의 경치만 매양 보겠는가? 이제는 동해로 가자

꾸나.)

籃輿輓步보하야 山山映樓누의 올라하니,

(남여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오르니,)

玲瓏碧溪계와 數聲啼鳥도는 離別을 怨원하
는 듯,

(눈부시게 반짝이는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짖는 산새는 나
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고(감정이입),)

旌旗를 펼티니 五色이 넘노는 듯,

(깃발을 휘날리며 오색 기폭이 넘나드는 듯하며,)

鼓角을 섰부니 海雲이 다 걷는 듯

(북과 나팔을 섞어 부니(풍악을 울리니) 바닷구름이 다 걷히
는 듯하다.)

鳴沙사길 니근 돌이 醉취仙선을 빗기 시러,

(모랫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작자)을 비스듬히 태우고)

바다를 건너 두고 海棠花화로 드러가니,

(해변의海棠화 핀 꽃밭으로 들어가니,)

白鷗구야 누디 마라, 네 버딘 줄 었디 아는.

(백구야 날지 마라, 내가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11. 총석정의 장관

金闕난궁 굴 도라드러 叢石석후 덩 올라하니,

(금단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올라가니)

白玉옥樓 누 남은 기둥 다만 네히 서 잇고야.

(옥황 상제가 거처하던 백옥루의 기둥이 네 개만 서 있는 듯
하구나.)

工倕의 성령인가, 鬼斧부로 다드문가

(옛날 중국의 명장(名匠)인 공수(工倕)가 만든 작품인가? 조
화를 부리는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야 六面면은 으어울 象상 툃던고.

(구태여, 육면으로 된 돌기둥은 무엇을 본 뺐는가?)

12. 삼일포에서의 사선 추모

高城성을란 더만 두고 三日月포를 추자가니,

(고성을 저 만큼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丹擘書는 宛然然연되 四스仙선은 어디 가니.

(그 남쪽 봉우리 벼랑에 '영랑도 남석행'이라고 쓴 붉은 글씨
가 뚜렷이 남아 있으나, 이 글을 쓴 사선은 어디 갔는가?)

에 사할 머는 後후의 어디 가 또 머물고.

(여기서 사할 동안 머무른 뒤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던고?)

仙선遊유潭담 永영郎랑湖호 거긔나 가 잇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긔나 가 있는가?)

淸淸澗간亭亭 萬만景경臺대 몇 고디 안뎃던고,

(청간정, 만경대를 비롯하여 몇 군데서 앉아 놀았던가?)

13. 의상대에서 본 일출의 광경

梨梨花화는 벌써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배꽃은 벌써 지고 소쩍새 슬피 울 때,)

洛洛山山東東畔반으로 義의相상臺대에 올라 안자,

(낙산사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동만 니러하니,

(해돋이를 보려고 한밤중쯤 일어나니,)

祥상雲운이 집피는 동, 六六龍龍이 바되 는 동,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여러 마리 용이 해
를 떠받치는 듯,)

바다히 써날 제는 萬만國국이 일워더니,

(바닥에서 솟아오를 때에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하더니,)

天天中동의 티스니 浩浩髮발을 헤리로다.

(하늘에 치솟아 뜨니 가는 터럭도 헤아릴 만큼 밝도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혹시나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이백
의 시구 인용).)

詩시仙선은 어디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스니.

(이백은 어디 가고 (간신배가 임금의 은총을 가릴까 염려스
럽다는) 시구만 남았느냐?)

天天地地間간壯장한 奇奇別 췌셔히도 嘯셔이고.

(천지간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표현되었구나.)

14. 경포의 장관과 강릉의 미풍 양속

斜斜陽양 峴현山산의 磻磻을 만나볼와

(저녁 햇빛이 비껴드는 현산의 철쭉꽃을 이어 밝아,)

羽우蓋개 芝지輪輪이 鏡鏡浦浦로 느려가니,

(우개지륜을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十十里리 氷빙紈紈을 다리고 고터 다려,

(십 리나 뻗어 있는 얼음같이 흰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린
것 같은,)

長長松송 울흔 소개 슬꺾장 퍼머시니,

(맏고 잔잔한 호숫물이 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싼 속에 한껏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여 물 속 모래알까지도 헤아릴 만
하구나.)

孤孤舟舟解解纜纜하야 亭亭子子 우히 올라가니,

(한 척의 배를 띄워 호수를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江江門門 橋橋 교 너른 거터 大대洋양이 거긔로다

(강문교 너른 곁에 동해가 거긔로구나.)

從從容容 峯峯 이 氣氣像像, 關關遠遠 峯峯 더 境境界界,

(조용하구나 경포의 기상여, 넓고 아득하구나 저 동해의
경계여,)

이도곤 곳곳 디 또 어디 잇닷 말고.

(이 곳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잇단 말인
가?)

紅紅粧粧 古古事事를 懸懸스타 啼啼로다.

(과연 고려 우왕 때 박신과 홍장의 사랑이 호사스런 풍류이

기도 하구나)

江陵 능 대대都도護호風俗속이 도홀시고,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기도 하구나.)

節절孝효旌정門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충신, 효자, 열녀를 표창하기 위하여 세운 정문이 동네마다 널렸으니)

比비屋옥可가封봉이 이제도 잇다 홀다.

(준비하게 늘어선 집마다 모두 벼슬을 줄 만하다는 요순 시절의 태평 성대가 이제도 있다고 하겠도다.)

15. 죽서루(삼척)에서의 객수

眞진珠주館관 竹죽西서樓루 五오十십川천 낙린 물이

(진주관[삼척] 죽서루 아래 오십천의 흘러내리는 물이)

太태白백山산 그림자를 東동海해로 다마 가니,

((그 물에 비친)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옮겨)가니,)

출하리 漢한江강의 木목屨의 다히고져.

(차라리 그 물줄기를 임금 계신 한강으로 돌려 서울의 남산에 대고 싶구나.)

王왕程정이 有有限한하고 風풍景경이 못 슬미니,

(관원의 여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불수록 싫증나지 않으니,)

幽유懷회도 하도 할사, 客객愁수도 둘 디 업다.

(그윽한 회포가 많기도 많고, 나그네의 시름도 달랠 길 없구나.)

仙仙槎사를 띄워 내어 斗두牛우로 向향할살가,

(선선이 타는 뗏목을 띄워 내어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仙仙人인을 좇조려 丹단穴혈의 머므살가

(사선을 찾으려 단혈에 머무을까?)

16. 망양정(울진)에서의 파도 조망

天천根근을 못내 보와 望망洋양亭亭의 울은말이,

(하늘의 맨 끝을 끝내 못보고 망양정에 오르니,)

바다 밝근 하늘이니 하늘 밝근 므르신고.

((수평선 저 멀리)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긋긋 노흔 고래, 뉘라서 놀내판디,

(가뜩이나 성난 고래(파도)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

불거니 뽀거니 어저러이 구는디고.

(물을 불거니 뽀거니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銀은山산을 것거 내어 六육습합의 낙리는 듯,

(은산을 꺾어 내어 온 세상에 흩뿌려 내리는 듯)

五오月월 長당天廷의 白백학설은 므스 일고.

(오월 드높은 하늘에 백설(파도의 물거품)은 무슨 일인가?)

17. 동해의 달맞이

저근덧 밤이 드러 風풍浪浪이 定定한거늘,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바람과 물결이 가라앉기에,)

扶부桑상旸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해 뜨는 곳이 가까운 동해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瑞서光광千천丈丈당 이 晝는 듯 숨는고야.

(상서로운 빛줄기가 보이는 듯하다가 숨는구나.)

珠주簾렴을 고터 짓고, 玉옥階계를 다시 쓸며,

(구슬을 꿰어 만든 발을 다시 걸어올리고 옥돌같이 고운 층계를 다시 쓸며,)

啓계明明星성 듯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새별이 돌아 오를 때까지 곳곳이 앉아 바라보니,)

白백蓮년花화 한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고.

(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흰 연꽃 같은 달덩이를 어느 누가 보내셨는가?)

일이 玆은 世세계계 喑대되 다 晝고져.

(이렇게 좋은 세상을 다른 사람 모두에게 보이고 싶구나. 온 백성에게 은혜가 골고루 미치도록 선정을 베풀고 싶다.)

流流霞하酒주 7득 부어 躑躅 무론 말이,

(선선주를 가득 부어 손에 들고 달에게 묻는 말이,)

英英雄웅은 어디 가며, 四스仙선은 그 뉘러니,

(“옛날의 영웅은 어디 갔으며, 신라 때 사선은 누구더냐?”)

아미나 맛나 보아 넷 古별 못자 하니,

(아무나 만나 보아 영웅과 사선에 관한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仙仙山산 東동海해에 갈 길히 머도 멀사.

(선산이 있다는 동해로 갈 길이 멀기도 하구나)

18. 꿈 속의 선연

松송根근을 베어 누어 淸淸을 얼끗 드니,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이 얼핏 들었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날드려 날은 말이,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그대를 내 모르랴, 上상界계에 眞진仙仙이라.

(“그대를 내가 모르랴? 그대는 하늘 나라의 참 선선이라,)

黃황庭庭經경 一일字字를 엮디 그릇 날거 두고,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고)

人人間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쏘오논다.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한 잔 머거 보오.

(잠시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海水수 부어 내어,

(북두 칠성과 같은 국자를 기울여 동해를 같은 술을 부어)

저 먹고 날 머거늘 서너 잔 거후로니,

(저 먹고 나에게도 먹이거늘, 서너 잔을 기울이니)

和화風풍이 翕습翕습하야 兩兩脇脇을 추혀 드니,

(온화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양 겨드랑이를 추켜올리니,)

九구萬만리 長당空공에 저기면 놀리로드.

(아득한 하늘도 웬만하면 날 것 같구나.)

이 술 가져다가 四_스海_히에 고로 눈화,
 (이 신선주를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눠)
億_억萬_만蒼_창生_생을 다 醉_취게 밍근 後_후의,
 (은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고타 맛나 또 한 잔 ㅎ_쫓고야.
 (그 때에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말디자 鶴_학을 타고 九_구空_공의 올라가니,
 (말이 끝나자, 신선은 학을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니)
空_공中_중 등 玉_옥蕭_소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공중의 옥통소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어렵풋하네)
나도 잠을 썬여 바다_흠 구버보니,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기_피를 모르거니 7_인들 엇디 알리.
 (깊이를 모르는데 하물며 가인들 어찌 알리.)
明_명月_월이 千_천山_산萬_만落_낙의 아니 비친 디 업다.
 (명월이 온 세상에 아니 비친 곳이 없다)